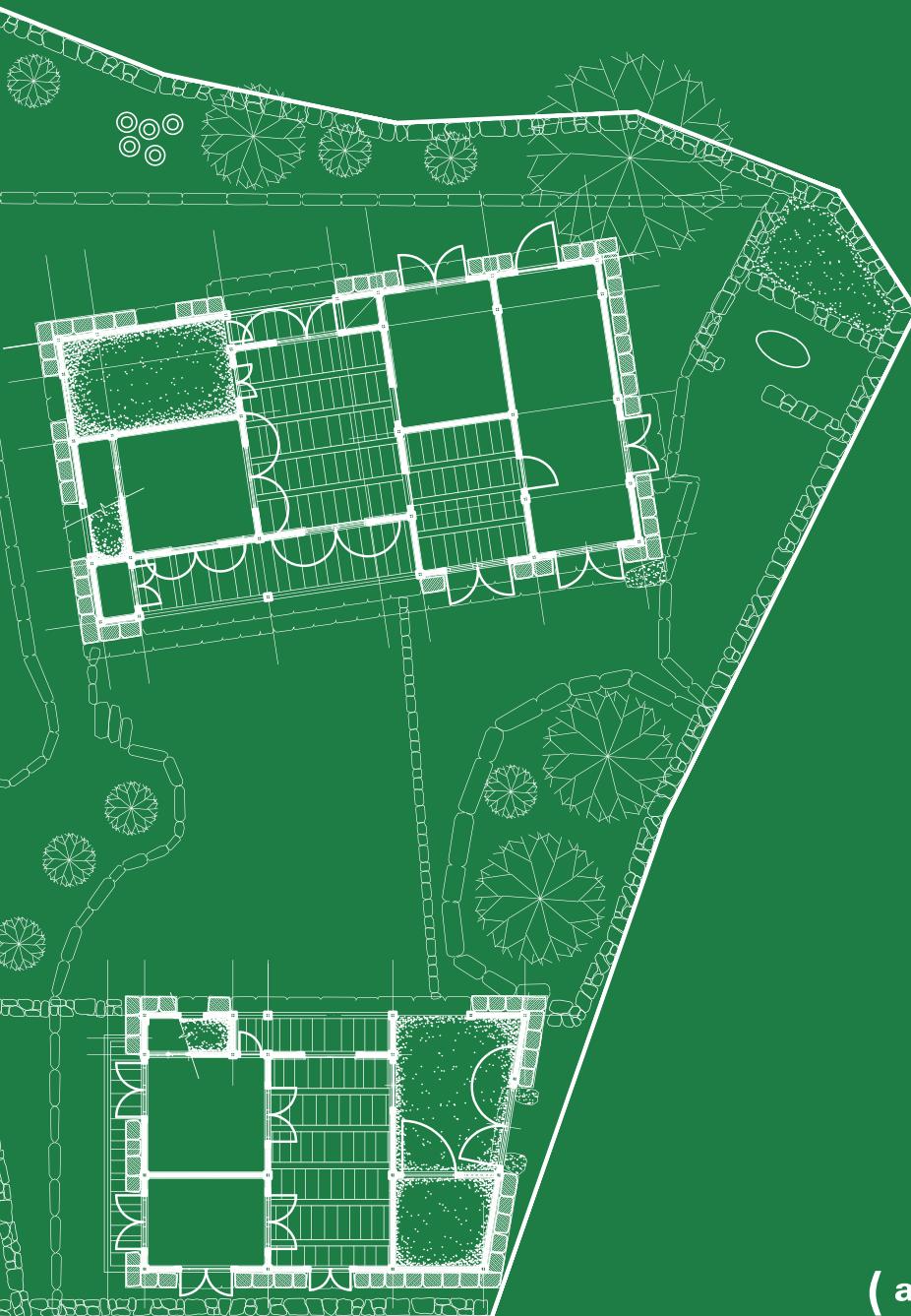


제주 한옥, 박씨초가이야기



(auri) 건축공간연구원

제주
한옥,

박씨초가이야기

(auri) 건축공간연구원

목차

I. 서론

1. 건축자산 제도의 소개	/ 006
2. 한옥 심층조사의 취지	/ 010
3. ‘제주 한옥’의 정의	/ 013

국가한옥센터

II. 제주 한옥의 이해

1. 제주 한옥의 용어	/ 019
2. 제주 한옥의 배치	/ 036
3. 제주 한옥의 평면	/ 048
4. 제주 한옥의 입면과 구조	/ 051
5. 건축자산을 통해 본 제주 한옥의 특징	/ 056

양진 가우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III. 박씨초가 이야기

- | | |
|-------------------|-------|
| 1. 박씨초가의 연혁과 사람들 | / 074 |
| 2. 박씨초가의 건축적 특징 | / 080 |
| 3. 박씨초가의 건축자산적 가치 | / 107 |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고기봉 건축디자인연구소 사유 대표

IV. 제주 한옥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언

- | | |
|----------------------------------|-------|
| 1. 박씨초가의 활용 | / 128 |
|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고기봉 건축디자인연구소 사유 대표 | |
| 2. 원형과 변화의 조율 | / 133 |
| 이창규 · 강정윤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대표 | |
| 3. 한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활용 | / 176 |
| 국가한옥센터 | |

|

서론

-
1. 건축자산 제도의 소개
 2. 한옥 심층조사의 취지
 3. ‘제주 한옥’의 정의

1. 건축자산 제도의 소개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마주치며 살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기념비적인 건축물이거나 디자인이 수려한 건축물이 아니라면, 특정한 건축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건축물에 담긴 용도로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건축물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급의 건축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은 지역민의 역사, 생활, 기억을 담고 있다. 특히 한옥이라는 건축물은 현대건축의 틈바구니에서 특수한 형태의 건축물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듯 문화재급 건축물은 아니지만 지역의 소중한 장소를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건축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시장, 광장, 공원, 옛길과 물길, 교통·하천구조물 등도 건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건설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등록문화재와는 달리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조성시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¹⁾ 가까운 과거에 건설되었더라도 가치가 있다면 건축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1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건축자산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수건축자산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취소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2.12.0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특히 「한옥등건축자산법」을 통해 ‘한옥’은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이 법에서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동·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된다. 또한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해 건축한 것”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이러한 건축자산 제도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옥이나 근현대 건축 등 기존에 지어진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옥과 한옥마을의 신축과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은 전자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통한 지원과 관리를, 후자인 한옥과 한옥마을의 진흥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법에 따라 건축자산을 실질적으로 지원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보전과 활용의 가치가 있는 개별 건축자산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거나, 우수건축자산 또는 건축자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정 영역의 지역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법

에서 우수건축자산은 예술적·역사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 건축자산으로 정의된다. 소유자가 등록 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의 등록을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한옥이나 근현대 건축 등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조세 감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비용의 지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특례 및 자자체 조례로 정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도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지만, 외관을 변경 하는 행위나 이전·철거에 대해서는 관할 자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조세 감면이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전·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축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건축자산 제도는 문화재 제도와 구별된다.

우수건축자산은 2015년의 건축자산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개가 등록되었다. 총 14개 우수건축자산 중 12개가 서울

우수건축자산 등록 현황

지역	구분	명칭	소유주	등록연도
경기	건축물	매향리 쿠니사격장	화성시	2016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서울시	2017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대선제분(주)	2019
		캠벨선교사 주택	서울시	2019
		북촌한옥청	서울시	2020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	서울시	2020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	선린인터넷고등학교(공립)	2020
		경복고등학교 체육관	경복고등학교(공립)	2020
		공공일호	(주)공공그라운드	2020
	기반시설	김중업 설계 사직동 주택	서울도시주택공사	2022
		돈화문로	서울시	2020
제주	건축물	사직터널	서울시	2020
		명동 지하상가	서울시	2020
	건축물	소라의 성	제주도	2022

에 위치하는 현황은,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이 아직은 특정 지자체에 한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시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었거나 매입해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간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과 활용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복촌한옥청’만이 유일한 한옥으로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다.²⁾

한옥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멸실 위험이 높은 건축 유형이다. 문화재급 한옥이 아닌 이상,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만으로 보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한옥을 건축자산 제도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다면, 현대생활과 활용목적에 맞게 건축행위를 하는 동시에, 한옥이 가지는 여러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복촌한옥청은 서울시가 복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에 매입한 공공한옥이다. 전시실과 휴게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한옥 공간을 체험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2. 한옥 심층조사의 취지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할 일은 현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책을 기획한 국가한옥센터는 중앙정부의 한옥정책과 지자체의 한옥지원 제도와 사업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11년에 건축공간연구원에 설립되었다. 이후 2015년에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정센터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의 교량 역할을 하며 한옥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한옥센터는 2011년부터 전국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한옥전수조사는 지자체 전체의 한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이다. 건축물대장 등 행정문서와 지도정보를 검토해 한옥의 유무를 판별하고, 외관, 유지관리 등 한옥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한옥의 보전 및 유지상태에 따라 A·B·C 등 대략적인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 대구, 경북 등 지역 한옥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건축자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축자산 기초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지자체가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해 건축자산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에는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에서 제공하는 기초조사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결과물은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한옥전수조사와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기초자료는 계속 축적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와 기관의 노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었지만, 기초적인 조사결과만으로 개별 건축자산이 가지는 가치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건축자산(건축물) 기초조사표 중 가치판단 부분

출처: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참고 사항 가치 판단	조사자		조사기관		조사일	
	연혁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정보출처)				
	보전상태	[]상 []중 []하				
	특징 및 주요가치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주요 보전 부분					
	건축자산적 가치	가치 구분 (증복체크 가능)	[] 역사적 가치	[] 경관적 가치	[] 예술적 가치	
		[] 사회문화적 가치	[] 기타 ()			
	가치 보전수준	[]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개·보수 현황	날짜 (2000.00.00)	구분 (증축, 개축 등, 리모델링 등)	내용 (주요 개보수 내용 기입)		
	참고사항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화된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의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근거로 보전의 대상을 선별하고 보전과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조사와 가치 확인의 과정이 소략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옥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자산으로서, 지역 한옥이 가지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해당 한옥의 가치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전과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는 2021년부터 한옥에 대한 기초조사 이외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한옥 심층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지역의 고유한 건축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 향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성이 높은 우수한 한옥에 대해 기록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우수건축자산으로의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 박씨초가는 한옥 심층조사의 첫 대상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

차에 걸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국가한옥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 고유의 건축양식과 공간구조가 잘 보전되어 있고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며 현실적인 제주사람들의 주거문화가 잘 남아 있는 박씨초가를 심층조사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문헌조사, 구술채록을 통한 기초 자료 조사, 건축물 실측을 통한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등 학술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그리고 박씨초가 심층조사의 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확장해 이처럼 단행 본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일반인에게는 지역의 다양한 한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는 지역별 비문화재 한옥 중 지역성을 대표하고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한옥의 발굴 및 우수건축자산으로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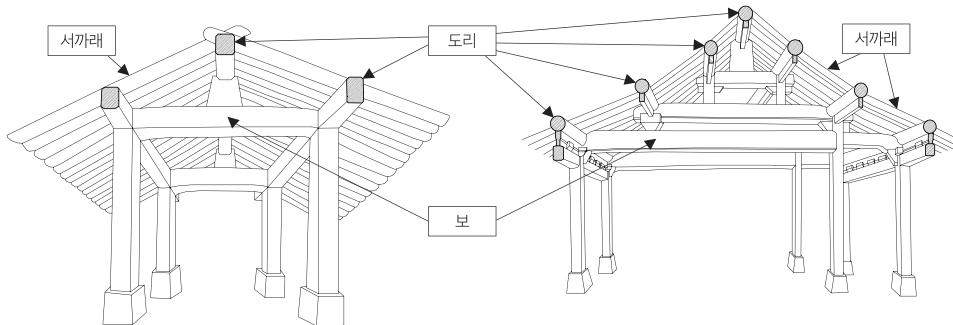
3. ‘제주 한옥’의 정의

일반적으로 ‘한옥’이라고 하면 가구식 목구조에 기와지붕이 올라간 집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한옥의 모습이 제주도에서는 보기 드물다. 건물의 목구조는 검은 색 현무암으로 쌓은 외벽에 가려져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지붕은 대개 새(茅)라는 풀로 이은 초가지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눈에 두드러지는 외형적 차이 때문인지 제주도의 전통적인 건축물은 ‘한옥’보다는 ‘제주 전통가옥’으로 불리거나, ‘제주형 한옥’ 등 일반적인 한옥과는 다른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한옥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서술했듯이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한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식지붕틀’은 다시 국토교통부의 「한옥 건축 기준」을 통해 정의되는데,³⁾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이처럼 한옥이라는 특정 건축물은 구조적 특징과 양식적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다.

‘주요 구조’를 기둥·보로 규정한 것은 현대건축에서 많이 사용되는 철재, RC조의 기둥과 구분하고, 경량의 벽체구조와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2×4 등의 경량 목구조, 목조패널 공법 등과도 구분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의 위에 도리를 보와 직교되게 배치하고 그 위에 다시 도리와 직교되게 서까래를 얹는 ‘한식지붕틀’을 규정한 것은, 트러스구조와 경량목구조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법에서의 전통양식은 벽체의 구성, 창호 등에서의 전통방식을, 「한옥 건축 기준」에서의 전통양식은 구법 상의 전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국토교통부는 「한옥등건축자산법」에 근거해, 한옥의 형태, 재료, 성능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15년에 「한옥 건축 기준」을 제정했다.



한옥의 구조

©국가한옥센터

한옥 건축 기준 (2021.11.17.)

제5조(지붕)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기와와 수기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벽 및 창호) 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2.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어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과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건축물은 기둥·보 및 한식지붕들로 된 목구조이자 제주 지역의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로서, 한옥의 법적인 정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기와보다는 초가지붕이 흔한 제주에서, 기와지붕을 기본으로 한 「한옥 건축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어렵다. 건축물 외벽을 이루는 목재 부재가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제주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한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2017년에 제정했다.

여기에서는 ‘한옥 신축’과 ‘제주 전통가옥’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례에서 제주 전통가옥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제2호의 한옥으로서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어, 한옥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도 특별히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옥의 구조와 한식지붕틀에 대해서는 법의 정의를 공통으로 적용하되, 양식에 대해서는 제주 이외 지역의 한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식과는 다른 제주 한옥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양식과 공간구조라는 조건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2020.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한옥 신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5. “제주전통가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한옥으로서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6. “제주돌담”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간환경으로서 제주의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하고 제주 지역의 전통 축조 방식을 반영하여 쌓은 담장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제주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공간구조가 반영된 건축물을 폭넓게 ‘제주 한옥’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옥의 이미지와는 달리 지역별 한옥은 매우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옥을 정의하고 지원하는 법과 기준이 다양한 한옥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한옥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제주 한옥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공간구조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제주 한옥의 이해

-
1. 제주 한옥의 용어
 2. 제주 한옥의 배치
 3. 제주 한옥의 평면
 4. 제주 한옥의 입면과 구조
 5. 건축자산을 통해 본 제주 한옥의 특징

양건 가우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도는 한반도의 부속 섬이지만 육지부와는 다른 자연·지리적인 환경 조건 속에 위치한다. 그리고 12세기 초반 고려에 복속되기 전까지 탐라국이라는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갖게 된 인문·사회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해상에 위치한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인 조건은, 강한 바람과 잦은 태풍, 가뭄에 취약하고 척박한 토양 등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환경적 요소를 야기했고, 제주도 민들은 고대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한반도와는 다른 독특한 생활양식과 주거환경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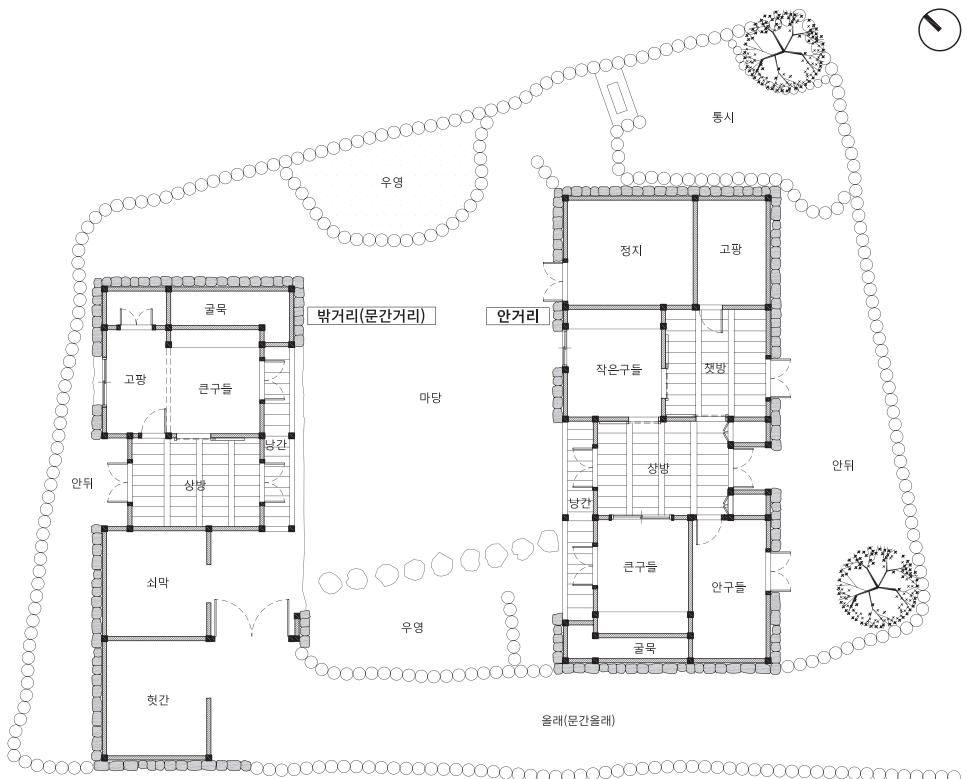
제주도에는 중앙부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면의 해안을 따라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토양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무암으로 인해 하천이 발달하지 못해, 해안선의 용출수 분포에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다. 주거에서는 강한 바람과 태풍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고 지면보다 낮게 건물을 배치했고, 새를 이용해 지붕을 잇되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줄을 이어서 고정시켰다.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연중 온난 습윤한 기후로 난방의 필요성이 육지부보다 낮아, 난방과 취사를 분리한 개별공간이 형성되었다.

제주도의 이러한 척박한 자연환경적인 조건 속에서 여성은 가사활동뿐 아니라 남성과 함께 경제활동을 영위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는 곧 공간의 구성과 건물의 배치에도 영향을 주었다. 육지부의 주택에서는 유교라는 사회체제에 맞춰 남녀의 공간이 구별되고 위계가 형성된 것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성별에 의한 위계 보다는 공간의 위계에 따라 내외부공간이 배치되었다. 또한 부모세대로부터 자식세대가 독립해 별도의 생활공간을 영위하는 대신에, 하나의 주거영역에 두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세대에 따라 건물의 배치와 구성, 위계가 달라진다.

1. 제주 한옥의 용어

1) 외부공간

제주 한옥의 외부공간은 돌담으로 쌓은 울타리에 의해 그 경계가 형성되고,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밖거리, 모커리 등이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구심적인 배치형태를 띤다. 그리고 우영, 통시 등의 기타 공간이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구성되는데, 별동과의 연결, 외부로 열려있는 정도에 따라 그 위치가 좌우된다. 이는 공간의 위계와 질서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능적으로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내부를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제주 한옥의 외부공간 (상가리 1745)

출처: 김상언(건축사사무소 담)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박용준

올래

올래는 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제주만의 독특한 골목공간이다. 공공공간인 도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유공간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올래라고 하여 이웃과 공유하기도 한다.¹⁾ 올래는 단순히 필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주의 거친 바람으로부터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골목을 두는 것이다. ‘올랫담’이라 불리는 돌담을 쌓아 2m 전후의 좁은 폭을 형성해, 독특한 경관과 위요감을 형성한다. 게다가 돌만으로 짜인 제주의 돌담은 일종의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²⁾ 올래는 단순히 진입공간인 대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올래, 올래와 올래, 올래와 세대를 연결하는 경계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올래의 입구는 ‘어귀’라고 부른다. 올랫담이 시작하는 부분의 하부에는 ‘어귓돌’이 놓인다. 비 올 때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올래 바닥의 양옆에는 잘 다듬어진 ‘다리팡돌’이 설치된다.³⁾ 다리팡돌은 마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래는 문간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짧은 올래와 문간거리가 결합된 ‘문간올래’(화북일동 1817-1의 사진), 짧은 올래와 정낭이 결합된 형태(제주민속촌의 사진), 문간 없이 긴 올래가 만들어진



문간올래 (화북일동 1817-1, 2002)



올래 (상예동 1425, 2017)

1 양상호. (2015). 제주건축역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p.85

2 김태일. (2008). 제주건축. 제주대학교 출판부, p.50

3 이용규, 이승택, 김정근. (2017). 제주 올래와 올랫담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무근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3), p.3



올래 (서호동 847, 2017)



올래 (제주민속촌, 2022)

경우(상예동 1425, 서호동 847의 사진) 등이 있다.

‘정낭’은 문간이 없는 세대에서 대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입구 양 쪽에 구멍을 뚫은 돌인 정주석에 걸쳐놓은 나무를 말한다. 정낭은 소나 말의 출입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낭을 정주석에 걸친 개수에 따라 집주인이 언제쯤 돌아오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 역할도 했다.



정낭과 정주목 (성읍민속마을, 2010)

문간(이문간, 먼문간)

문간은 마을에서 올래를 지나 집으로 진입하는 대문의 역할을 한다. 문간은 ‘이문간’, ‘먼문간’으로도 불렸고, 올래에서 문간까지의 진입로는 ‘문간올래’라 한다. 문간은 마당으로 향하는 진입공간으로 볼 수 있다.

밖거리나 모커리와 결합한 문간은 ‘문간거리’라 불렸다. 밖거리와 결합한 문간거리에서는 내부에 좌우 혹은 일방향으로 정지나 구들이, 모커리와 결합하면 쇠막이나 혀간과 같은 공간이 구성된다. p.19의 상가리 1745의 경우는 문간이 밖거리, 모커리와 결합된 형태로서,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양건 문간(성읍민속마을, 2010)



©양건 문간거리(하천리 강씨가옥, 2022)



©양건 문간거리(화북일동 1817-1, 2022)

마당

제주 한옥의 마당은 배치 형태와 상관없이 안거리와 밖거리, 모커리가 좌우로 에워싸고 있는 넓고 개방된 공간이다. 각 건물과 안뒤, 우영 등과 같은 여러 외부공간 요소들의 연결성이 두드러진다. 마당은 정지, 모커리와 연결되어 가사 및 농·어업과 목축 등의 작업공간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채광과 통풍을 위한 공간이자 집안과 마을의 중요한 제례나 행사가 치러지기도 한다. 또한 안거리와 밖거리의 각 세대의 관계성을 연결하기도 혹은 완충하기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강한 바람의 영향을 피해 지대보다 낮게 배치되는 탓에 비바람이 들이치는 경우 마당이 빗물에 잠길 것을 대비하여, 마당의 가장자리에 ‘잇돌’ 혹은 올래로부터 이어지는 ‘팡돌’을 깔아 대비하는 제주민의 지혜도 엿보인다.



©양건

마당(잇돌) (화북일동 1817-1, 2022)



©양건

마당 (수원리 임씨가옥, 2022)



©양건

안뒤 (제주민속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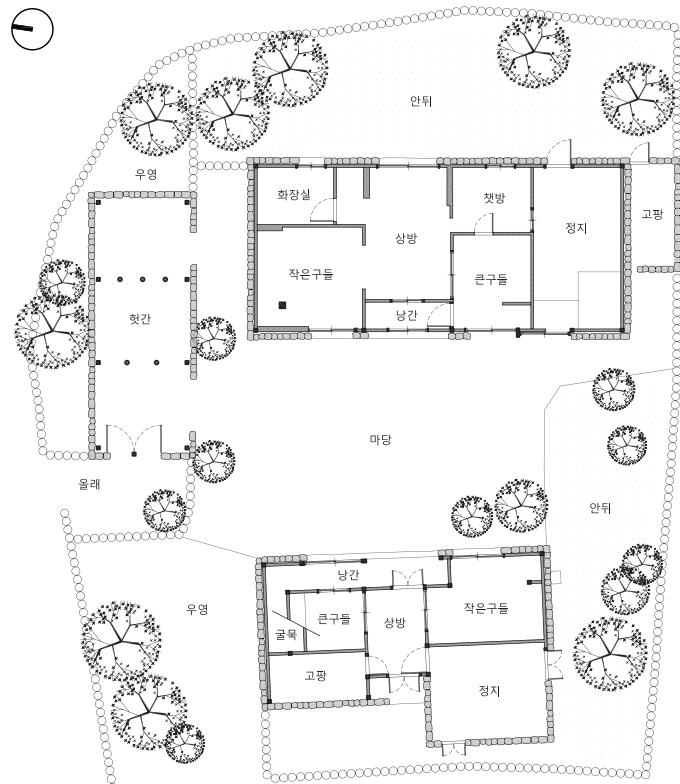


©양건

안뒤 (성읍민속마을, 2010)

안뒤(뒤)

안뒤 혹은 뒤는 안거리나 밖거리의 뒤편에 위치한 뒤틀의 일종이다. 하지만 정지나 상방의 뒷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돌담을 둘러쌓은 폐쇄적인 공간이다. 외부의 시선이 차단되므로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여 방풍림을 조성하기도 하고 작은 우영으로 사용하거나 물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제주의 무속신앙 중 하나인 <문전본풀이>의 ‘밧칠성’은 집안의 부를 가져다준다는 칠성신으로 안뒤에 놓는 칠성눌을 지키게 된다. 안뒤는 제주 한옥의 공간 구성 상 가장 안쪽의 깊숙하고도 내밀한 곳에 위치해 있는 공간적인 완결성을 가진다. 그리고 상방 혹은 정지를 두고 열려 있으면서도,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마당과는 달리 닫혀 있어 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모순적인 면모도 보여준다.



안뒤 (귀덕리 1666)

©박용준

출처: 건축사사무소 더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85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통시

통시는 화장실을 지칭한다. 위생공간인 뒷간과 돼지를 사육하는 둑통이 공존하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주거문화를 잘 드러낸다. 건물의 외부 공간 중에서도 정지로부터 가장 멀리 배치하여 마당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며, 뒷간 부분에는 두세 단 정도의 계단을 설치하고 낮은 담을 쌓아 시선을 차단시킨다. 돼지를 이용하여 배설물과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고 자연 퇴비인 ‘돗거름’을 만드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지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문전본풀이>의 측간신인 측도부인이 조왕 신인 본부인과 일곱 형제에 흉계를 꾸미다 들통이 나자 변소에서 목매어 죽었다는 무속신앙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시 (성읍민속마을, 2010)



통시 (제주민속촌, 2022)

우영(우영밭) / 우잣

우영은 울타리 내부에서 각종 채소와 나무를 심는 텃밭이다. 대개는 정지 뒤편이나 그 인근에 있지만, 사소하고도 비어있는 공간에 조성하므로 정지와의 거리가 항상 가까운 것은 아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한 넓게 조성하고 낮은 담이나 단을 형성해 가꾸게 된다. 이 중에서도 바닥에 자갈이나 흙을 채워 물항아리를 두는 ‘물항’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야외 저장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우잣’이라고 한다.



우영 (화북일동 1817, 2022)



우영, 우잣 (제주민속촌, 2022)

기타 : 눌(눌굽), 물막 / 쇠막, 물팡 / 물팡, 물항 / 장항 / 장항굽, 촘항

눌은 탈곡하기 전의 농작물을 단으로 묶어 쌓아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 혹은 지붕을 이을 새를 삿갓 모양으로 쌓아 놓은 것을 말하며, 눌을 쌓아둔 공간을 눌굽이라고 한다. 눌굽은 마당 한편에 지면으로부터 약 40-50 cm 높게 돌로 단을 올리고 평평하게 만들어 비바람으로부터 눌이 젓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물막은 마구간을, 쇠막은 외양간을 말한다. 그리고 물팡(下馬石)은 말 위에 오르기 위해 두었던 댁돌이며, 물팡은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했던 물허벽을 내려놓거나 선 채로 질 수 있게 만든 돌 받침대이다. 물항은 물항아리를, 장항은 장독을 뜻하며, 장항굽은 지면으로부터 한두 단의 돌을 평평하게 둔 장독대를 의미한다.

촘항은 물이 귀한 중산간이나 물통(우물)이 먼 지역에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엽수에 촘을 매고 그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슬방울이나 빗물을 모으기 위한 항아리이다. 빗물이 고여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아리 안에 개구리를 넣어 식수와 썩은 물을 구분했다고 한다.⁴⁾

⁴⁾ 제주민속촌 홈페이지. <https://jejufolk.com>



눌(눌곱) (제주민속촌, 2022)



물팡 (제주민속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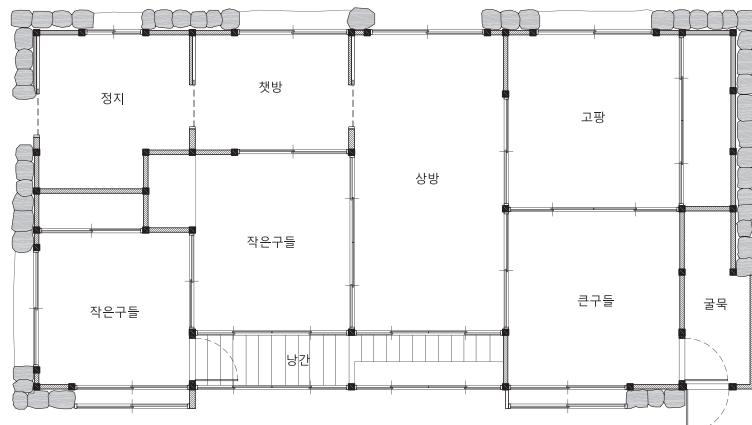
장항곱 (성읍민속마을, 2010)



첨항 (제주민속촌, 2022)

2) 내부공간

제주 한옥의 내부공간은 현대의 거실의 역할을 하는 상방을 중심으로 구들과 정지가 좌우로 배치되고, 칸의 수, 세대내 목적과 구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고팡과 챗방, 죽은구들 등이 추가로 더 구성된다. 상방은 제주 한옥의 중심공간으로 각 내부공간들을 연결하면서 전면의 마당과 후면의 안뒤라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계하는 구심점이다. 전면으로는 뒷마루에 해당하는 낭간이 자리 잡고 있어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공간이자 경계공간이 된다. 좌우 양 끝단의 측벽으로 불을 사용하는 정지와 굴목이 자리하고, 큰구들에는 고팡이, 정지에는 챗방이 연접하게 된다.



제주 한옥의 내부공간(건립동 1399-9)

©박용준

출처: 김상언(건축사사무소 담)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상방(上房)

상방은 안·밖거리의 중심에 자리한 마루공간이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달랐는데, 동부지역은 ‘상방’, 제주시 및 서부지역은 ‘삼방’, 대정지역은 ‘마리’라 불리기도 했다.⁵⁾ 구들과 정지, 고팡 등 내부공간을 연결하고 외부공간인 마당과 안뒤를 연결하는 중심공간이기 때문

5) 장창민. (2010).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p.36

에, 내부공간의 위상으로는 최고의 위계를 가진다. 상방은 식사, 접대, 작업공간으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와 제례의식이 치러지는 공간이다. 전면의 마당으로 연결되는 낭간에는 상방대문을, 후면의 안뒤로는 상방뒷문을 설치했다. 제주 무속신앙의 가옥신 중에서 최상의 위계에 있는 문전신이 상방대문을 관장하여,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조상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방 (제주민속촌, 2022)



상방 (제주민속촌, 2022)

상방대문 인근에 ‘호령창’이라 불리는 작은 창문을 설치해, 채광과 통풍, 방문객 확인용으로 사용했다. 상방을 중심으로 사면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구들, 정지 등과 같은 내부공간의 창호와 대문과 뒷문, 호령창을 통한 자연환기와 통풍이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간의 확장이 유동적이고 간결한 동선이 가능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상방에 난방을 위한 ‘봉덕(봉덥)화로’라 불리는 불박이 돌화로를 설치하고, 그 위로 ‘피고리’라는 도구를 설치해 보리나 사냥해 온 동물의 가죽을 건조하기도 했다.

구들 / 굴목

구들은 바닥 난방이 가능한 온돌 설비가 구비된 방을 말한다. 구들의 개수에 따라 ‘큰구들’ 혹은 ‘작은구들’로 칭한다. 이것은 구들의 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간의 위계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부부가, 후자는 자녀들이 사용한다.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제례나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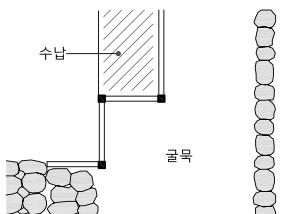
구들에서 이루어진다. 구들의 대부분은 상방의 좌우에 위치하는데, 두 칸집과 일부 세칸집의 경우 큰구들만 있기도 하며, 보통의 세칸집과 네 칸집에는 큰구들과 죽은구들이 자리하게 된다. 난방을 하기 위해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는 ‘굴뚝’을 구들의 한쪽 벽체 하부에 설치하고, 그 위로는 벽장을 만들어 각종 생필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구들 (제주민속촌, 2022)



굴뚝 (제주민속촌, 2022)



굴뚝과 구들의 수납

출처: 장창민. (2010).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p.41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박용준

굴뚝은 난방을 위해 구들과 연결한 작은 구멍을 의미하는데, 구들의 한쪽 벽체와 건물의 외벽 사이 자그마한 하부공간에 설치되었다. 마당에서 진입할 때는 ㄱ이나 ㄴ자로 꺾어서 들어가거나, 폭이 매우 좁고 높이가 낮아 몸을 구부려야만 했다. 이는 강한 바람으로부터 불씨를 보호하기 위해 입구가 아궁이와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⁶⁾ 육지부와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난방과 취사가 굴뚝과 정지라는 개별 공간에서 별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제주 지역에는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땔감은 취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난방의 용도로는 말린 소똥이나 말똥을 사용했다.

⁶ 양상호. (2015). 제주건축역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p.100

정지 / 챗방

정지는 난방과 취사가 분리된 제주에서 취사를 담당하는 부엌이다. 정지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고, 두칸집의 경우 면적의 1/2, 세칸집에서는 1/3, 네칸집에서는 1/4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⁷⁾ 내부공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육지부의 부엌이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지는 그보다도 크다. 그 이유는 정지가 단순히 취사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내작업 공간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정지의 내부공간은 바닥의 레벨 차이를 두어, 취사를 위한 부엌공간과 작업을 위한 봉당공간으로 구분되었다.⁸⁾

3-5개 정도의 솔을 크기에 따라 배열해 취사에 사용했으며, 측벽에는 통풍과 배연을 위해 작은 창을 두었다. 한편에는 화덕과 재를 모으는 불치통을 두었다. 나머지 공간은 땔감을 모아두는 것을 제외하고 비워두었으며 지역에 따라 부섭이라는 화로시설을 설치했다. 세칸집의 일부와 네칸집의 경우, 모커리에 정지가 별동으로 설치되기도 했다.

챗방은 정지와 바로 연결되어 식사 혹은 배선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챗방은 세칸집에서 정지가 분화하여 생겨났으며, 네칸집에서는 그 크기가 한 칸 정도로 확장된다.



정지 (제주민속촌, 2022) ©양건



정지 (제주민속촌, 2022) ©양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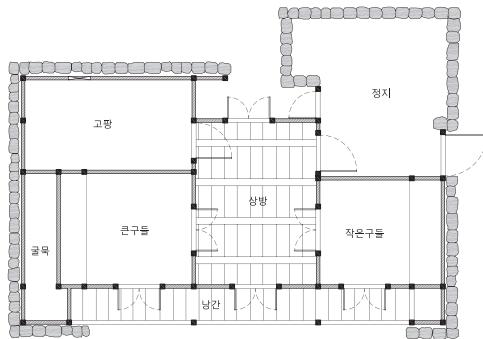
정지와 챗방
(제주민속촌, 2022) ©양건

7) 장창민. (2010).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p.39

8) (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2015).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38

고팡(庫房)

고팡은 큰구들의 뒤편에 연접하여 곡식이나 씨앗을 보관하는 곳으로, 지역에 따라 ‘안팡’으로 부르기도 했다. 보통은 바닥에 마루를 깔고 항아리나 기타 채반에 식량을 저장하게 된다.



고팡 (김녕리 1250)

©박용준



©양건

출처: 김상언(건축사사무소 담)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고팡은 반드시 큰구들 뒤편에 자리했는데, 큰구들이 갖는 공간적인 위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만큼 과거 주생활에 식량저장 기능이 중요했음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무속신앙인 <칠성본풀이>에서 비롯된 집안의 재물을 담당하는 ‘안칠성’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팡과 큰구들 사이에 있는 기둥을 ‘생기기둥’ 혹은 ‘상기둥’이라 하여, 가장이 이곳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낭간 / 풍채(風遮)

‘낭’은 나무를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낭간은 낭이 깔려있는 공간이란 의미를 지닌다.⁹⁾ 낭간은 육지부의 뒷마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마당과 상방, 마당과 구들을 연결해内外부공간의 중간영역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9 양상호. (2015). 제주건축역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p.99

낭간과 유사한 공간으로 ‘뭇등’이 있다. 뜻등이라고 할 때는 흙바닥을 의미하고, 마룻바닥일 경우에만 낭간이라 한다. 뜻등은 정확하게는 내외부 출입을 위해 문 앞의 신발을 신고 벗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비바람이 잣은 제주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없으면 벽체가 훼손되거나 건물의 외부에서 횡적으로 이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다.¹⁰⁾

낭간의 위 처마에는 ‘풍채’라고 하는 차양을 설치하고 목재로 고정했는데, 평상시에는 풍채를 위로 들여 올려 태양의 고도에 따른 일조량을 조절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는 풍채를 내려 건물을 보호했다.



낭간 (제주민속촌, 2022)



풍채 (제주민속촌, 2022)

10 송성대. (1993). 제주도의 풍토주가: 초옥민가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연구, 10, pp.137-138

제주 한옥의 용어 정리 요약

외부공간

출처: (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2015).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p.22-23

명칭	내용
올래	골목길에서 개인주거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정낭	주거의 출입부에 설치한 가로 목재
정주목	정낭을 걸어두는 지주
문간 (이문간, 먼문간)	주택의 울타리 경계에 위치한 대문시설 또는 그 공간
문간거리(이문거리)	문간, 이문간이 설치된 건물(棟)
안거리	주동(柱棟) 혹은 안채
밖거리	주동에 상대되는 동 혹은 바깥채
모커리	안·밖거리와는 구별되는 부속동
정지거리	정지를 별도로 설치한 건물(棟). 이 경우 안·밖거리에 정지가 없는 게 일반적임.
외커리(외거리)집 두커리(두거리)집 세커리(세거리)집 네커리(네거리)집	울타리 내의 건물 동수(棟數)에 따라 부르는 명칭
막살이집	전면에서 보아 2칸으로 이루어진 집. 대부분 정지와 구들의 2칸 구성
세칸집	전면에서 보아 3칸으로 이루어진 집. 중앙에 마루인 상방, 좌우에 정지와 구들의 3칸 구성
네칸집	전면에서 보아 4칸으로 이루어진 집. 세칸집에서 구들칸 1칸이 더해진 4칸 구성
마당	안거리, 밖거리 또는 모커리 등 각 건물과 부속시설들에 의해 정갈하게 둘러싸인 개방적인 공간
우영(밭)	울타리 안팎의 채소밭(텃밭)
우잣	울타리 안의 빙터에 흙바닥보다 약간 높게 돌을 쌓고 자갈을 깔아 건조한 바닥을 만들어, 그 위에 놀굴이나 장항굽을 설치하거나 농기구를 쌓아두는 시설 흙을 채워 우영을 만들기도 함
안뒤, 뒤	안거리 또는 밖거리의 후면에 위치한 외부공간, 뒤틀에 해당하는 공간
통시/ 듯통시	변소, 뒷간 / 돼지우리
눌(눌굽)	새, 보릿대, 꼴, 날가리 등을 쌓아둔 단. 그 장소 또는 받침대를 놀굽(눌왓)이라 부름
물막/ 쇠막	마구간 / 외양간
물팡/ 물팡	말에 오르내리기 위한 디딤돌 / 물허벅을 내려놓기 위한 시설
물항/ 장항	물항아리 / 장독 / 장독대
촘항	물이 귀한 산촌이나 물통이 먼 지역에서 식수를 모으던 항아리. 활엽수의 수목에 촘을 매고 그 밑에 항아리를 두어 흘러내리는 이슬방울이나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

내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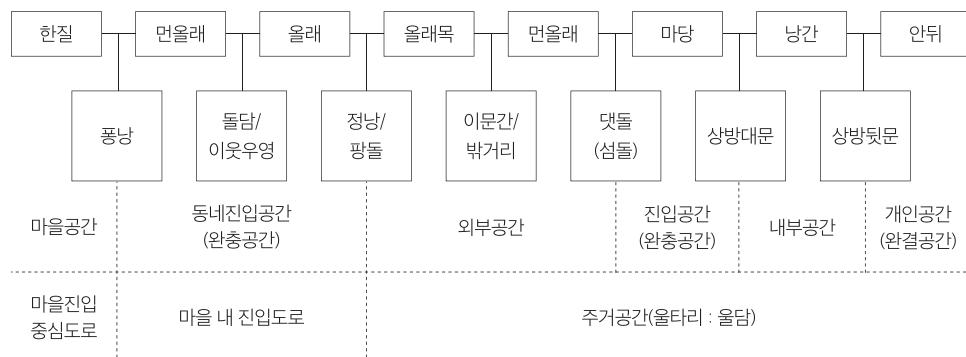
출처: 제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2015). 초기·와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p.22-23

명칭	내용
상방(上房)	주거 중앙에 위치한 마루방, '마리', '삼방' 등의 별칭이 있음
큰구들/죽은구들	큰방/작은방. 면적의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치에 따른 구분임
정지	부엌, 난방기능과 취사기능이 구분되어 있음
챗방	찬방(饌房)에 해당. 간이식사 또는 배선(配膳)을 위한 공간으로 정지와 연결되어 위치함
고팡	고방(庫房), 곡식, 씨앗 등을 보관하는 폐쇄적인 공간, 항상 큰구들 뒤편에 위치함
낭간(못등)	건물 전면의 뒷마루에 해당하는 마루공간
생기기둥(상기기둥)	상방에서 큰구들과 고팡 사이에 위치한 기둥. 상징적 의미가 강함
상방대문	마당에서 낭간을 거쳐 상방으로 출입하는 문. 무속신앙적으로 상징성이 강한 문
제창문 (호령창, 생기문)	상방대문 옆에 설치한 창문
봉덟화로(봉덕화로)	상방의 바닥에 설치한 불박이 돌화로
솔덕(화덕)	정지에서 취사용 솔들을 걸기 위해 판돌로 만든 아궁이시설
불치통	솔덕(화덕)에서 나온 재를 모아두기 위한 공간. 솔덕(화덕)의 뒤
굴묵	구들에 난방을 하기 위해 불을 때는 공간 혹은 아궁이
부섭	취사, 조명, 채난 등을 위해 정지바닥에 설치한 화로시설
풍채(風遮)	안·밖거리의 낭간 앞에 설치하여 바람 또는 햇볕을 막기 위한 차양

2. 제주 한옥의 배치

1) 마을과 단위주거와의 연계

마을에서부터 진입하는 개방적이고도 공적인 공간부터 가장 내밀한 곳에 위치한 폐쇄적이면서 사적인 공간까지, 제주 한옥의 외부공간은 각자의 목적과 기능, 성격에 맞게 배치되면서도 일정한 질서와 흐름을 가지고 있다. 마을에서 세대까지의 경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큰 길을 의미하는 ‘한질’은 마을에서 세대 내로 진입하는 ‘올래’의 초입까지 이어지는 외부도로이며, ‘면올래’ – ‘올래’ – ‘올래목’ – ‘면올래’까지 이르는 세대 내 내부도로는 그 위계와 크기가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을에서 주거공간까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각각 ‘퐁낭’과 ‘돌담’/‘이웃우영’, ‘정낭’과 ‘이문간’, ‘댓돌’이라는 경계요소가 각 공간을 구분 짓는다.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며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는 마당을 지나 내부공간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낭간’을 통과하게 되면, ‘상방’과 ‘안뒤’까지 공적공간에서 사적공간까지의 흐름은 일종의 서사적 경로를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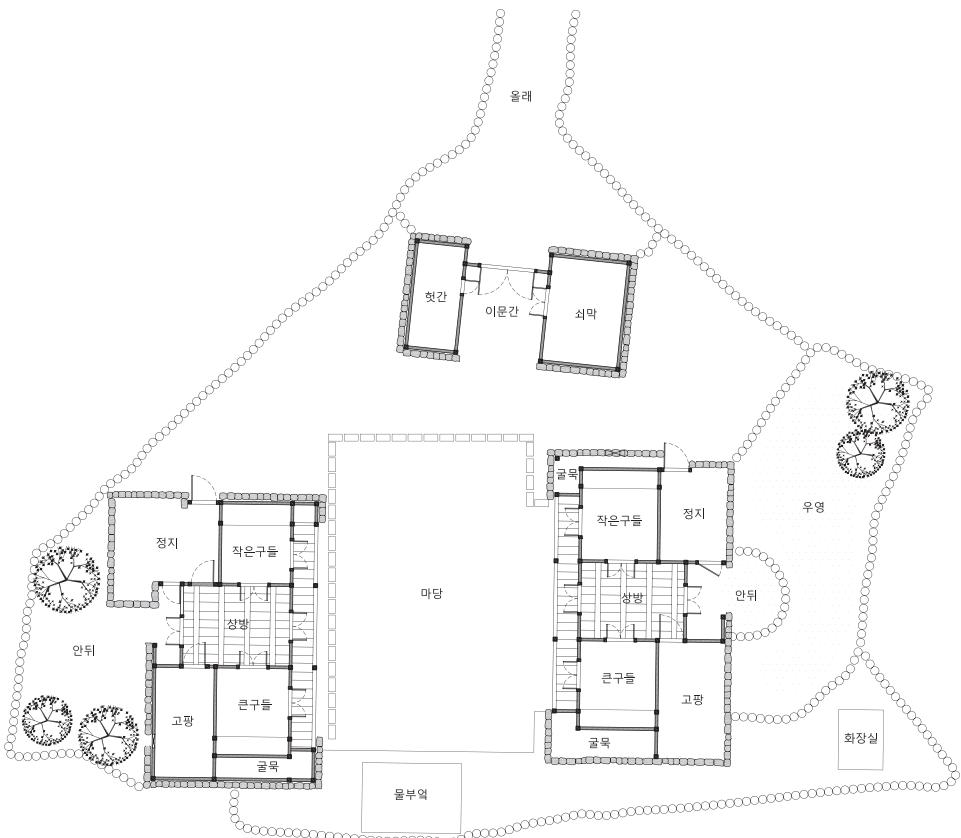
마을 안 공간 구성과 세대 내 진입과정

출처: 양상호. (2015). 제주건축역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p.93

2) 단위주거의 배치 특징

제주 한옥의 배치 및 공간 구성은 두 개 혹은 서너 개의 건물동이 마당을 중심으로 별동 배치 및 대칭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각종 외부공간이 각각의 성격에 맞게 돌담 내부에 자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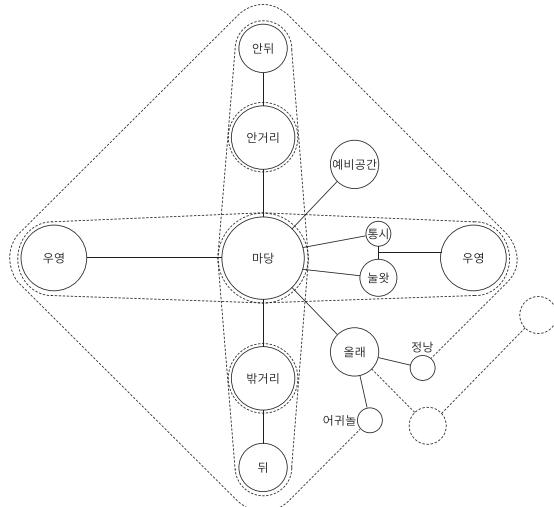
건물의 좌향은 일반적인 배산임수와 남향의 배치를 따르지 않고, 기후 조건에 따라 한라산을 경계로 산북지방과 산남지방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산북지방은 산남지방보다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동향과 서향배치가 대다수임에 비해, 산남지방은 남향배치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녕리 1250

©박용준

출처: 건축사사무소 더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87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안·밖거리 주거의 외부공간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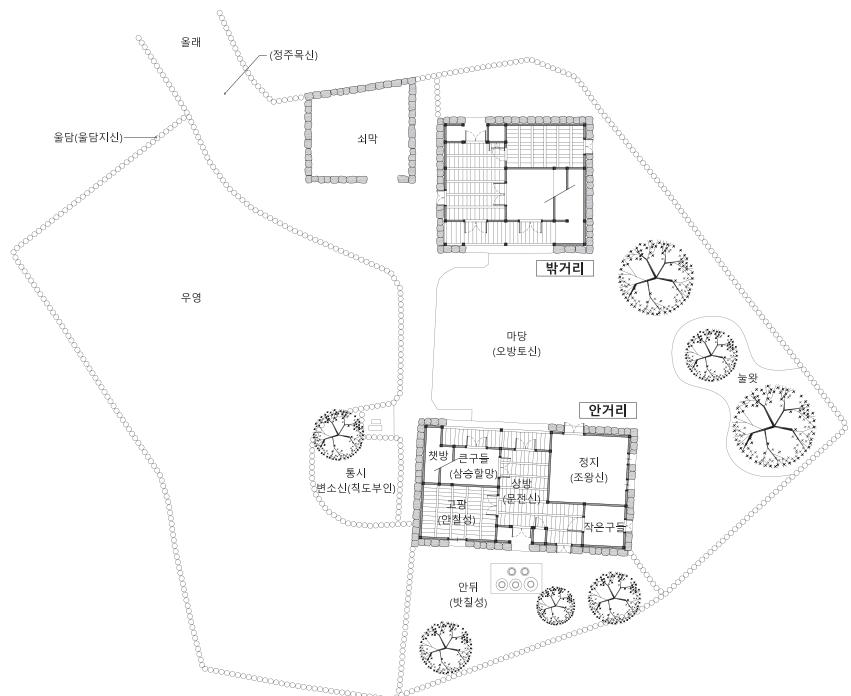
출처: 강행생. (1985).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월간 건축문화사, (52), p.37

세대별로는 안거리와 밖거리, 모커리라는 개별동에 거주하되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했다. ‘안거리’는 부모세대가, ‘밖거리’는 자식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모커리’는 혀간 혹은 쇠막 등 부속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세대별로 달리 생활하게 되는 안거리와 밖거리는 그 거주기간이 영구적이지 않고, 자식세대가 독립하게 되면 부모세대와 동을 바꾸어 안거리에 거주하고 부모세대가 밖거리에 거주하게 된다.

또한 제주 한옥의 공간 구조는 제주의 고유한 신화와 의례 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인의 삶과 문화, 신앙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결과이다. 이 중에서도 민간신앙으로 전해지는 <문전본풀이>는 제주의 가족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화 속 인물은 모두 제주 한옥의 공간과 일대일로 대응하여, 각 공간과 위치마다 고유의 가옥신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¹¹⁾ 입구의 ‘정주목신’ 혹은 ‘주목지신(柱木地神)’은 일종의 문신으로, 정낭과 정주목의 신이다. 마당의 ‘오방토신(五方土神)’은 집터를 각 방위별로 지켜주는 신이다. 가옥의 상방에는 앞쪽 문과 뒤쪽 문을 차지한 문신이 있는데, 이중에 앞쪽 문을 차지한 ‘문전신(門前神)’

11 김형준. (2007).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3), p.181

이 중요시되어 조상을 모시는 조상제 때에도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정지를 지키는 ‘조왕신’은 문전신의 어머니로서, 집안에서 궂을 할 때 모실 뿐만 아니라 ‘조왕제’라는 의례도 이루어지며 조상제에도 고사를 지낸다. 고팡을 모시는 칠성신인 ‘안칠성’은 곡물을 수호하며, 안뒤를 지키는 ‘밧칠성’은 집을 지키고 집안의 부를 가져다주는 신이다. 통시를 지키는 ‘측간신(廁間神)’은 측도부인 또는 칙시부인으로, <문전본풀이>에서 본부인과 일곱 형제를 죽이려다가 들통이 나서 변소에서 목매어 죽어 변소신이 되었다. 제주에서는 상방의 문인 ‘대문’과 ‘문전신’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문전신이 좌정한 상방은 제주 한옥의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상방은 의례의 의미적 위상과 동시에, 그 위치도 가옥과 마당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공간적 위상도 가지고 있다.¹²⁾



©박용준

하가리 문형행 가옥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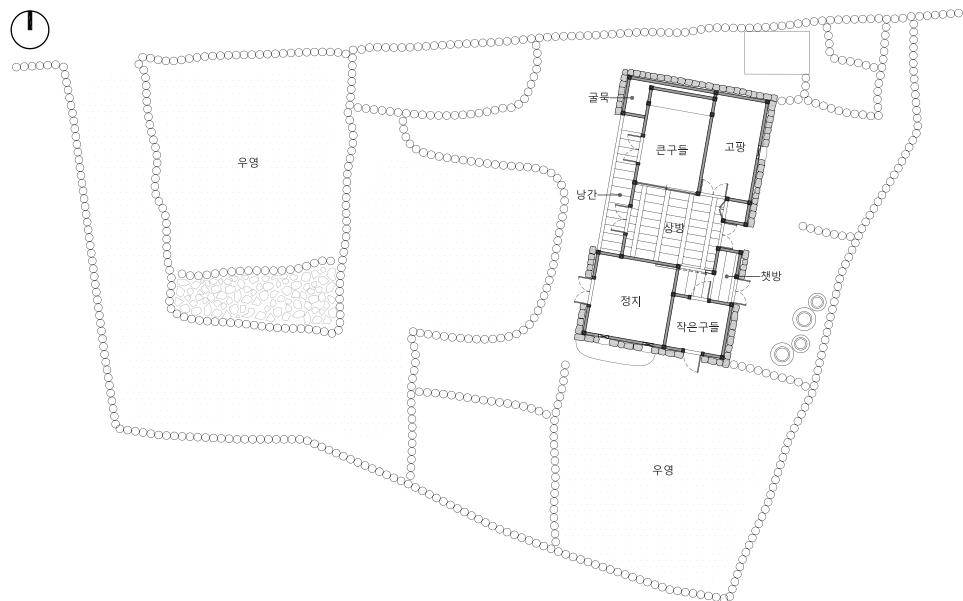
출처: 김형준. (2007).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3), p.183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12 김형준. (2007).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3), p.182

3) 제주 한옥의 배치 형식 건물 동수에 따라서는 외커리(외거리)집, 두커리(두거리)집, 세커리(세거리)집, 네커리(네거리)집으로 구분된다. 별동 배치 형식은 안채인 안거리와 바깥채인 밖거리가 서로 마주보는 二자형 배치가 기본형으로, 지형과 풍향, 일조량, 방위 등 자연환경과 민간신앙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고 그 변형으로 ㄱ자형 배치, ㄷ자형 배치, 口자형 배치가 있다. 한편 一자형 배치는 주동이 안거리 한 채로만 구성된 것이다.

외커리(외거리)집

외커리집은 一자형의 안거리 한 채로만 구성된 것이다. 평면유형으로는 두칸막살이집, 세칸집, 네칸집이 있다.



내도동 488

출처: 김상언(건축사사무소 담)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박용준



두칸막살이집 (제주민속촌, 2022)

©양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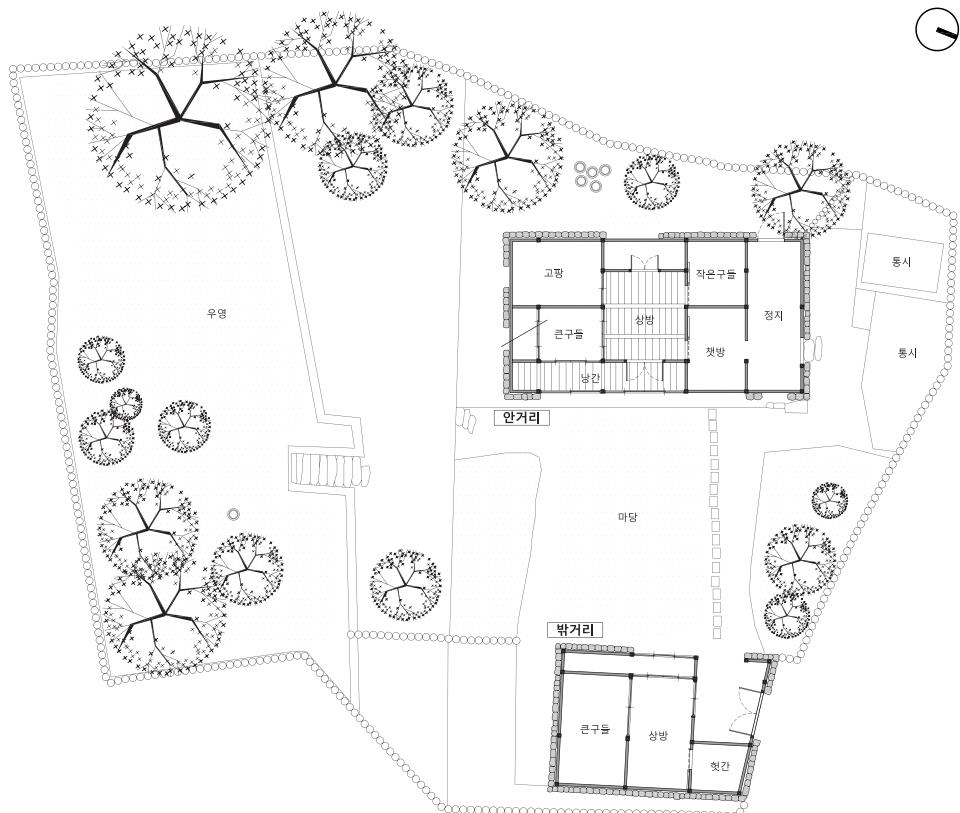
두커리(두거리)집

두커리집은 두칸집, 세칸집, 네칸집의 안거리와 밖거리 두 채로 구성된 것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이나 ㄷ자형으로 배치된 집이다. 전자는 ‘마주 앉은 두커리집’, 후자는 ‘모로 앉은 두커리집’으로 부른다. 마주 앉은 두커리집은 안거리와 밖거리가 마당을 중심으로 ㄷ자형의 병렬로 배치된 집이다. 모로 앉은 두커리집은 안거리와 밖거리가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으로 배치된 집인데, 밖거리의 좌향은 일조량이나 지형조건을 고려해 결정되며, 대문은 안거리 혹은 밖거리의 측면에서 진입하게 되는 구조를 지닌다.



마주 앉은 두커리집 (상도리 594)

©양건



마주 앉은 두커리집 (삼도이동 1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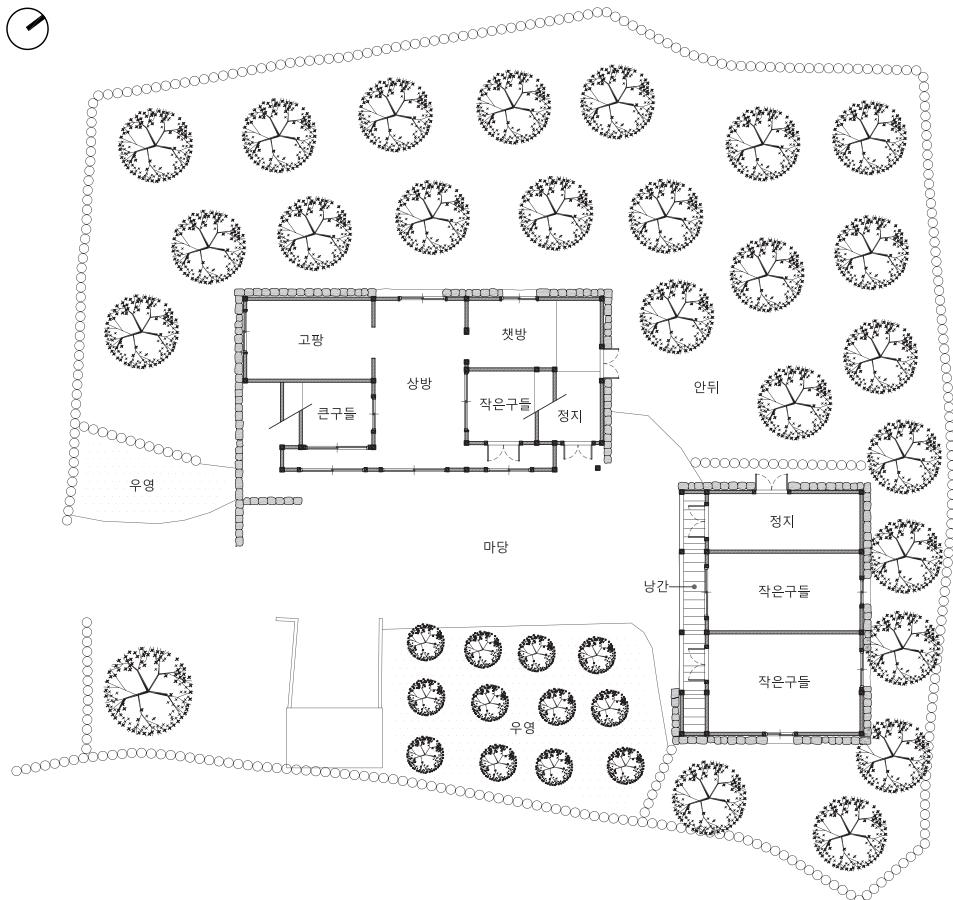
©박용준

출처: 건축사사무소 더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92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두커리집 (하도리 3291-1)

©양건



모로 앉은 두거리집 (월평동 354-2)

©박용준

출처: 건축사사무소 더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93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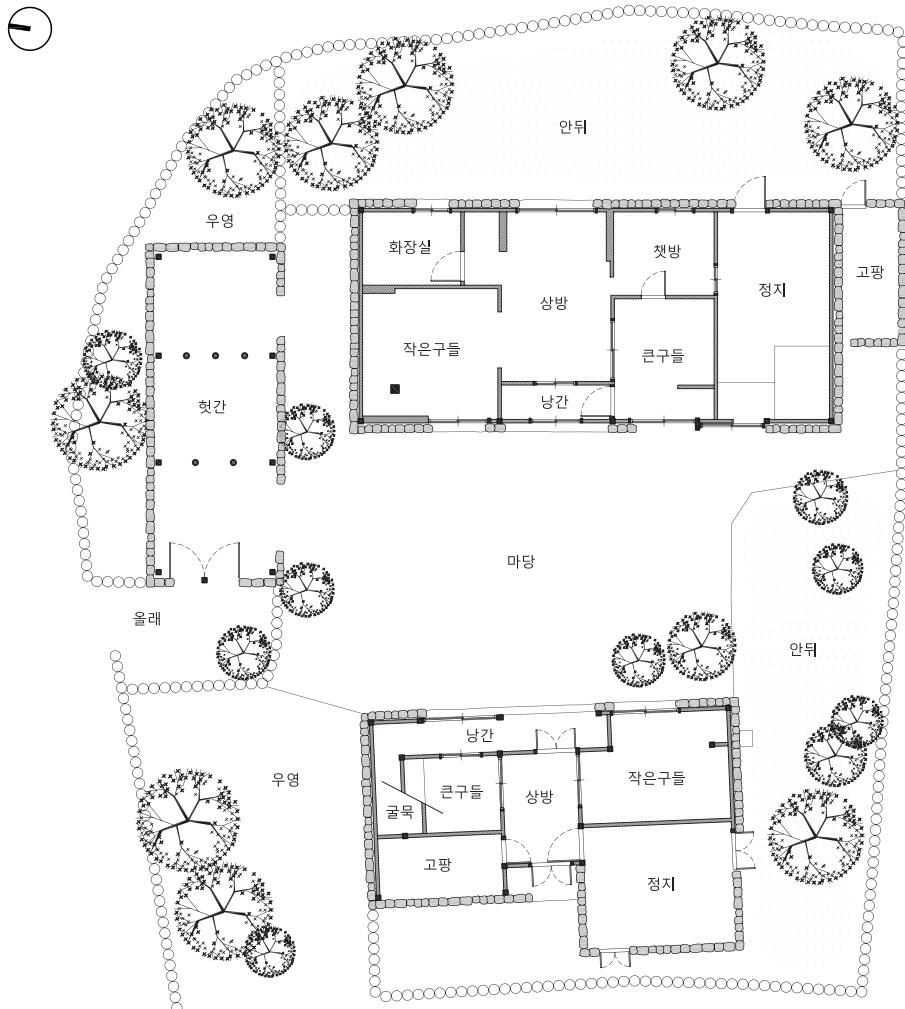


월평동 354-2

©양건

세거리(세거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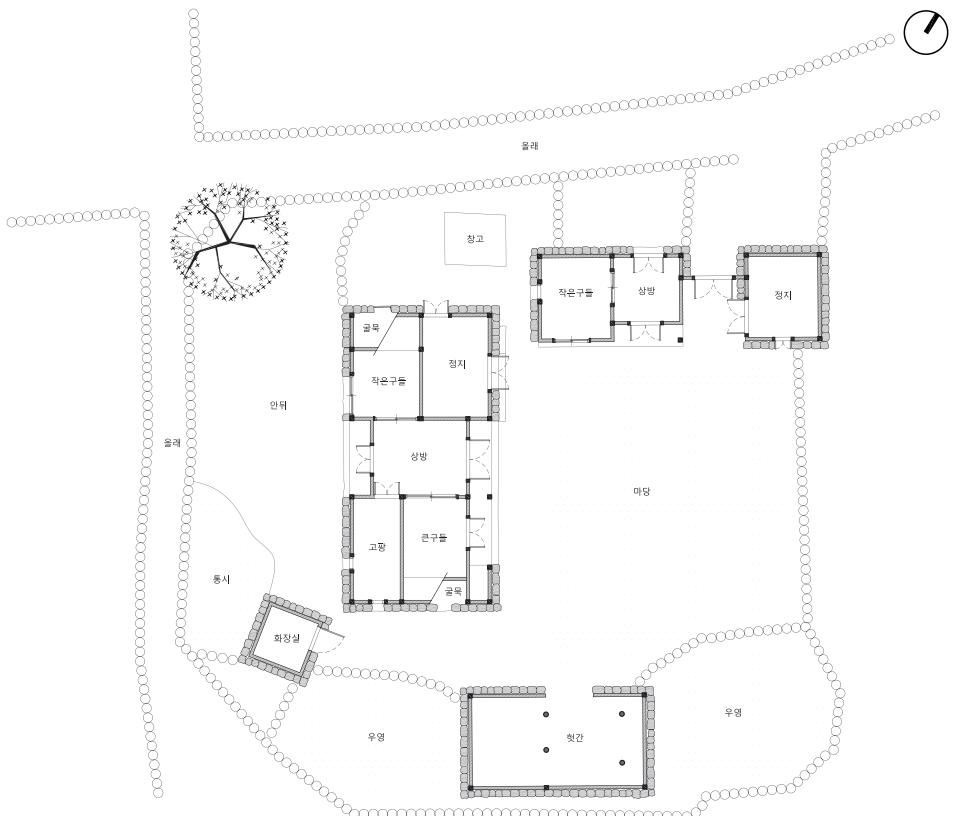
세거리집은 안거리와 밖거리 외에 모거리(모거리)가 추가된 집이다. 모커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몰막’이나 ‘쇠막’ 혹은 독립된 ‘정지거리’가 되기도 하고, 공간을 분리해 일부공간에 사람이 거주하기도 하며, 모커리가 ‘이문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마주 앉은 세거리집 (귀덕리 1666)

©박용준

출처: 건축사사무소 더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85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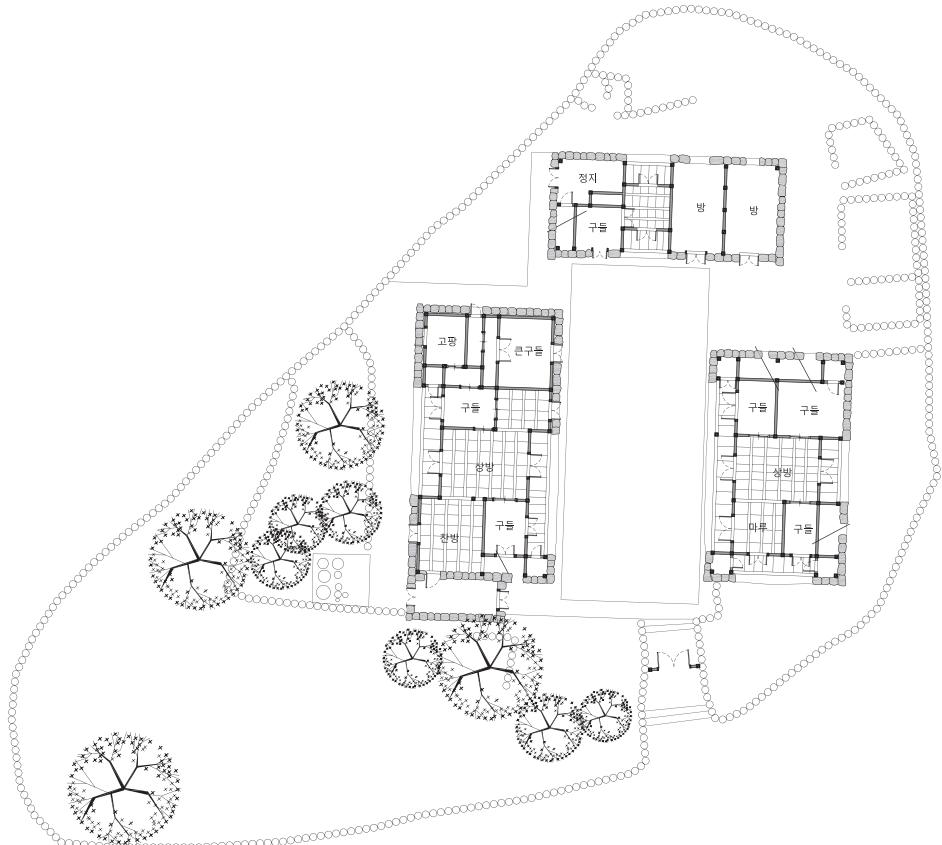


모로 앉은 세거리집 (조천리 김씨가옥)

©박용준

출처: 건축사사무소 더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82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세거리집은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보편화된 주거형태이다. 두 세대가 개별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살림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겪게 되는 공간의 부족을 모커리를 추가해 해결해낸 과정의 산물이다. 전술한 두거리집의 배치형태에서 비어있는 외부공간에 모커리를 배치하게 된다. ‘마주 앉은 세거리집’은 ‘마주 앉은 두거리집’과 안·밖거리의 배치는 동일하지만, 몰막이나 쇠막 혹은 헛간을 모커리로 독립시킨 경우이다. 때로는 이문간의 공간을 구분해 사용하기도 했다. ‘모로 앉은 세거리집’ 역시 모로 앉은 두거리집과 안·밖거리의 배치는 동일하되 부속 공간을 모커리로 독립시켜 사용한 배치형태이다.



세거리집 (조천리 황씨종손 가옥)

©박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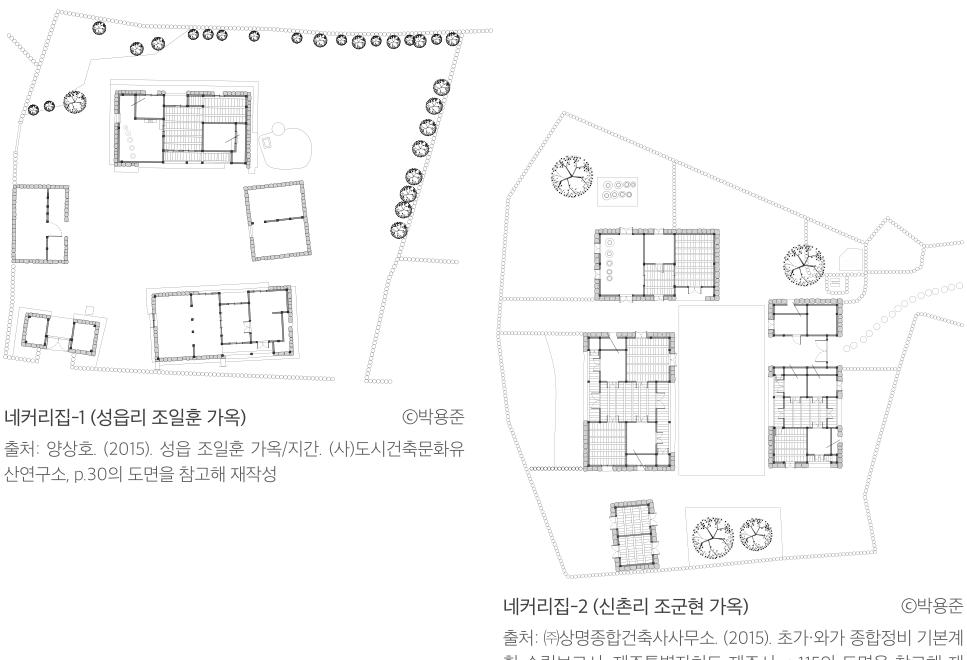
출처: (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2015).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84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제주 동부의 일부지역에서는 모커리가 이 지역만의 독특한 별동형의 정지거리로 쓰이기도 한다. 그 요인은 자연환경, 문화, 생활방식에 의한 차이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동부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토양이 척박해 여러 종류의 농사와 가축의 사육을 병행하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작업공간이 요구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면화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솜이 귀하여 따뜻한 정지가 주생활공간이 되었는데, 정지가 안·밖거리에 자리 잡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지거리가 분동되는 것을 선호했다. 한편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는 제주도로 유배된 선비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들의 유배지가 다수 분

포한 곳이 서부지역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공간의 위계가 성별에 의해 두드러지게 된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서는 남·녀의 구분 없이 공동의 취사와 작업·휴식이 가능한 별동형의 정지거리를 선호하게 되었다.¹³⁾

네커리(네거리)집

네커리집은 안·밖거리가 마주 앉은 그자형으로 배치된 양쪽으로, 모커리와 정지거리 혹은 이문거리가 모자형 혹은 모로 앉은 ㄷ자형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안거리와 밖거리가 보통 네칸집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농 이상의 토호 혹은 종가의 고택에서나 볼 수 있는데, 제주 북부지역과 현청 소재지였던 정의현과 대정현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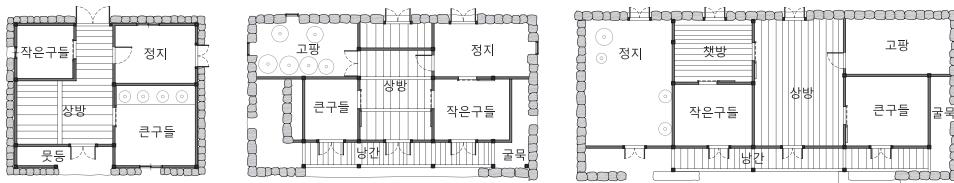


13 송병언, 이희봉. (1998). 생활문화로 본 제주도 민가 고찰: 정지거리 유·무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18(2), pp.614-618

3. 제주 한옥의 평면

1) 평면의 특징

건물의 평면은 그 구성에 따라서 ‘두칸막살이집’, ‘세칸집’, ‘네칸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개 안거리는 두칸집에서 칸이 추가되어 세칸집, 네칸집으로 확장되면서, 상방을 중심으로 내부공간의 구성이 풍부해지게 된다. 밖거리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필요와 기능에 따라 내부공간의 구성과 안거리와의 연결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제주 한옥의 평면 유형 (좌 : 두칸막살이집, 중 : 세칸집, 우 : 네칸집)

©박용준

출처: (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2015).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33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2) 평면의 형식

두칸막살이집

두칸막살이집은 직사각형 두 칸의 우진각 초가집으로, 종종 상방이 부재한 가운데 평면이 이등분으로 양분되어 각각 정지와 구들, 고팡 혹은 상방과 정지, 구들로 내부공간이 단출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구들의 한쪽 벽체 아래에 굴목이 설치된다. 전면으로 낭간(웃등/퇴)이 상방 혹은 구들 앞에 있어内外부공간의 경계를 형성하는데, 마루를 놓지 않는 한 흙바닥으로 외부에 개방된 형태이다. 두칸막살이집은 보통 임시주거이거나 노인세대, 빈농의 주민들이 살게 되며 해안가나 중산간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했다.



두칸막살이집 (제주민속촌, 2022)



두칸집 (하가리 문형행 가옥)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ccbaCpno=244390003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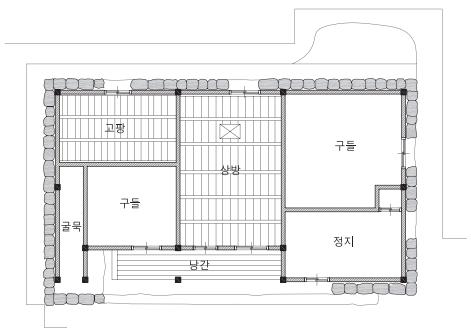
세칸집

세칸집은 제주도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평면 구성의 형태이다. 두칸집에서 상방이 분화되어 구들, 상방, 정지 세 칸의 기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의 크기와 분화 여부에 따라 죽은구들의 유무가 좌우되며, 구들의 위치와 종류, 정지의 평면형태에 따라 ‘한칸형’, ‘중마루형’, 정지(부엌)내형‘으로 분류된다.¹⁴⁾



세칸집 (신례리 양금석 가옥)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ccbaCpno=2443900034500)



세칸집 (신례리 양금석 가옥)

©박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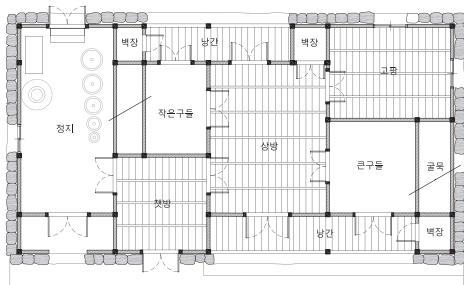
출처: 한현주, 임상훈. (2020). 제주 전통주택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건축 특성 분석: 양금석 가옥을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4), p.35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¹⁴⁾ 김영식. (1996).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p.39

남원읍 신례리 양금석 가옥(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3-45호)은 구들과 상방, 정지로 구성된 세칸집의 전형을 보여준다. 상방을 중심으로 고팡, 구들과 정지, 낭간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 정지의 크기가 줄어든 대신 죽은구들이 있다. 죽은구들 뒤로 안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정지가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네칸집

네칸집은 상방을 중심으로 앞뒤로 연접한 큰구들과 고팡, 챗방과 죽은구들, 그리고 정지가 나란히 배열된 네 칸 우진각 초가집이다. 상방과 큰구들 앞으로 퇴의 역할을 하는 낭간이 있어内外부공간과 건물의 좌우축을 연결하는 중간영역의 완충지대를 형성한다. 네칸집은 세대 내 가족구성원이 확대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계층이 살던 세거리집과 네거리집의 안거리에서 주로 발견된다.



네칸집 (화복동 김석윤 가옥)

출처: ㈔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2015).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58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네칸집 (화복동 김석윤 가옥)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ccbaCpno=244390004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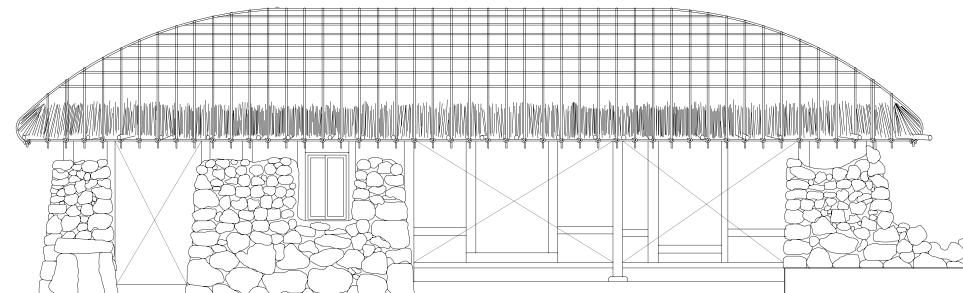
4. 제주 한옥의 입면과 구조

1) 입면의 특징

제주 한옥의 특징을 가장 잘 말해주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지붕과 벽체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은 입면을 결정짓는 동시에, 사람들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붕의 형태는 마을 단위로 경관을 형성하여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풍경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지붕과 함께 입면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벽체이다. 제주도에서는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공극의 현무암과 흙으로 벽체를 구성함으로써, 지붕과 함께 제주만의 풍경을 만들어 왔다.

지붕

제주 한옥의 지붕은 제주민이 풍다(風多)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연중 바람 부는 날의 빈도뿐만 아니라 강풍의 빈도도 높은 지역이다. 한중일 북태평양 해상의 중심에 위치해 기압의 변화가 심하지만, 이를 막아줄 다른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풍속이 2.4m/s 인데 비해, 제주는 3.8m/s , 서귀포 3.1m/s , 성산포 3.1m/s , 고산 6.9m/s 로 제주도 내에서는 남부보단 북부, 동부보다는 서부의 풍속이 더욱 강하다. 또한 겨울은 북서풍이, 봄가을에는 화남지방의



하가리 문귀인가옥 안거리 정면도

©김태완

출처: [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2015).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216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기압골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게다가 여름에는 동풍의 빈도가 높은데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경우, 대개 태풍의 경로에 제주도가 자리 잡아 바람의 피해가 육지부보다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바람은 제주 한옥의 구조와 공간 구성, 입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붕의 물매는 빗물의 흐름과 풍압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 연평균 강수량을 살펴보면 서울 1417.9mm, 강릉 1444.9mm, 대전 1351.2mm, 부산 1576.7mm인데 비해, 제주는 1502.3mm, 서귀포 1989.6 mm 성산 2030.0mm, 고산 1182.9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인다.¹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물매는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이는 데, 육지부의 다른 지역이 40° 내외의 지붕물매라면, 제주는 외형적으로는 30° 안팎(구조적으로는 20° 정도)의 물매를 나타낸다. 많은 강수량에 대비해 질긴 재료인 지붕 이엉을 단단하게 묶음으로써 재료 사이를 밀착시켜 빗물이 지붕 속으로 스며드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¹⁶⁾ 또한 격자 모양으로 조밀하게 누름줄을 설치했고, 그 줄의 굵기는 바람이 약한 동부지역(약 3cm)보다 서부지역(약 4cm)에서 굵게 했다. 과거에는 ‘새(띠)’로 줄을 땋아 누름줄로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내구성이 강한 고무 밧줄을 사용하는 경우(월평동 354-2의 사진)가 많다. 지붕에 용마름을 하지 않은 것도 강한 바람에 의해 지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처마 높이도 2m 이하로 낮게 하고 처마길이도 짧게 해 바람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¹⁷⁾ 그렇기 때문에 낭간 위 처마 아래로 풍채를 달아, 짧은 처마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15) 기상청. 한국의 지역별 기후특성. <https://www.kma.go.kr/w/obs-climate/climate/korea-climate/regional-char.do?area=9>

16) 양상호. (2015). 제주건축역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p.100

17) 장창민. (2010).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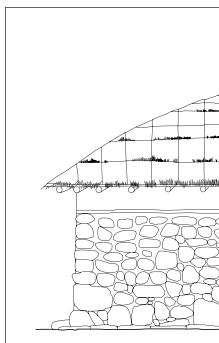
지봉 (제주민속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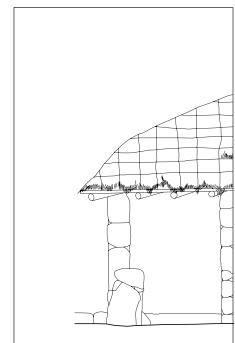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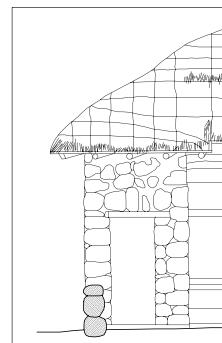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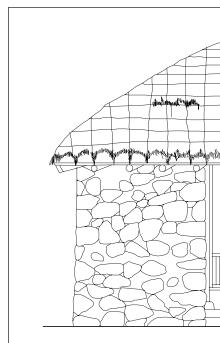
지봉 (월평동 354-2, 2017)

벽체

제주 한옥의 벽체는 화산섬이라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현무암을 주재료로 사용했고, 사이사이 비어있는 공간은 흙으로 채워 넣어 비바람을 차단하고자 했다. 벽체의 하단에는 ‘잇돌’이라 부르는 기단을 축조했는데, 이는 현무암을 높이는 15cm 내외, 폭은 처마 선단까지 같은 폭 90cm로 쌓은 것이다. 제주 한옥의 기단은 다른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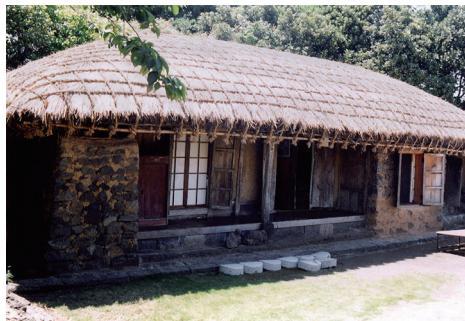
축담



©김태완

출처: 장창민. (2010).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p.47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외벽 일부 및 내부 벽체의 하부는 판장벽이며 상부는 흙마감이다. 벽체 구조 방식은 기둥이 밖으로 노출되도록 했고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이중벽 구조로, 다공질의 현무암을 쌓아 올리고 내벽은 목판 혹은 토벽으로 마무리했다. 흙벽이 비바람에 젖어 약해지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외벽을 둘러싸는 비내력벽체인 ‘축담’을 쌓았는데, 10cm 내외의 기울기로 들여 쌓아올린 형식을 띠게 되었다.



강운봉 가옥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59195&ccbaKcd=24&ccbaAsno=00030100&ccbaCtcd=50>)



성읍마을 객주집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ccbaCpno=1483900680000)

그렇기 때문에 제주 한옥은 입면의 개방도가 매우 낮다. 육지부 한옥의 대청마루가 앞뒤로 열려있는 것과는 달리, 제주 한옥의 상방은 상방대문과 뒷문으로 판장문을 설치해 기후의 변화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들의 창호(강운봉 가옥, 성읍마을 객주집의 사진) 역시 이중창호로 판장여닫이문 등을 설치했다.

2) 구조적 특성¹⁸⁾

제주 한옥의 지붕가구는 2고주 7량가의 겹집형식으로, 중앙의 상방은 통칸이지만 좌우칸은 ‘큰구들과 고팽’, ‘죽은구들과 정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후퇴가 있고 고주 사이에는 일반적인 5량 구조로 구성되는데, 이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풍압을 견디는 데 유리한 구조형식이기 때문이다.

지붕가구의 종도리와 중도리는 내민보 형식으로 측벽의 외도리(외목도리)에 연결되거나 고주 상부에서 결구되는데, 내민보의 경우에는 대부분 ‘굽은 도리’를 사용해 높이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조재인 기둥 외에도 벽체 중간에서 보조기둥이 대들보나 도리의 하부를 받치는 등, 벽선과 인방재인 하인방, 중인방 등이 벽체의 구조체를 형성하게 된다. 구조재는 느티나무, 조배나무, 참나무 등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목재의 강도가 높고 작은 부재단면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내구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붕 재료로 ‘새’가 널리 사용된 것은 어느 지역에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이다. 습한 동남부지역을 제외하면 보통 2년에 한번 새롭게 이었는데 입춘을 전후한 시기에 있는 풍습이 이어져왔다. 일차적으로 허튼쌓기의 돌담과 방풍림, 지대보다 낮은 배치, 안·밖거리의 좌향 방식으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고, 20°의 완만한 지붕 경사와 낮은 입면 높이로 이차적으로 차단하며, 마지막으로 이중벽체와 풍채를 이용해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결론적으로 제주의 강한 바람은 제주 한옥의 배치와 평면형식, 입면과 구조 형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제주 한옥의 구성요소

©박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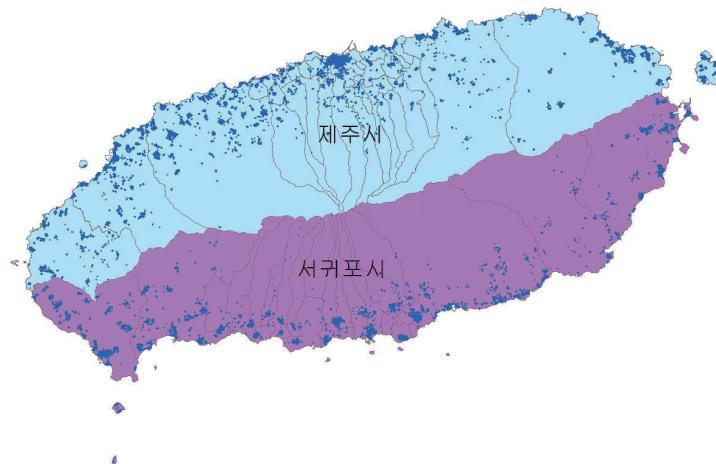
출처: (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2015).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45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18 양상호. (2015). 제주건축역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pp.103-104

5. 건축자산을 통해 본 제주 한옥의 특징

1) 건축자산 기초조사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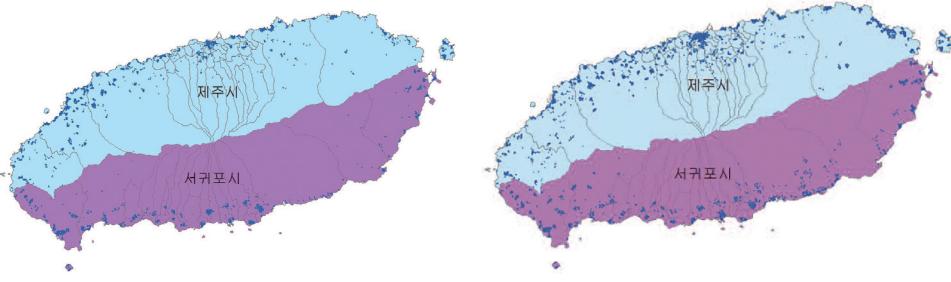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용도별 건물 공간정보(2018.01.05. 자료)를 기준으로 제주 한옥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은 총 18,189건으로 확인된다. 이 중 목구조는 550건, 일반목구조는 17,639건이며, 목구조는 트러스 등이 포함된 구조를, 일반목구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적 구법으로 축조된 구조를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1945년 이전에 건축된 제주 한옥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은 6,627건이며, 1946-1987년 사이에 건축된 제주 한옥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은 11,562건이다.



한옥 형식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분포 현황

출처: 국립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1

¹⁹⁾ 국립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p.8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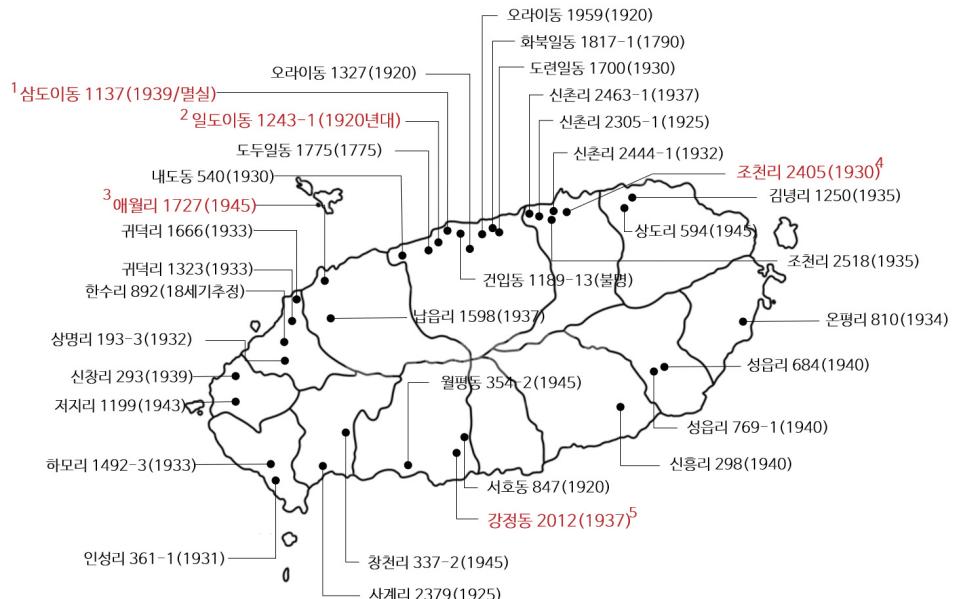
1945년 이전 한옥건축물

출처: 국립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1

1946-1987년 사이 한옥건축물

출처: 국립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2

2017년 11월 발행된『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연구’에 기초해 2차 추출된 587 건의 건축자산 후보 리스트에서 1945년 이전 제주 한옥을 대상으로, 영



역별 가치의 종합득점 53-60점 이상(지역별 점수 편차)인 35개소를 추출했다. 이것은 향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자산으로, 행정구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9개소(2개소 멸실), 애월읍 2개소, 한림읍 4개소, 한경면 2개소, 조천읍 5개소, 구좌읍 2개소, 서귀포시 동지역 3개소, 성산읍 1개소, 표선면 2개소, 남원읍 1개소, 안덕면 2개소, 대정읍 2개소로 분포한다.

2) 건축자산을 통해 본 제주 한옥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35개소 가운데 『제주 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도면 분석, 현장답사를 통해 선정한 6개 가옥을 통해 제주 한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도일동 고씨가옥 (1920-1930년대,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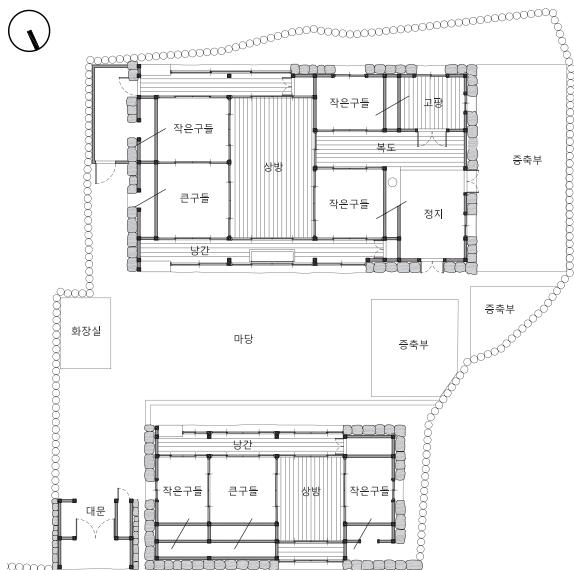
• 개요

일도일동 고씨(고한봉)가옥은 제주시 일도일동 1243-1번지(관덕로17길 27-1)에 위치한 제주 한옥으로, 일제강점기인 1920-1930년대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대건축물이다.²⁰⁾ 일식과 제주식이 결합된 한일절충형 건축물로, 기술적으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배치와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제주 한옥의 원형을 잘 드러낸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당시 철거될 계획이었으나 제주 근대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이 결정되었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현재 제주도 도시재생센터에서 안거리를 제주사랑방으로, 밖거리를 제주책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²⁰⁾ 고씨가옥의 건축연도에 대한 시기를 두고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고영철(2022)에 의하면 1920-1930년대로 추정되고, 양상호(2015)에 따르면 1949년 해방직후로 추정된다. (고영철. (2022). [향토문화] 100년 된 제주 근대건축물. 일도1동 고한봉가옥. 제주환경일보. 9월 2일 기사; 양상호. (2015). 시간. (사)도시건축문화유산연구소, 봄(5), p.42)

• 특징

고씨가옥은 안거리와 밖거리가 대칭적으로 배치된 ‘마주 앉은 두거리집’으로, 안거리는 구들-상방-구들-정지의 네칸집, 밖거리는 구들-상방-구들의 세칸집의 평면구성을 보여 전통적인 제주 한옥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서도 고팽이 구들이 아닌 정지 쪽에 면하는 등의 변형도 있다. 또한 방바닥에 다다미를 깔고, 낭간에 상방대문 대신 일식창호를 설치했으며, 상방의 앞·뒤쪽과 정지와 고팽, 작은구들 사이로 복도가 삽입되어 있는 등 일본 건축의 양식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일도일동 고씨가옥

출처: 김상언(건축사사무소 담)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박용준



©양건

일도일동 고씨가옥 (복원 전, 2013)



©양건

일도일동 고씨가옥 (복원 후, 2023)

삼도이동 한씨가옥 (1939년,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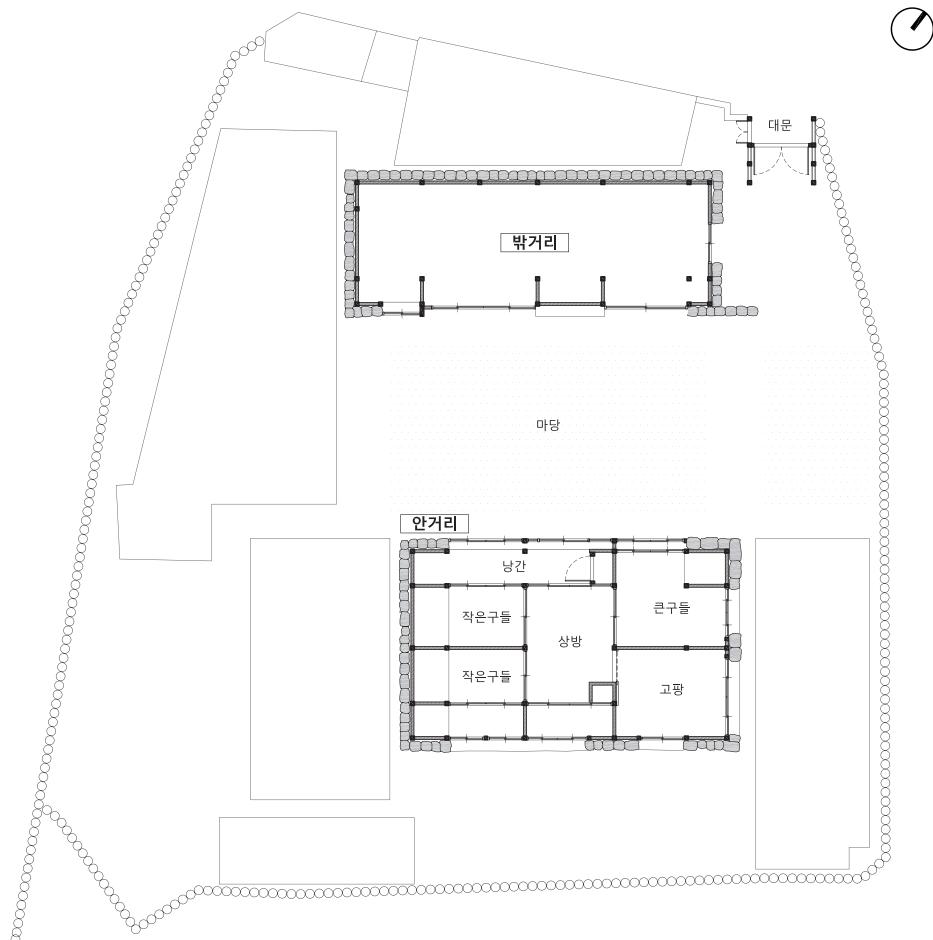
• 개요

삼도이동 한씨가옥은 제주시 삼도이동 1137번지(관덕로17길 27-1)에 있었던 제주 한옥으로 1939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여겨지는데,²¹⁾ 2022년 현재는 철거되어 다른 건축물이 들어섰다.

• 특징

삼도이동 한씨가옥은 그 원형에서 외부공간 및 안거리와 밖거리가 부분적으로 증축되었다. ‘마주 앉은 두커리집’의 배치로서 안거리, 밖거리는 세칸집의 평면형식을 띠고 있다. 대문이 안·밖거리와 ㄱ자로 꺾여서 진입하도록 자리하여, 세대 내부가 마당까지 진입하지 않는 이상 밖거리의 측벽에 가려져 있다. 상방 우측의 죽은구들 두 개소는 정지와 챗방을 변형한 형태로 여겨지며, 좌측의 큰구들의 진입은 전면에서 낭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형태가 특이하다. 주요 구조부는 일식이 결합된 목구조이며, 벽체의 재료는 돌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의 재료로는 안거리는 기와를, 밖거리는 새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올래와 안·밖거리, 주요 구조부의 축담 등 건축물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철거되었다.

²¹⁾ 건축물대장 상의 사용승인일자는 1939년이지만 실제 건축연도는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삼도이동 한씨가옥

출처: 김상연(건축사사무소 담)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박용준



삼도이동 한씨가옥 (철거 전)



삼도이동 한씨가옥 (철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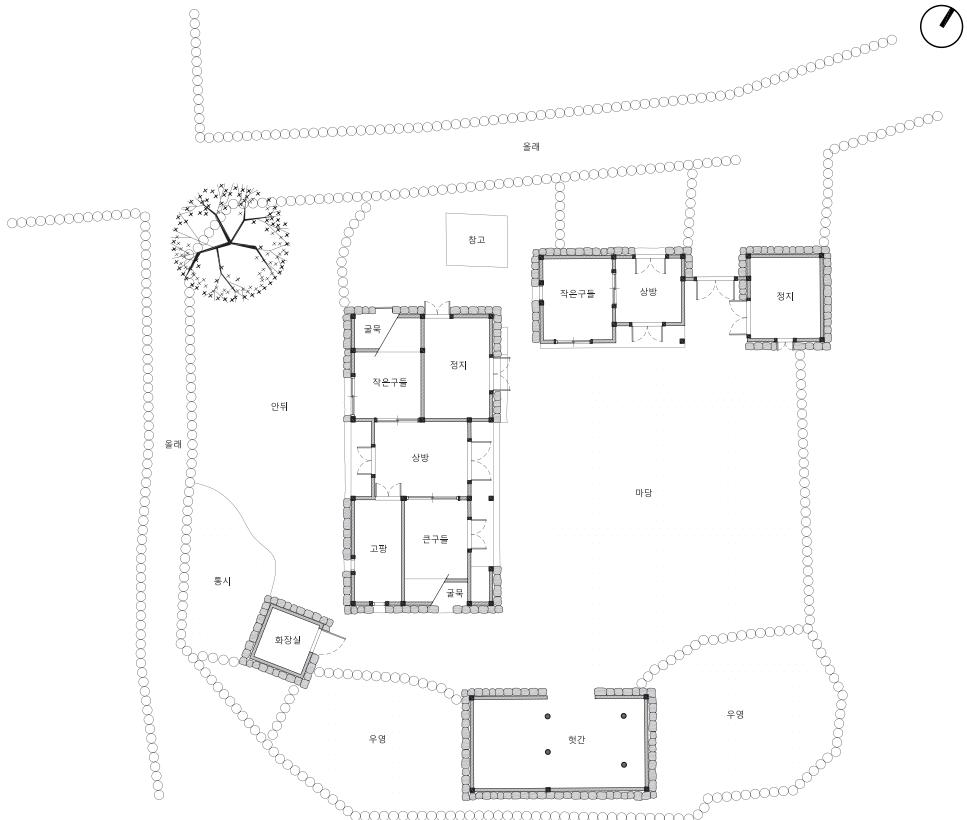
조천리 김씨가옥 (1930년)

• 개요

조천리 김씨가옥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05번지에 위치하며 1930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한옥의 공간구조와 구성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고, 건축물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 특징

조천리 김씨가옥은 ‘모로 앉은 세거리집’의 배치인데, 안거리, 이문거리인 밖거리, 모커리의 세 채로 구성되어 있고, 안거리와 밖거리 모두 세칸집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서 한질을 따라 걸으면 초입에 풍낭이 있고 좁고 긴 올래를 따라 ㄱ자로 꺾어서 세대로 진입하게 되는 문간올래를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게 된다. 밖거리는 이문거리로 죽은구들-상방-정지의 세칸집이며, 혀간으로 사용하는 모커리가 있다. 안거리에는 큰구들-상방-정지의 세칸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방과 큰구들 앞의 낭간에는 마루가 아닌 댁돌 위 상방대문이 있다. 안거리와 모커리 사이로 정지와 가장 면 위치에 통시가 있고 그 옆으로 안뒤가 안거리의 상방과 연결되어 있다. 주구조는 한식목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재료는 흙과 현무암을 사용하여 벽체를 구성했고, 새를 이어 지붕을 이은 초기로서, 부분적으로 시멘트 몰탈이 사용되었다.



조천리 김씨가옥

©박용준

출처: 건축사사무소 더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82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양건

조천리 김씨가옥



조천리 김씨가옥

©양건

애월리 김씨가옥 (1941년)

• 개요

애월리 김씨가옥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2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²²⁾ 과거 북제주군 애월의 중심지는 용천수가 나오던 ‘하물’이라는 곳으로, 이를 중심으로 애월 지역의 중요한 행정기관과 시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 설치된 애월진과 더불어 애월초등학교, 우체국, 비석거리, 면사무소 등이 있다. 이 가옥의 소유주였던 김도현(1880-1967)은 17년가량을 애월면장으로 근무했는데, 이 시기에 인근 다른 주택과 함께 지었다고 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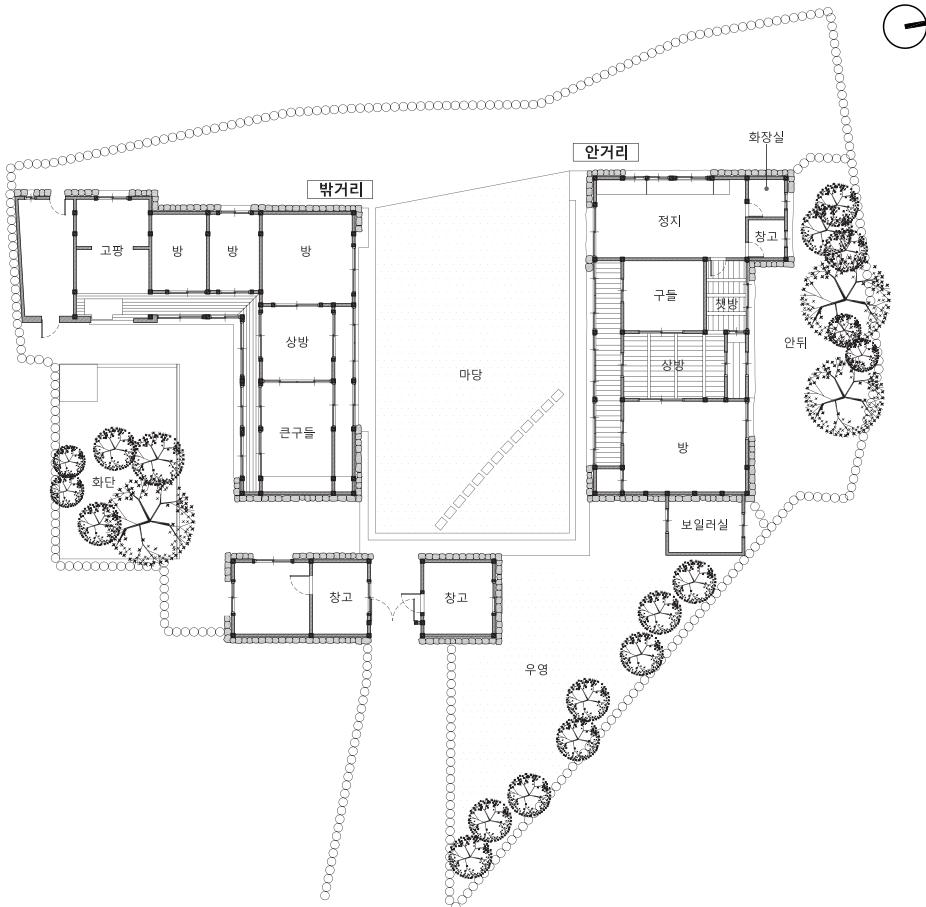
• 특징

애월리 김씨가옥은 1941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한옥 와가로,²⁴⁾ ㄷ자형의 세거리집으로 안거리와 밖거리, 이문거리인 모거리로 구성된 배치 형식을 보여준다. 밖거리의 형태가 특이하게도 마당을 등지고 그자로 구성되어 있어 별개의 마당을 갖고 있으며, 건물을 따라 긴 복도(낭간)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제주 와가와 일식 주거의 변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2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은 1970년이지만, 제주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제주도의 <제주록(1994)>에서는 1920년에 애월포구의 매립이 시작되었고, 당시 애월면장 김도현씨(1880~1967)가 면장으로 지낸 시기(1919.03~1936.02)인 1930년 3월 준공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1961년 현재 소유주인 김성순씨가 … 흙땅으로 된 부엌, 욕실, 마루 등을 고쳤는데, 집의 구조는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일보, (2005). 매립지에 세워진 일본식 주택. 1월 6일 기사)

23 제주일보, (2005). 매립지에 세워진 일본식 주택. 1월 6일 기사

24 “안거리는 1941년(昭和16年) 3월 7일이라는 상량문이 있는 근대시기의 전통형식 기와집”이라고 알려져 있다. (양상호. (2014). 애월리 김씨 와가. 시간, 여름(2), p.46)



애월리 김씨가옥

출처: 양상호. (2014). 애월리 김씨 와가. 지간, 여름(2), p.46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박용준



©양건

애월리 김씨가옥



©양건

애월리 김씨가옥



애월리 김씨가옥 (문간올래)



애월리 김씨가옥 (마당)



애월리 김씨가옥 (안거리)



애월리 김씨가옥 (밖거리)

이러한 전통과 외래의 내용이 혼합된 형식은 1940년대 초라는 건축연대가 갖는 시대적 성격이 반영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안거리 역시 제주 한옥의 건축형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평면과 입면의 치수들은 제주 한옥보다 크고, 측벽이나 내부 벽체에는 보를 받치는 지주가 많아, 구조재만으로 간결하게 마무리하는 제주 한옥과는 차이가 있다.²⁶⁾

26 양상호. (2014). 애월리 김씨 와가. 지간, 여름(2), p.46

신례리 양금석가옥 (1930년대, 복원)

• 개요

양금석가옥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1313번지에 위치해 있는 양씨 종택으로, 1930년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형적인 제주 한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1978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3-45호로 지정되었고, 2013년 8월에 안거리의 고팽, 낭간, 기둥 및 쳐마도리 등과 밖거리의 일부를 해체한 뒤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신례리 양금석가옥 안거리 (복원 전)



신례리 양금석가옥 안거리 (복원 후)



신례리 양금석가옥 밖거리 (복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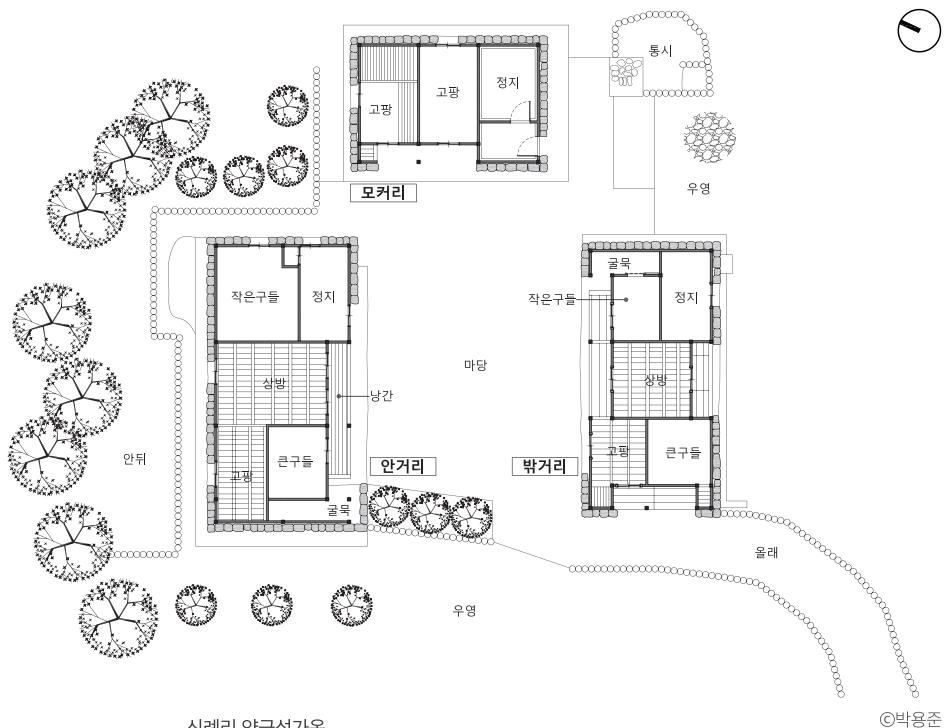


신례리 양금석가옥 밖거리 (복원 후)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ccbaCpno=2443900034500;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ccbaCpno=2443900034500;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ccbaCpno=2443900034500;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ccbaCpno=2443900034500)

• 특징

양금석가옥은 전형적인 제주 한옥으로서 ‘마주 앉은 세거리집’의 티자형 배치로, 안거리와 밖거리 모두 구들-상방-정지로 구성된 세간집의 평면구성을 보여준다. 한질에서 마당 초입까지 긴 올래가 이어지는데, 감귤나무의 방풍림이 에워싸고 있어 유기적인 접근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문이나 정낭은 없지만 휘어져 돌아가는 형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며, 바람의 영향도 덜 받게 되는 구조이다. 목재와, 흙, 새, 현무암 등 제주 고유의 재료를 사용해 벽체와 지붕, 구조부를 구성했으며, 안거리는 남향으로 좌향해, 상방대문과 상방뒷문이 개방되면 자연적으로 통풍과 채광이 해결되는 구조이다. 밖거리의 상방 앞뒤로 낭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모커리는 고팡이나 헛간 등으로 공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신례리 양금석가옥

©박용준

출처: 한현주, 임상훈. (2020). 제주 전통주거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건축 특성 분석: 양금석 가옥을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20(4), p.35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강정동 문씨가옥 (1937년)

• 개요

강정동 문씨가옥은 서귀포시 강정동 2012번지에 위치해 있는 제주 한옥 초가이다. 이 일대는 ‘고둔과원’라고 불렸던 곳으로 조선 후기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고원방고(羔園訪古)』편에 실려 있다.²⁷⁾ 고둔과원은 조선시대에 감귤을 진상하기 위해 대정현에서 설치해 운영하던 과수원인데, 문씨가옥은 바로 이 고둔과원 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용천수인 운랑천이 흐르고 있다. 건축연도는 1937년이지만, 거주자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는 100여년 가량 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⁸⁾



강정동 문씨가옥 (2017)



강정동 문씨가옥 (2017)



강정동 문씨가옥 (2017)



강정동 문씨가옥 (2017)

²⁷⁾ 제주목관야. 탐라순력도: 고원방고(羔園訪古) (<https://www.jeju.go.kr/mokkwana/tamla/daejeonghyun/tamla1.htm>)

²⁸⁾ 2017년 건축자산 조사 당시 인터뷰했던 거주자는 2021년 작고했으며, 현재는 그 아들이 바로 뒤편에 위치한 샘모루펜션의 부속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 특징

강정동 문씨가옥은 ‘모로 앉은 두커리집’의 배치 형식으로 안거리와 쇠막인 모커리로 구성되어 있다. 안거리는 네칸집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고팽에서 측면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외부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문씨가옥 우측에 자리 잡은 운랑천(강정동 운랑천의 사진)의 물길이 가옥의 좌측(강정동 문씨가옥의 사진)으로 이어져 있는 흔적으로 미루어 물길을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볼 수 있다. 구들-상방-구들-정지로 구성된 네칸집으로 전면의 낭간에는 마루가 깔려 있고, 상방의 앞뒤로 상방대문과 뒷문이 마당과 안뒤를 이어준다. 정지는 취사공간과 봉당 간의 단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찻방을 통해 상방으로 이어지며, 정지뒷문은 측면에 만들어 안뒤와 연결된다.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지만 원래는 쇠막이 있던 모커리 측면으로 우영으로 연결되는데 통시가 그 뒤로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의 제주 한옥과는 달리 문간이 없고 올래에서 바로 마당으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강정동 문씨가옥

출처: 건축사사무소 더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89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강정동 문씨가옥 (2017)



강정동 운랑천 (2017)

©박용준

참고문헌

- 강행생. (1985). 안·박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월간 건축문화사, (52).
- 건축사사무소 더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김영식. (1996). 제주 주택의 생활공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 김태일. (2008). 제주건축.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형준. (2007).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3).
- 송병언, 이희봉. (1998). 생활문화로 본 제주도 민가 고찰: 정지거리 유·무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18(2).
- 송성대. (1993). 제주도의 풍토주가: 초옥민가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연구, 10.
- 양상호. (2014). 애월리 김씨 와가. 시간, 여름(2).
- 양상호. (2015). 성읍 조일훈 가옥/시간. (사)도시건축문화유산연구소.
- 양상호. (2015). 제주건축역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 양상호. (2015). 시간. (사)도시건축문화유산연구소, 봄(5).
- 이용규, 이승택, 김정곤. (2017). 제주 올래와 올랫담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무근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3).
- 장창민. (2010).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2015). 초기·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한현주, 임상훈. (2020). 제주 전통주거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건축 특성 분석: 양금석 가옥을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20(4).



박씨초가 이야기

-
1. 박씨초가의 연혁과 사람들
 2. 박씨초가의 건축적 특징
 3. 박씨초가의 건축자산적 가치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고기봉 건축디자인연구소 사유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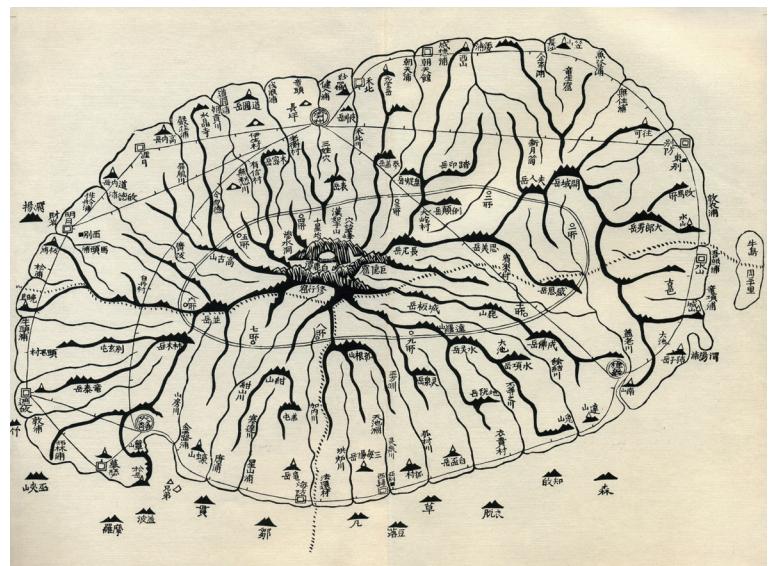
1. 박씨초가의 연혁과 사람들

1) 박씨초가의 위치

제주 원도심(原都心)은 과거 3성 9진 25봉수 38연대의 제주 행정 및 방어체계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공간인 제주목(濟州牧)이 위치했던 제주 읍성의 안팎 일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곽도시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확장 과정 속에 새겨진 삶의 여러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 즉 제주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이다. 현재 도시공간과 건축물의 노후화,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재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도심의 중심공간인 제주읍성에는 동문과 서문, 남문으로 이어지는 큰 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서민들의 생활공간 조직에 따라 작은 길들이 실핏줄처럼 이어져 있다. 구부러지고 휘어진 길이지만 큰 길과 작은 길의 기능적 위계질서 속에서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조직화되어 있다. 우리가 옛길을 주목하는 이유는, 길과 관련된 공간적 정보, 역사적 사실(史實)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 때문이다.

박씨초가는 제주읍성의 남문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랜 역사의 흔적과 이야기가 축적되어 있는 곳이다. 박씨초가는 동문과 서문을 잇는 길과 함께 제주목 관아로 연결되는 큰 길인 웃한짓골에 접한 몰항골 초입에 자리 잡고 있다. 몰항골이라는 옛 길의 명칭은, 주변에 이아(貳衙)가 있었던 곳이어서 행정관료가 타고 다녔던 말을 관리하는 마방(馬房)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또한 몰항골의 형태가 말굽모양과 비슷하여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자든 후자든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1967년에 도로를 개설할 때 한짓골을 확장하지 않고 옆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정도로, 한짓골, 몰항골 주변 일대에 살았던 제주시내 유지들의 영향력은 컸다고 한다. 제주성안의 아주 명망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다.¹⁾

1)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기억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제주문화예술재단. p.307



대동여지도

출처: 김정호, 1861년 제작



제주읍성과 옛길 분포

©김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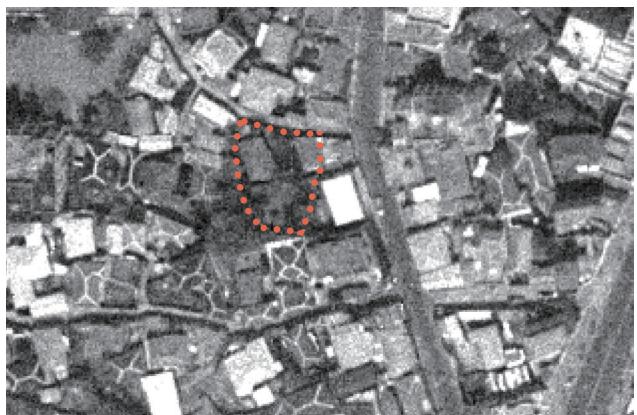
현 도로상의 제주읍성과 박씨초가의 위치

©김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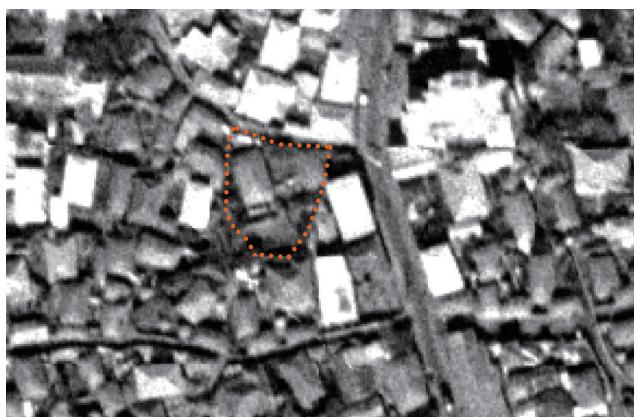
주: 오른쪽 도면의 붉은색 표시는 박씨초가를 나타냄

항공사진을 통해 박씨초가 주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1967년의 항공 사진은 같은 해 중앙로가 개설되기 직전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는 박씨초가를 비롯해 주변일대의 초가들이 잘 보인다. 박씨초가의 안 거리와 밖거리는 물론, 몰항골도 뚜렷하게 보인다. 당시 제주에서 초가는 보편적인 주거형태였으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원도심 내에 초가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1985년의 항공사진에서 도 당시의 박씨초가 주변 일대를 잘 보여준다. 주변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되었고 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 두드러진다. 동쪽으로는 중앙사거리로 이어지는 대로가 개설되어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2019년 항공사진에서는 박씨초가 주변으로 많은 고층건물이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박씨초가의 녹지공간은 더욱 풍성해지고, 안거리와 밖거리의 지붕과 형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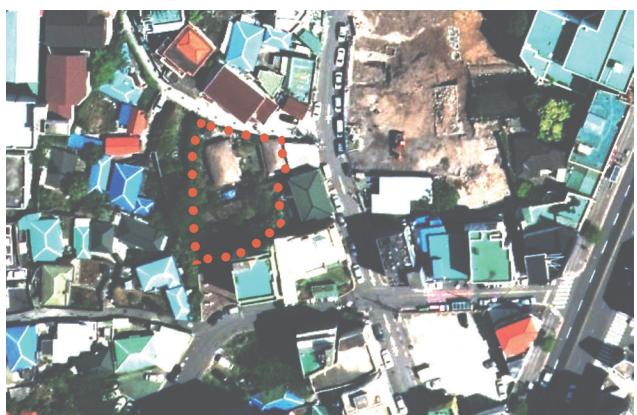
이처럼 도시화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면서, 박씨초가 주변 일대는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로 인한 큰 변화를 맞이했다. 하지만 동시에 웃한짓골을 비롯해 몰항골이 있는 주변으로는 옛길과 땅의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읍성과 관아가 철거되었고 해방이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풍경이 크게 변했지만, 여전히 옛길은 남아 있고 박씨초가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오래된 미래를 꿈꾸고 있다.



1967년



1985년



2019년

주: 점선 표시는 박씨초가를 나타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https://www.ngii.go.kr)

go.kr) 자료 일부 편집

2) 4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박씨초가의 계보

박씨초가는 해방 후 혼란기에 제주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석촌(石村) 박명효(朴明効) 집안이 4대에 걸쳐 거주했던 곳이다. 우선 이 집이 ‘박씨초가’로 불리게 된 장본인인 1대 박경보는 제주 애월읍 곽자리 출신으로, 조선시대 제주 9진 중 하나인 조천진의 조방장 관직을 맡게 되어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한다.²⁾ 박경보의 외아들로 태어난 2대 박명효는 독학으로 일본어와 복식부기를 배워 금융조합 이사 견습에 합격한 후, 호남지역의 군산, 여수 등지에서 금융조합이사로 활동했던 금융인이다. 해방 이후에는 1945년 미군정청에 의해 초대 제주읍장으로 임명되어 행정가로서 활동하게 되며, 1946년 2월 「제주도제 실시추진위원회」 12인으로도 역임했다. 이후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가 실시되면서 초대 북제주군수로 활동하는 등, 박명효는 민족주의 진영의 리더로 평가받는 인물이다.³⁾ 박명효는 아들 셋, 딸 둘을 두었는데, 3대 장남 박창택은 1948년에 간이법원판사 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서 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장을 지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씨초가를 지역사회에서는 통칭 박판사댁으로 부른다. 현재는 3대(박명효의 둘째 며느리인 안순생 할머니)와 4대(안순생 할머니의 딸)가 거주하며 박씨초가의 원형을 유지해 오고 있다.

박씨초가와 관련해서 사진 한 장이 박씨초가의 역사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1940년대 안거리를 배경으로 마당에서 4대에 이르는 대가족이 기념 촬영한 사진에는 당시 사회생활의 모습과 제주 역사의 흐름,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사진 중앙에 갓을 쓰고 앉아 계신 분이 조천진 조방장을 지낸 박경보이고, 그 옆으로 박경보의 부인이 보인다. 제주목사가 임명하는 종9품의 무관직인 조방장답게 매우 강건한 모습이며, 집안의 어른으로서 사진 중앙에 자리 잡았다. 박경보의 뒤쪽으로는 아들인 박명효가 위치하며, 박명효의 왼쪽에 장남 박창택, 오른쪽에 차남 박창우, 뒤쪽에 삼남 박창재가 서있다. 박경보 부인의 옆으로는 박명효의 큰

2) 제주의 방어는 3성 9진 25봉수 38연대를 이루고 있었다. 계급체계는 제주목·목사, 이아·판관, 대정현과 정의현·현감, 그리고 진(鎮)-만호가 책임 장수였다. 직급 상으로 만호 아래인 조방장은 전쟁 시 장수를 도우는 종9품 무관직으로서, 관할 지역 내 무술에 재능이 있는 군교를 제주목사가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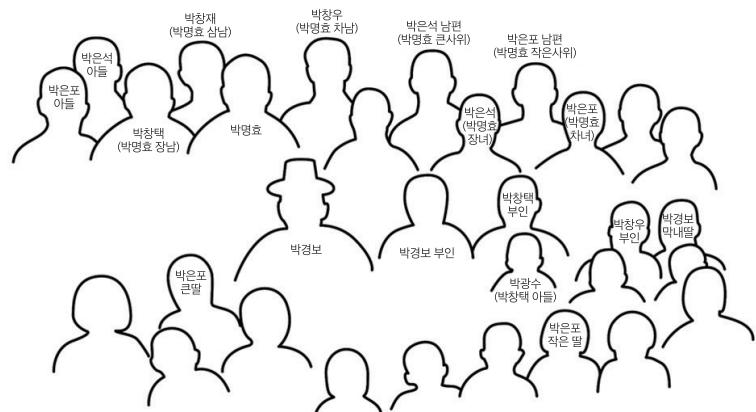
3) 김찬흡. (2016). 제주인물대사전, 금성문화사. p.384

딸 박은식과 큰 사위, 작은딸 박은포와 작은 사위, 그리고 손주, 손녀와 외손주, 외손녀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앉아있다. 마당을 중심으로 안 거리와 밖거리에 거주했던 박씨 일가의 대가족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궤적을 통해 제주 사회의 역사적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지금도 박씨초가를 매개로 삶과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어, 박씨초가의 건축자산적 가치가 크게 느껴진다.



1940년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4대 가족사진

출처: 안순생 할머니 가족 제공



가족사진의 인물설명

©김태일

2. 박씨초가의 건축적 특징

1) 건축연대

그렇다면 박씨초가는 언제 건축되었을까? 보다 상세한 문헌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상량문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씨초가의 건축연대를 정확하게 추적하기는 어렵다. 현재 박씨초가에 거주하고 계신 안순생 할머니와의 구술에 의하면, 시할아버지인 박경보는 조천진 조방장의 관직을 받아 현 박씨초가의 건너편집에 이사 오게 되었다. 이후 박씨초가를 구입해 입주했다고 한다. 이사 후 박경보는 박씨초가의 밖거리에, 박명효는 안거리에 기거했으며 박명효는 모든 자녀들을 박씨초가에서 낳았다고 전한다. 1955년에 박명효가 사망한 후 박씨초가에는 박명효의 부인이 혼자 거주했으며, 박명효 부인이 사망한 후에는 박명효의 둘째 아들(박정우, 며느리 안순생) 가족이 거주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세움터 자료에는 박씨초가가 1947년에 건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박씨초가에 4대째 살고 있다는 안순생 할머니의 구술에 따르면,⁴⁾ 박씨초가의 건축연대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

즉, 박씨초가에서 박명효의 큰 딸이 태어난 1902년을 기준으로 역산출하면, 박경보가 박씨초가를 구입한 시기는 대략 1870-1880년대로 추정된다. 그런데 당시 박씨초가는 이미 지어져 있던 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씨초가가 1800년대 초중반인 1820-1840년대에 지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박씨초가의 건축연대는 대략 180년에서 200년 정도로 추정된다. 200년이라는 세월의 향기를 간직한 박씨초가의 나무들과, 울담 이문간의 출입문 등은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오래된 것, 낡은 것, 때 묻은 것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⁴⁾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기억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제주문화예술재단. p.335

2) 배치와 내·외부 공간구성

• 일반적인 배치와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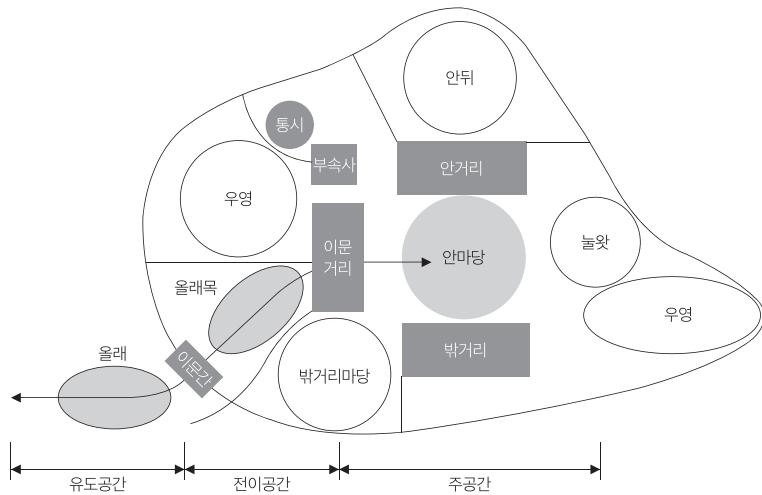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일반적인 배치는 풍수지리에 의한 배산임수(背山臨水), 사국형성(四局形成)을 따른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풍수지리의 배산임수를 따르기에는 기후나 지질적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기(雨期)시 빗물이 잘 배수되고 강하게 부는 바람의 여건을 적절히 고려해 배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 전통건축의 건물배치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개별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지면에 안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배치형식은 제주 한옥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지 내에서는 안거리(안채, 內棟)를 중심으로 밖거리(바깥채, 外棟), 모커리(안채와 바깥채에 대해 모로 배치된 건물), 놀굽(낫가리를 놓는 장소)이 배치됨으로써, 사국형성의 기본적인 배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눈높이 정도의 돌담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둘러쌈으로써 공간의 폐쇄성이 깊어지고, 도로에서 대문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는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휘어진다. 자연히 마을은 다양한 길로 구성되는데, 이 길을 올래라고 부른다. 그래서 올래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 다채로움, 변화무쌍함을 갖는 진입공간이다.

한편 외부에 비해 돌담에 의해 폐쇄성이 높은 내부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안거리와 밖거리의 개방적 대립배치형식이다. 이는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분되는 공간분할에 따른 생활경제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바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쌓은 돌담으로 인해 외부는 폐쇄적이지만, 내부의 생활공간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밖거리의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의 우영(밭)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최소한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강인한 생활력을 엿볼 수 있다. 이 또한 제주 특유의 지질학적 특성이 반영된 주거 생활공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건물배치와 돌담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은 올래 → 안마당 → 안뒤로 이어지며, 올래(유도공간), 올래목(전이공간), 안마당(주공간)이라는 3분할적 공간구성으로 공간적 위계를 이루고 있다.⁵⁾

5 제주도. (1987).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43



제주 한옥의 진입방법

©국기한옥센터

출처: 제주도. (1987).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43의 그림을 참고해 재작성

외부와 내부를 잇는 주요 공간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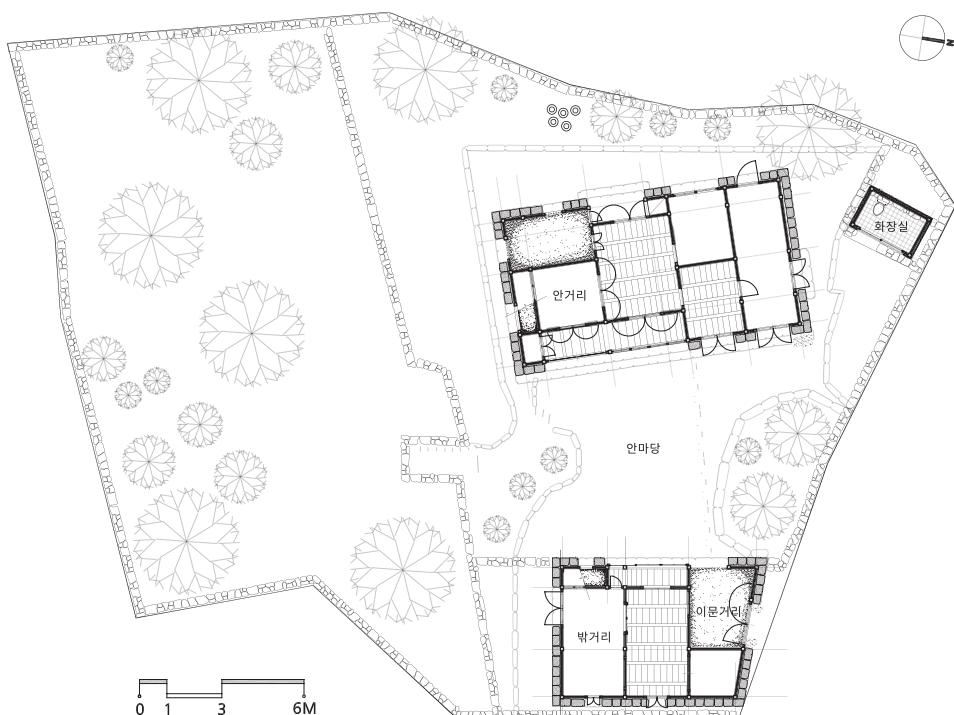
- **올래** :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 **안마당** : 안거리와 밖거리의 배치에 의해 형성되는 주요 공간이며, 이 마당을 매개체로 안거리와 밖거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이동 통로의 기능, 농산물을 건조하는 작업공간의 기능, 관혼상제의 행사 기능 등 다기능적 공간
- **안뒤** : 안거리의 뒷마당에 해당되는 공간으로 제주 무속의 부신인 ‘밧 칠성’을 모시는 장소이며,⁷⁾ 또한 집안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장독대가 놓인 공간. 상방 뒷문이나 부엌을 통해 출입하는 여성의 공간

6 주요공간의 명칭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p.34-35 참조

7 곡식을 보관하는 고팅에는 ‘안칠성’을 모셨다. 자세한 내용은 p.39 참조

• 박씨초가의 배치와内外부 공간구성 특징

박씨초가는 안거리와 밖거리, 모커리, 놀로 구성된 사극형성의 기본적인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밖거리의 단순한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고 밖거리는 이문간과 같은 대문 기능을 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배치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측의 돌담과 밖거리 측면의 벽체가 일체화되어 있으나 안거리는 돌담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진입과정에서 공간적 깊이와 위계를 갖게 하여 상대적으로 안거리의 존재감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 밖거리를 통해 마당을 진입할 때 시각적으로 안거리는 이문거리에서 마당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배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깊고 큰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박씨초가의 배치 현황

©국가한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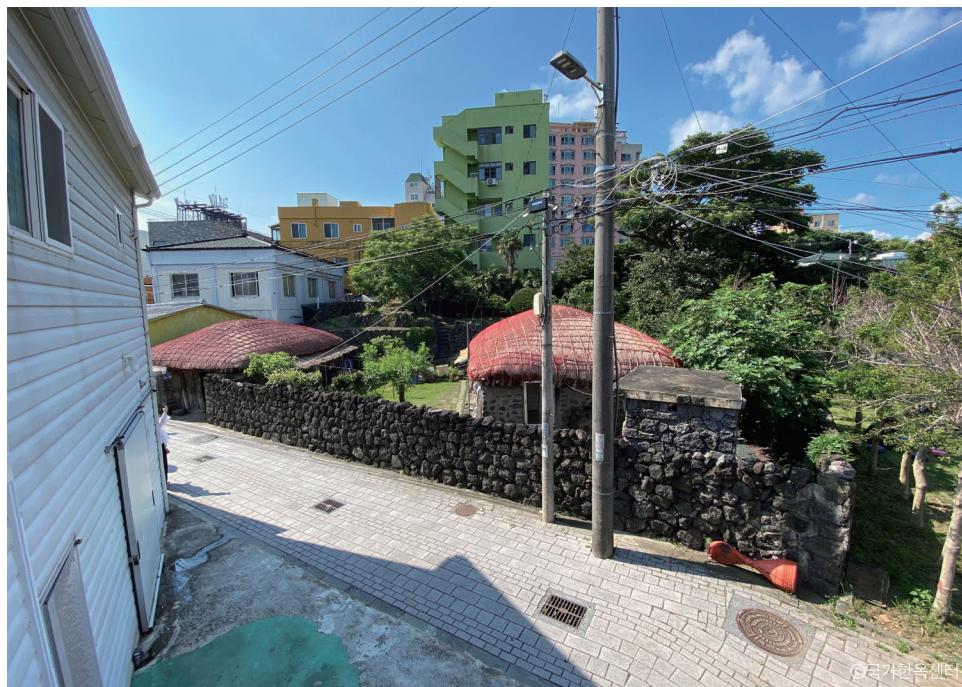
하늘에서 본 박씨초가 전경. 밖거리(왼쪽)와 안거리(오른쪽), 뒤쪽에 거목이 있는 동산이 보인다.
©김태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이와 같이 이문간이 없는 대신 박씨초가에서는 밖거리가 이문간 기능을 겸하도록 도로에 가깝게 배치하고, 안거리는 도로변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했다. 그리고 마당 안쪽으로는 돌을 쌓아 만든 평坦한 작고 예쁜 동산이 있고 조금 낮은 곳에 우영팟을 두었다. 동산과 두 채의 건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지 안의 공간은 안거리와 밖거리가 배치되는 채워지는 공간과 건축물이 없는 비워지는 공간의 이분(二分)화된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주거공간과 비주거공간으로 구분된다. 비워지는 공간이자 비주거 공간 즉, 동산은 박씨초가의 가장 독특한 외부공간이다. 동산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면, 예전에는 산지포구를 드나드는 배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하늘과 맞닿은 바다와 포구의 움직임을 한적한 동산에 앉아 관조하는 즐거움은 무척 컸을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넓게 가지를 펼친 거목은 200년 역사를 가진 박씨초가의 깊이를 더한다. 울담은 전형적인 제주돌담이라 무척 아득하다. 앞서 제주 한옥의内外부 공간구성의 특징으로 폐쇄성을 설명하였는데, 폐쇄성은 돌담 높이와 건축물 높이의 관계 때문이다. 제주 울담 높이는 평균 165cm로, 내륙지방의 평균 139cm 보다는 평균 26cm 높은 편이다. 반면 건축물의 기단 높이는 내륙지방에 비해 평균 37cm 정도로 낮아 실질적으로는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이게 된다.⁸⁾ 원래 박씨초가 마당바닥은 더 낮았다고 하며 비가 올 때 보행에 어려워 마당바닥을 좀 더 높게 했다고 한다. 현재 마당바닥에서 상방까지의 높이가 약 45-50cm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높았던 것이다. 이는 초기 박씨초가를 건축하였던 목수의 출신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안거리를 높고 크게 보이게 하려는 건축적 의도와 집안의 권위에서 보이고 싶은 건축주의 요구가 작용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대문도 옛날 그대로의 것 이어서 세월의 무게를 보여준다.

8 김미령, 조성기. (1998). 제주도의 기후적 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1), p.228



©국가한옥센터



©국가한옥센터

몰항골에서 바라본 박씨초가



몰항골에서 밖거리를 통해 진입하는 모습



도로에서 바라본 밖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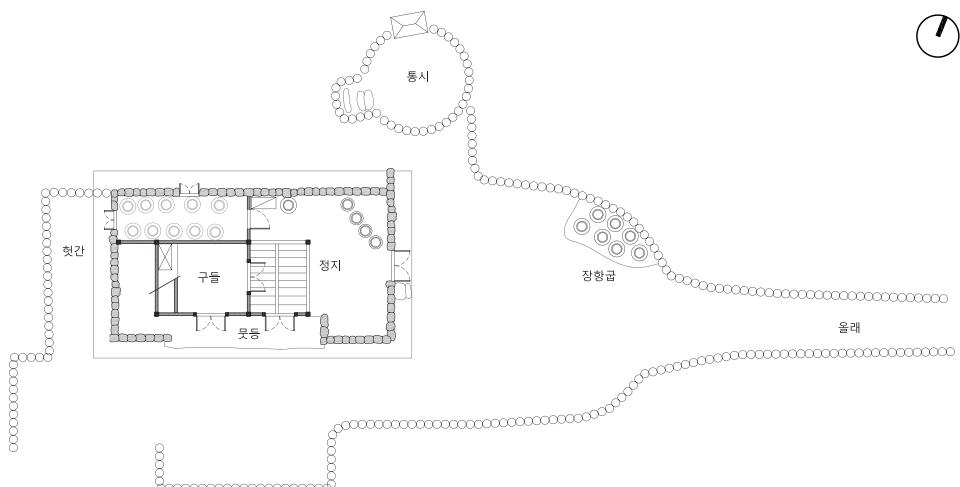
동산에서 내려다본 박씨초가

3) 제주 한옥의 평면분화와 박씨초가의 평면

• 제주 한옥의 평면 분화⁹⁾

전통적인 제주 한옥의 평면 구성은 세칸집이다. 상방(대청마루)을 중심으로 한쪽은 큰구들¹⁰⁾(방)과 고팡(곡식을 보관하는 곳)으로, 다른 한쪽은 작은구들(방)과 채방(식사방), 정지(부엌)로 구성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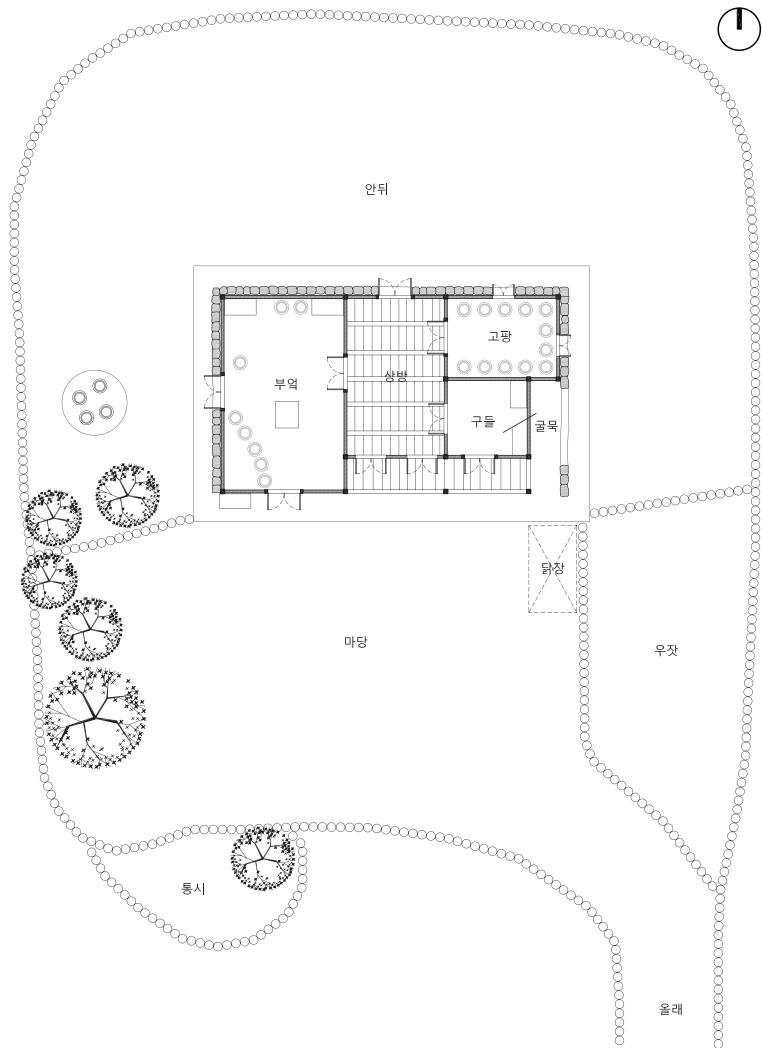
앞서 제주 한옥 배치의 기본형식에 대해 안거리와 밖거리, 모커리의 세 채 중심으로 공간적 연결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집을 구성하는 형식은 살림살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한 채만으로 구성되는 막살이집이며, 평면구성에 따라 두칸막살이집, 세칸 막살이집, 네칸막살이집으로 구분된다. 이중에 두칸막살이집은 상방(대 청마루) 없이 구들과 고팡 등 최소한의 생활공간만으로 구성된 두 칸 규 모의 살림집이다. 따라서 제주 한옥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세칸막살이집은 두칸집에서 상방이 분화하여 변형된 것으로, 제주 초가의 일반형이라 말할 수 있다. 가장 오른쪽 열에는 구들(방)과 고팡, 가운데 열에는 상방과 낭간이 위치하고, 왼쪽 열에는 정지(부엌)이 두 칸을 차지하는 형식이다. 기본적으로 두칸집과 세칸집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정지(부엌)와 구들 사이에 ‘상방’이라는 개방적이고 공적인 공간의 발생이다. 즉, 공간적, 기능적, 영역적 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두칸막살이집 (서귀포시 남원읍)

©박용준

출처: 제주도(1987).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50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작은방이 없는 세칸집

출처: 제주도.(1987).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52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박용준

9 국립민속박물관. (2019).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주생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필자가 작성한 부분을
재정리한 것이다.

10 제주에서는 흔히 구들을 온돌시설이 구비된 방의 의미로서 부른다. 일반적으로 고팡(곡식을 보관하
는 공간)에 접한 구들을 '큰구들'이라 하고, 이외의 구들을 '작은구들(혹은 죽은구들)'이라 한다. 큰구
들은 부부, 유아, 내객의 침실이면서, 조상신의 제사 등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두칸막살이집에서 상방이 분화함으로써 정지에서 상방으로 연결되는 문인 ‘부엌샛문’이 생겨나고, 불을 다루는 부뚜막은 상방의 반대쪽 외벽 앞쪽에 설치된다. 그리고 물을 다루기 위해 정지 뒤쪽에 자연스럽게 물 항이 놓이고, 그 옆에는 식기를 보관하는 가구인 살례(찬장)가 놓여 정지 안에서 기능적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지 공간의 기능적 분화는, 취사의 특성상 물과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을 다루는 곳은 취사공간, 물을 다루는 곳을 봉당공간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정지 앞쪽에 위치한 취사공간에는 솔을 걸어두는 곳(솔덕)과 재를 모아두는 곳(불치통)으로 다시 구분된다. 봉당공간에는 살례 외에도 식재료 등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놓인다. 이러한 정지는 주거공간에 있어 살아 있는 심장과 같다. 여성공간으로 본다면 정지를 중심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며 채방-상방-고팡을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넓은 공간을 관장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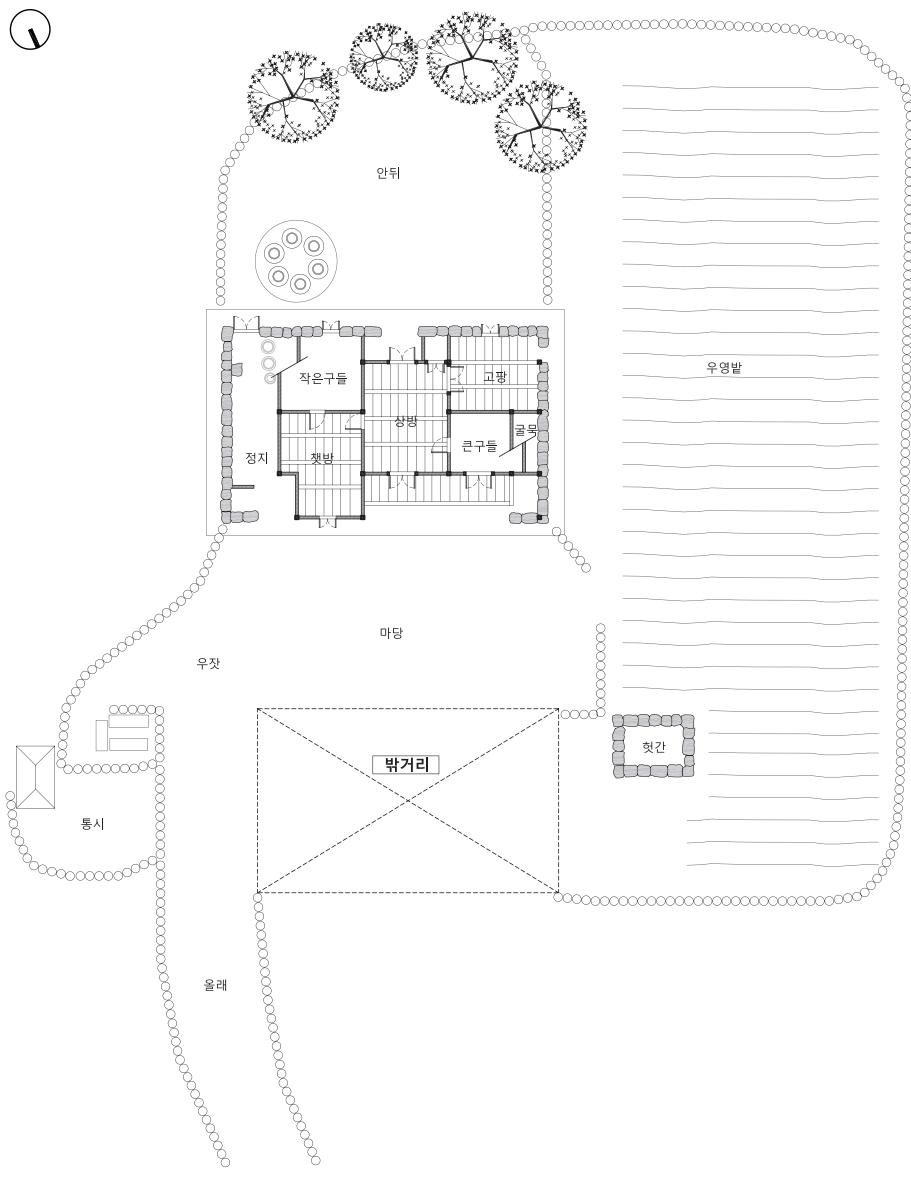


취사공간과 봉당공간으로 구분된 정지의 모습. 왼쪽 아래와 위쪽으로 각각 솔덕과 살례가 보인다.



취사공간에서 솔을 걸어두는 솔덕

네칸막살이집은 한 채로 된 경우는 없고, 안거리와 밖거리 등 두 채 이상으로 구성되는 유형이 많다. 평면구성은 중앙에 상방이 위치하고 오른쪽 혹은 왼쪽에 각각 고팡과 큰구들(방), 채방과 작은구들(방)이 위치한다. 그리고 고팡과 큰구들의 바깥쪽으로 불을 피우는 ‘굴목’이 위치하고, 채방과 작은구들의 바깥쪽에 정지가 위치하는 평면형식이다. 세칸집이 제주도 초가의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네칸집은 제주 초가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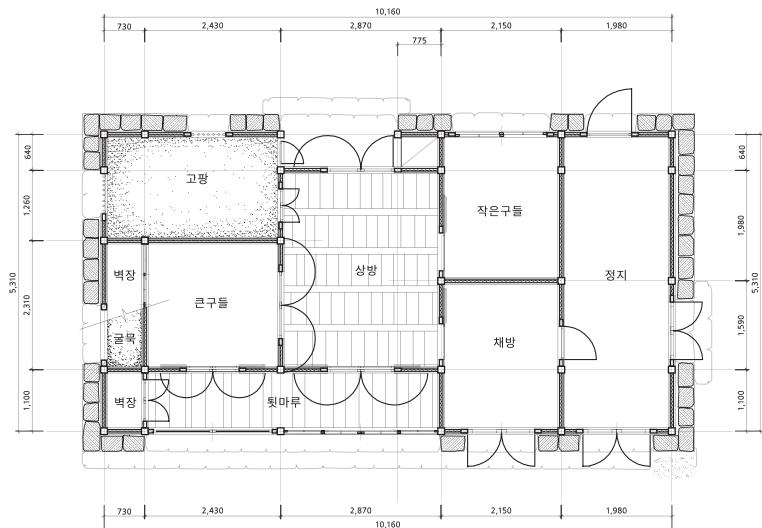


©박용준

출처: 제주도. (1987).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58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 박씨초가 평면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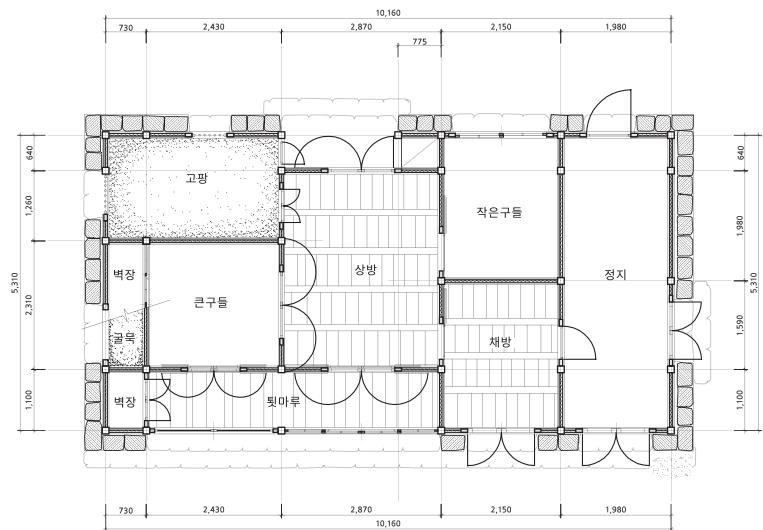
살림살이에 따른 제주 한옥의 평면 분화에서 볼 때 박씨초가는 네칸막이집의 주거형식에 가깝다. 현재의 박씨초가 안거리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변경되기는 했으나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초가 안거리의 현황 평면

©국가한옥센터

일반적으로 고팡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어 상방을 통해 출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박씨초가의 경우 외부 두 곳에서 직접 출입 가능한 구조이고 바닥은 흙바닥인 점이 특이하다. 현재는 폐쇄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박씨초가 안거리의 추정 평면

©국가한옥센터

박씨초가 안거리는 네 칸 규모로, 중심적 공간인 상방 및 채방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채방은 온돌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나무판만을 깔아 구성되는 마루가 남방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바닥을 데워 난방하는 구들은 북방적인 요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온돌은 부엌에서 취사와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부엌에서 취사가 이루어지고 난방은 굴뚝이라는 불을 지피는 곳이 별도로 설치되어 난방을 했다. 즉, 상방(대청마루)에는 온돌설비가 없으나 구들방의 측면에는 난방공간인 굴뚝이 있어 이곳을 통해 솔잎 혹은 보리 고스락 등을 태워 난방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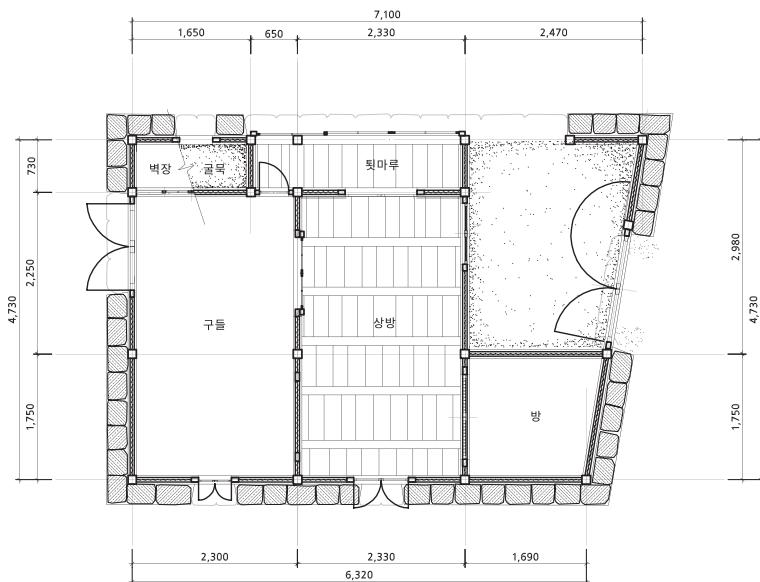
©국가한옥센터

굴뚝

주: 원쪽의 블록은 원래 없는 구조물이며, 외부에서 직접 불을 지핀다.

제주 온돌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0-2.2m이며 높이는 1.9-2.0m로 낮은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넓은 판석을 깔고 흙을 발라 바닥은 유지 바름으로 마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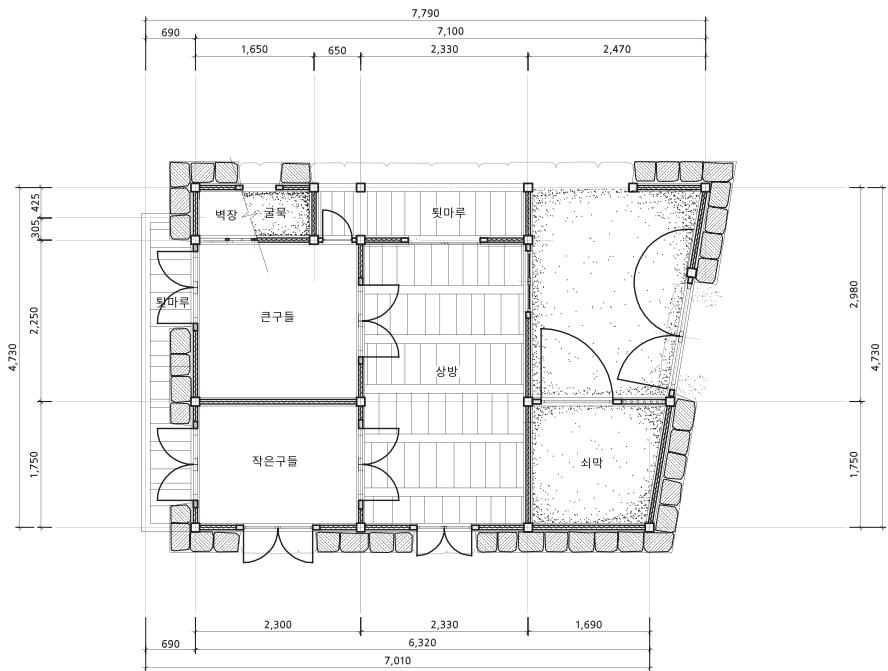
박씨초가 안거리가 네 칸 규모인 것에 비해 밖거리는 세 칸 규모로 배치상의 위치와 규모에서의 위계성을 갖는 안거리와 밖거리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문거리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밖거리의 위치도 도로에 근접하여 출입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평면은 상방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큰 구들과 작은 구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이문거리, 쇠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박씨초가 밖거리의 현황 평면

©국기한옥센터

일반적으로 큰 구들과 고팽으로 구성되는 것과 다르며 모커리에 있는 쇠막, 이문거리가 구성되어 있어 박씨초가 밖거리의 특이한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이는 밖거리와 모커리의 기능이 섞여있는 평면으로 매우 특이한 평면형식이다. 현재는 쇠막을 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큰 구들과 작은 구들을 터서 한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씨초가 밖거리의 추정 평면

©국가한옥센터

특히 목구조의 특성상 수평재와 수직재, 기둥과 보의 결합의 완결성을 갖기 위해 일정 비례를 갖게 되지만 박씨초가 밖거리는 이문거리 쪽의 벽면과 도로가 동일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형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이는 이문거리의 적절한 진출입공간을 확보하고 밖거리 측면이 대문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기 위한 것으로, 목구조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산에서 내려다본 안거리

©국가한옥센터



안거리의 후면

©국가한옥센터



©국가한옥센터

안거리 옆의 화장실



©국가한옥센터

동산에서 내려다본 밖거리



©국가한옥센터

밖거리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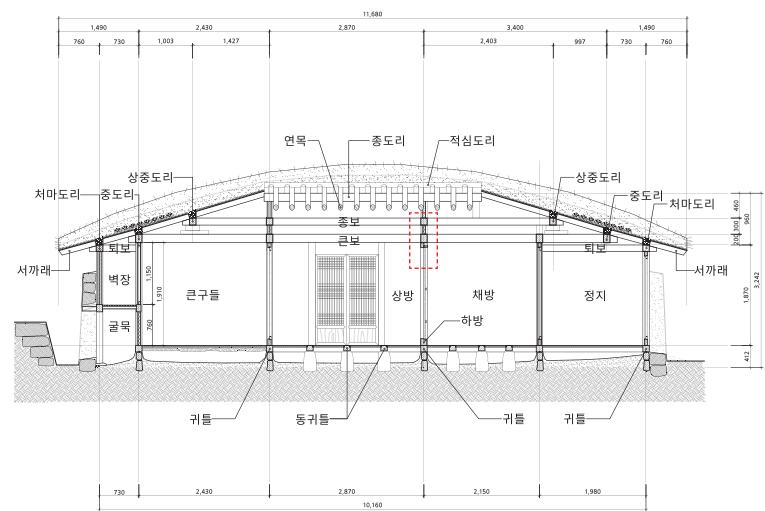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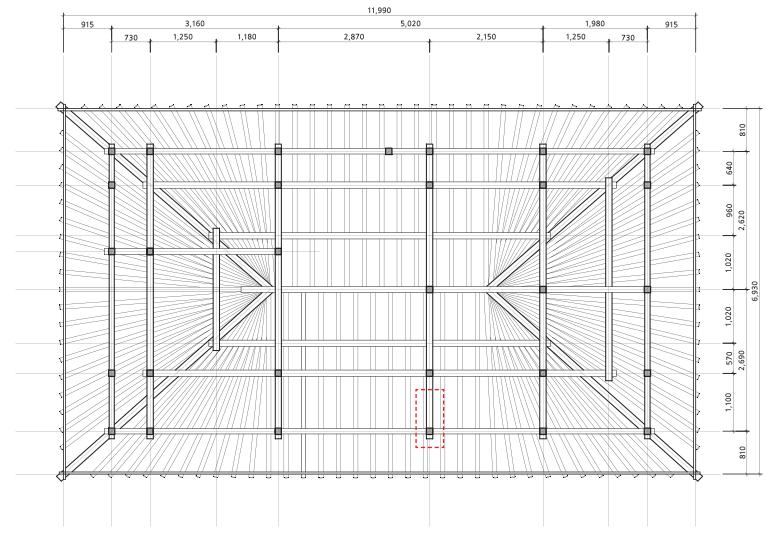
4) 구조와 지붕의 특징

· 구조

박씨초가 안거리와 밖거리의 지붕은 일반 민가와 같이 지붕 목구조위에 얹혀 지는 흙과 새의 두께가 상당히 두텁다. 벗물이 집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과 단열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일정한 무게를 갖게 한다는 점 등에서 환경적 구조적 문제해결의 수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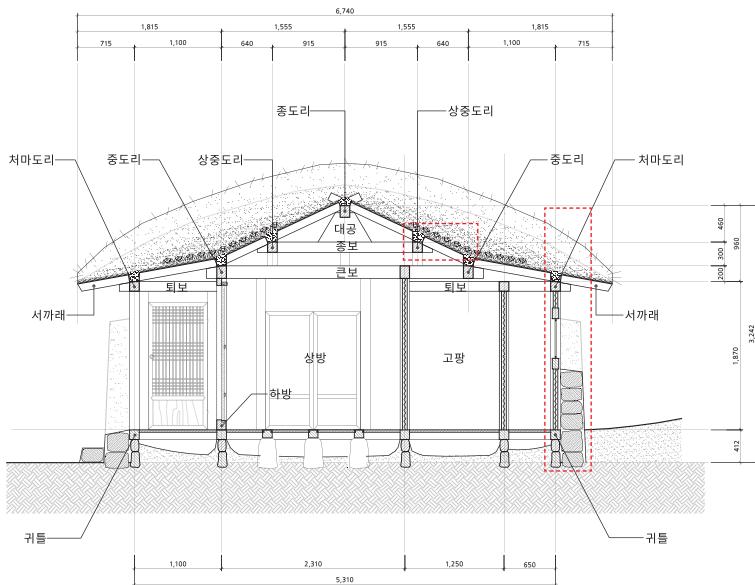
목구조의 특성상 지붕의 하중을 보와 기둥이 균형 있게 받아야 안정감이 있는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서까래를 받는 도리와 보가 지붕의 하중을 받아 기둥에 전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리와 보와 기둥의 결구(結構)는 지붕의 하중과 비바람의 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박씨초가는 처마도리(외도리)-중도리(내도리)-상중도리(중모루)-종도리(상모루)로 구성된 7량 목구조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5량 구조 민가와는 상당히 다르다. 처마도리는 제주에서는 외도리라고 부르기도 하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도리이며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중도리, 제주에서는 내도리라 부른다. 중도리 즉, 내도리와 연결되는 중요한 보가 대들보가 되는 것이다. 그 위에 있는 지붕의 도리는 제주에서 중모루라 하는 상중도리가 있고 마지막 보인 종보 위에 대공이 설치되어 종도리(제주에서는 상모루)가 놓임으로써 기본적인 목구조의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박씨초가 안거리의 양시도 및 횡단면도 (현황)

©국가한옥센터



박씨초가 안거리의 종단면도 (현황)

©국가한옥센터

아래 사진은 한림읍 대림리 초가 해체의 사진으로 제주도 초가의 전형적인 7량 목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박씨초가의 안거리 구조와 유사하다.



제주 초가의 일반적인 구조 (한림읍 대림리 초가)

보와 도리에 의해 목구조의 골격이 짜여진 위에 서까래가 얹히는데, 제주에서는 서까래를 ‘서리’라고 부른다. 서까래를 정교하게 잘 다듬어 일정 간격으로 배열함으로써, 처마부분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다. 제주에서는 서까래를 팔모로 다듬어 얹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충 다듬어 있는 그대로의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와 도리에 의해 짜여진 구조(p.100의 사진 참조) 위에 서까래(서리)가 얹혀진 모습. 조사한 한림읍 대림리 초가사례의 경우에는 대충 다듬어 있는 그대로의 목재를 서까래로 사용했다.

지붕의 하중을 받아주는 수평재인 보와 도리와 연결되는 기둥과의 결구는 기둥상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구가 사개맞춤(혹은 사괘맞춤이라고도 함)이다. 사개맞춤은 기둥상부의 네 방향으로 흄을 파서 그 위에 보, 도리 등을 끼워 결구하는 방식이다(p.99 와 p.100의 박씨초가 안거리의 종·횡단면도의 지붕 점선부분 및 p.102의 사진 참조). 제주초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결구(結構)방식이다. 기둥상부 머리부분의 도리와 보를 연결하기 위해 네 방향으로 흄을 파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기둥네모서리를 화살가지라 하고 보는 승어턱을 만들어 연결하고 도리는 주먹장(소장)이음으로 결구하게 된다. 주먹장을 소장이라고 부르고 주먹장이 맞춰지는 구멍을 소장구멍이라 한다.



사개맞춤과 주먹장이음 사례 (한림읍 대림리 초가)

제주에서는 사개맞춤을 고사리맞춤이라고 부르기도 하여 화살가지를 고사리라 하고 보의 승어턱을 고사리턱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개에 보의 승어턱, 즉 고사리턱이 끼어지고 보가 기둥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의 일정부분을 밖으로 내밀게 되는데 이를 보머리(파리대가리)라 부른다. 그리고 보의 승어턱(고사리턱)에 도리가 끼어지는 방식에는 주먹장이음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반턱맞춤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개맞춤과 반턱맞춤 (한림읍 대림리 초가)

• 지붕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와 도리로 결합된 기본적인 골격 위에 서까래가 얹혀지게 되면 본격적인 지붕작업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매집(볏짚을 썰어 넣어 반죽한 흙으로 지붕을 만든 집)이 대부분이서 서까래(서리)와 직각으로 가는 장작 혹은 대나무를 촘촘하게 엮는데 이것을 산자(제주에서는 서슬 혹은 서실)라 한다. 그리고 그 나무를 서실목(서슬목)이라 한다. 이때 산자 위에 알매(볏짚을 썰어 넣어 반죽한 흙. 제주에서는 고데라 부름)을 얹힌다. 알매를 하지 않은 집은 건새집이라 한다.¹¹⁾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매 위에 자연적 초재(草材)인 새(모, 茅)을 얹힘으로써 마감된다(p.99와 p.100의 박씨초가 안거리의 종·횡단면도의 지붕 접선부분 및 p.103의 사진 참조). 일반적으로 재료의 특성상 2년마다 한번씩 새롭게 있는데 박씨초가의 경우 2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붕의 새를 잇는다고 한다. 새를 폐고 그 위를 새줄로 그물처럼 엮어맨 지붕은 제주초가의 특징적인 의장적 요소이며, 지붕위에 부는 거센 바람에 대항하여 지붕을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것이다.



종도리(상모루) 위에 서까래(서리)를 걸고, 그 위에 대나무를 산자로 사용해 조밀하게 엮은 후 알매로 덮은 지붕 모습
(한림읍 대림리 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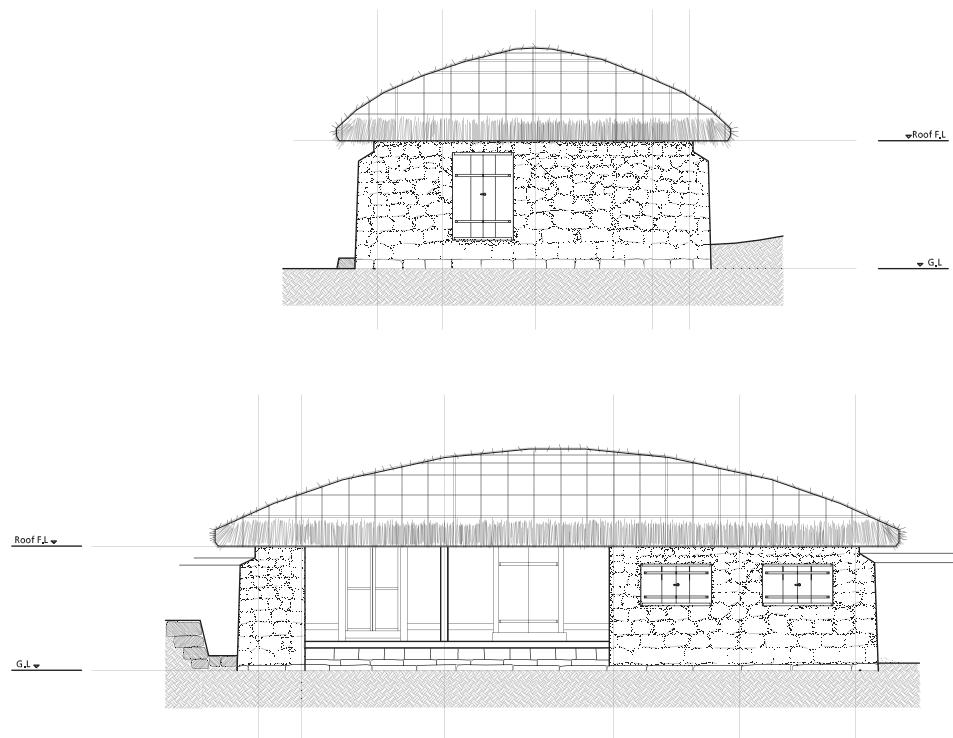
박씨초가 밖거리의 지붕 처마아래에 단단히 고정된 새줄

11) 김홍식, 박태순, 임재해, 황현만. (1991). 초가(한국기충문화의 탐구 4). 열화당, p.196

일반적으로 새줄은 동서(東西)에 따라 구별되는데, 동쪽지역은 3cm내외인 반면, 서쪽지역은 4cm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지붕의 중후감을 준다. 제주 전통건축의 가치와 기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옥의 활용과 교육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제주 초가의 숫자가 급감하여 새를 재배하는 면적도 줄어 지금은 새를 구하기도 어렵고 지붕의 새를 이을 장인(匠人) 확보도 쉽지 않은 상태다.

지붕을 이을 때는 자(子), 오(午), 둠(卯), 유(酉) 의 천화일(天火日)을 피하여 대체로 10-12월초 사이에 지붕을 이었다. 만일 천화일에 지붕을 손보게 되면 집안에 화재, 우환이 생긴다고 믿었다.



안거리 정면도 및 우측면도의 축담 (현황)

©국가한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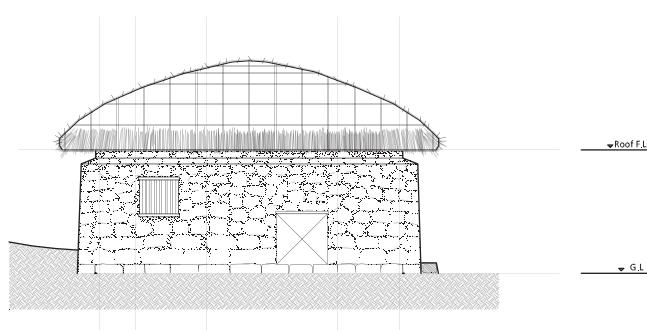
©국가한옥센터

동산에서 바라본 안거리의 지붕과 좌측 축담

• 벽체

일반적으로 제주초가의 외벽은 나무와 흙으로 축조된 주벽체와 자연석 현무암으로 축조된 외부 벽체(덧벽)로 구성된 이중벽이다(p.100의 박씨 초가 안거리의 종단면도의 벽체 점선부분 참조). 그리고 주벽체의 기둥은 가시나무, 참나무, 괴목 등의 온대상록수를 사용하였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대나무 혹은 잣나무 가지를 새끼로 엮어서 진흙을 바른 후 마감하는 방식이다.

외부 벽체는 구조와는 관계없이 암회색 다공질 현무암을 막쌓기법으로 축조되어 있다. 현무암으로 마감된 외벽은 목구조에 가해지는 제주의 강한 바람에 견디기 위한 보호막이 주 기능이지만 의장(意匠)적으로는 두텁고 완만한 곡선의 지붕을 떠받치는 제주초가 본체의 중후함을 준다.



©국가한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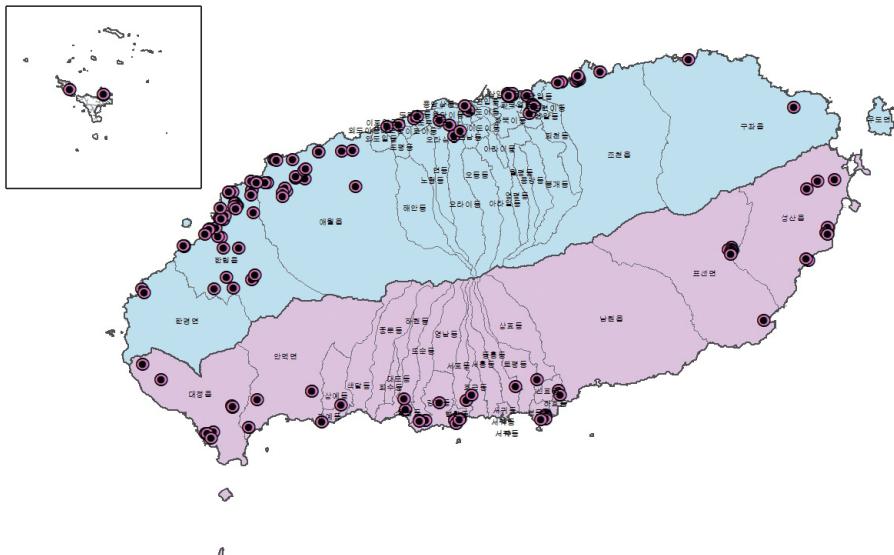
©국가한옥센터

현무암 벽체와 창문

3. 박씨초가의 건축자산적 가치

1) 제주도의 목구조 건축물 현황

제주도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1945년 이전에 세워진 목구조 건축 8,656건이 남아 있다. 이는 전체 건축물의 약 5.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들 목구조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162건이다. 162건의 목구조 건축물 중 상당수는 한림읍과 애월읍에 밀집되어 있고, 이외에 대정읍, 법활동과 제주시 동 지역인 화북일동, 도련이동 등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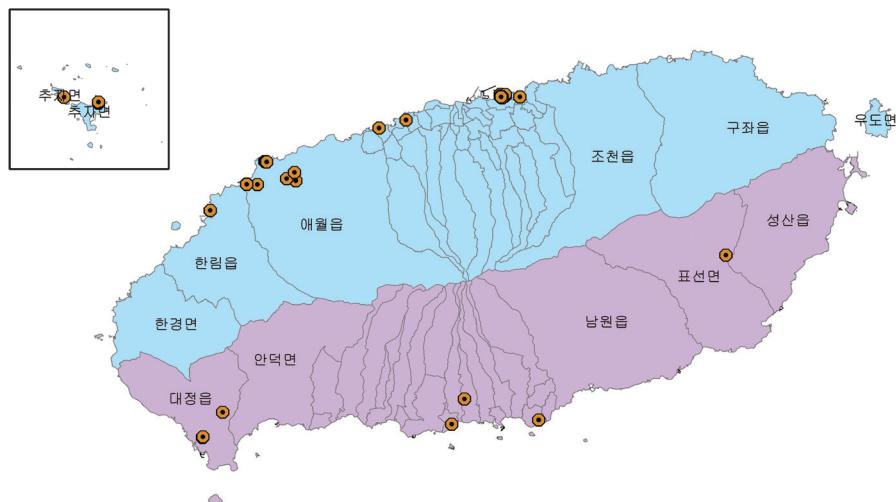
최종선정된 목구조 건축자산의 지역분포(N=16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40

162건의 목구조 건축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17년 기준 100년 이상 된 목구조 건축(1919년 이전 건축물)은 총 33건이고, 1930-1945년 사이에 건축된 목구조도 114건이나 된다. 이는 제주의 전통적인 한옥과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은 목구조가 여전히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중에 10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다시 지역별로 추려보면, 애월읍 애월리와 금성리, 화북일동의 화북진성 주변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마을의 역사적 깊이와 차이를 가늠하게 한다.

제주도 목구조 건축물의 연대별 분류 (2017년 기준)

연대	건수
1900년 이전	29
1901-1909년	1
1910-1919년	3
1920-1929년	15
1930-1939년	76
1940-1945년	38



건축자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선정된 목구조 중 100년 이상 된 건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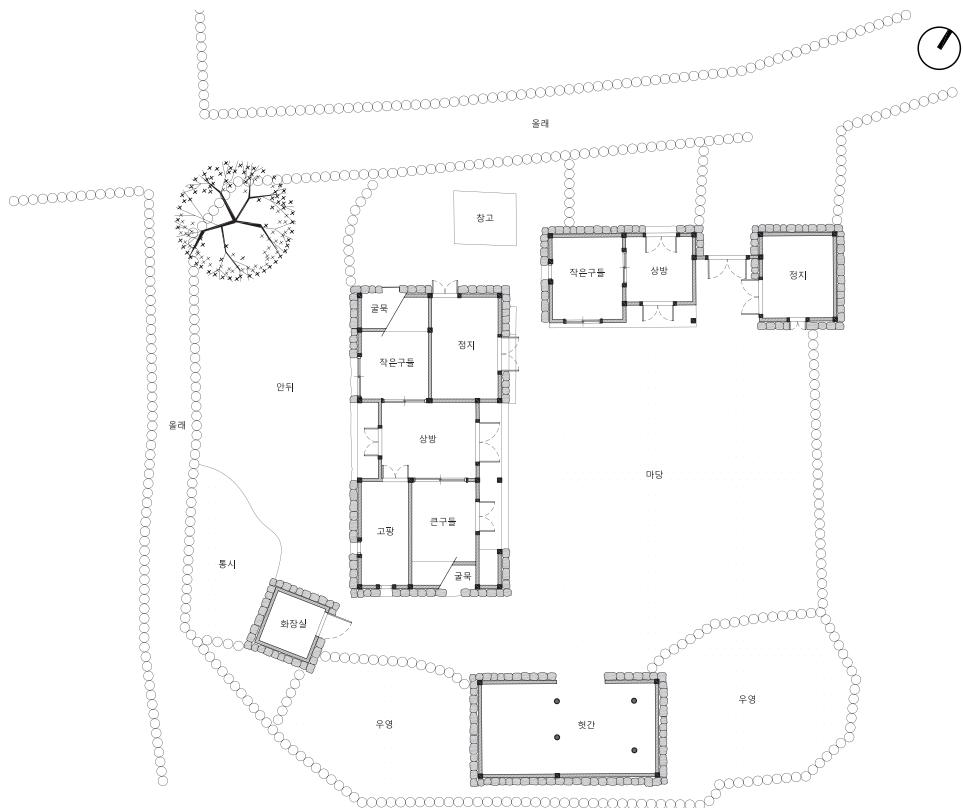
©김태일

162건의 목구조 건축물 중에는 신촌리의 와가와 같이, 외형과 내부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는 목구조 건축도 제한적인 숫자이지만 제주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촌리 와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건축물이지만, 제주 한옥의 전형인 안거리와 밖거리 배치형식의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원래 안거리와 밖거리는 모두 와가였으나, 밖거리는 지붕 보수를 거쳐 금속기와로 변형되었다. 안거리 지붕은 물매가 얇고 그 기와는 크고 둔탁해 무게감이 있다. 특히 암기와와 숫기와의 틈막이를 흰색 회(灰)몰탈로 단단하게 접착시켰는데, 기와와 흰색 회몰탈이 묘한 질감대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축벽 현무암의 짙은 색과 흰색 회몰탈과도 질감대비를 이룬다. 또한 축벽쌓기를 치마 끝에서 35-45cm정도 띄운 높이까지만 쌓아 비바람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붕과 벽체 재질의 명암 대비에 의해 지붕을 더욱 명쾌하게 보이게 만드는 의장적 기능을 가지는 등, 제주 한옥의 전형적인 요소들이 엿보인다.



중후한 무게감의 지붕과 현무암으로 구성된 벽체의 제주 와가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신촌리 와가)

반면 좁은 올래를 따라 안쪽에 위치하는 조천리 초가는 이문간과 안거리, 헛간이 ㄷ자형으로 배치된 전형적인 제주 초가형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이 올래 초입의 큰 팽나무와 잘 어우러져 독특하고 여유로운 생활 경관을 보여준다. 안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측면에 위치한 정지가 전면에 배치되고 작은구들(방)이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문간과 안거리, 헛간으로 구성된 ㄷ자형 배치 (조천리 초가)

©박용준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학술용역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p.882의 도면을 참고해 재작성



©김태일

좁은 올래와 울담, 그리고 팽나무와 조화를 이룬 제주 초가는 오랜 시간의 축적을 보여주는 생활경관이다. (조천리 초가)

2) 박씨초가의

건축자산적

가치

세움터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건축연도만으로 본다면 박씨초가는 1947년으로 등록되어 있어 75년의 연령을 갖는 건축물이다. 1970년대 건축물 대장을 일관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별건축물의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주자의 구술과 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박씨초가는 약 180-200년 정도의 건축연령을 갖는 목구조 건축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건축연령 200년의 건축물이 많지 않은 ‘희소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파고(波高)를 넘기며 살아온 삶의 이야기, 건축 속에 녹아 스며든 삶의 ‘역사성’, 번성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노후화, 쇠퇴화가 진행되면서 잊혀진 지역이 되어 버린 원도심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활용성’ 측면에서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박씨초가에 대한 건축자산의 가치를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희소성’의 가치이다. 사회문화적 가치를 공동체형성과 사회문화의 이해, 활성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

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다. 제주의 역사, 문화, 사회의 정체성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원도심의 유일한 초가로서 희소성과 문화성을 갖고 있는 건축연령 200년 된 초가이다. 제주지역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제주 초가를 제외하고 건축연령 200년 이상 되는 제주 초가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비지정 제주 초가들은 각종 개발로 인해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도심속에 남겨진 유일한 제주 초가인 박씨초가는 그래서 더욱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씨초가 마당에 조성된 작은 동산의 울창한 나무와 녹지공간은 안거리와 밖거리의 배치와 조화를 이루어 콘크리트 건축물로 둘러싸인 원도심 경관과 대비되는 오래된 역사경관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역사성’의 가치이다. 건축은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축물이자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결과물이다. 이런 점 때문에 건축은 비바람을 피하는 단순한 물리적 구축물의 기능을 벗어나 국가와 지역의 시대성과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구축물이자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강해서 건축문화라고 부른다. 건축문화는 눈에 보이는 실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살아있는 실물의 모습과 촉감, 그리고 공간적인 분위기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랜 세월을 견디며 생명력을 유지해온 박씨초가는 구축 당시의 건축기술적 수법과 재료가공 기법, 주거공간의 형성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뿐만 아니라 생활사적 측면에서의 가치도 내포하고 있는 건축자산이기도 하다. 역사적 가치평가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 시대성과 원형성, 희소성이 주요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박씨초가는 해방직후 혼란기 제주사회에서 초대 제주읍장이며 4·3사건진상위원회를 통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석촌 박명효과 관련된 주택이라는 점과 4대째 거주를 하며 초가를 유지관리하며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활용성’의 가치이다. 박씨초가가 위치해 있는 장소는 원도심지역으로 주변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박씨초가가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지역

자원 활용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활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건축자산의 보전과 조성, 활용을 통해 주민 및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일상생활의 가치,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 존중위에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고유의 환경이 연계되는 지역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자산 진흥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리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구축물을 건축자산으로서 인식하고 보존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수법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사회인식 변화와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 관련부서와 마을만들기 관련부서, 문화예술관련 부서등 과도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부서간의 협력, 연계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건축자산 진흥 관련 사업은 도시건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박씨초가와 같은 건축자산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협력을 통한 일상생활의 가치와 지역적 가치 구축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배치도
현황



주1: 현황 및 추정도면은 2021년 실측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음
주2: 도면의 저작권은 국가한옥센터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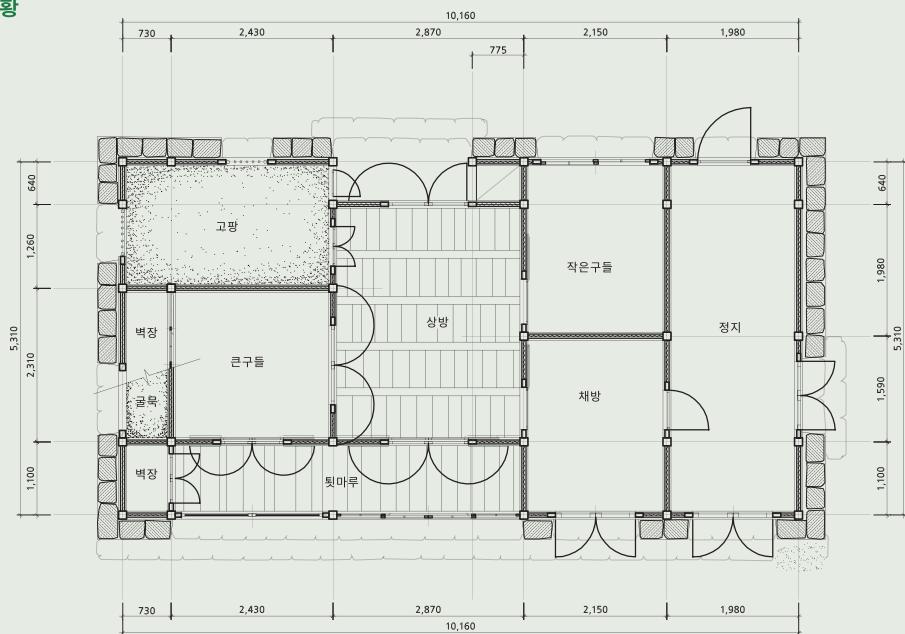
배치도

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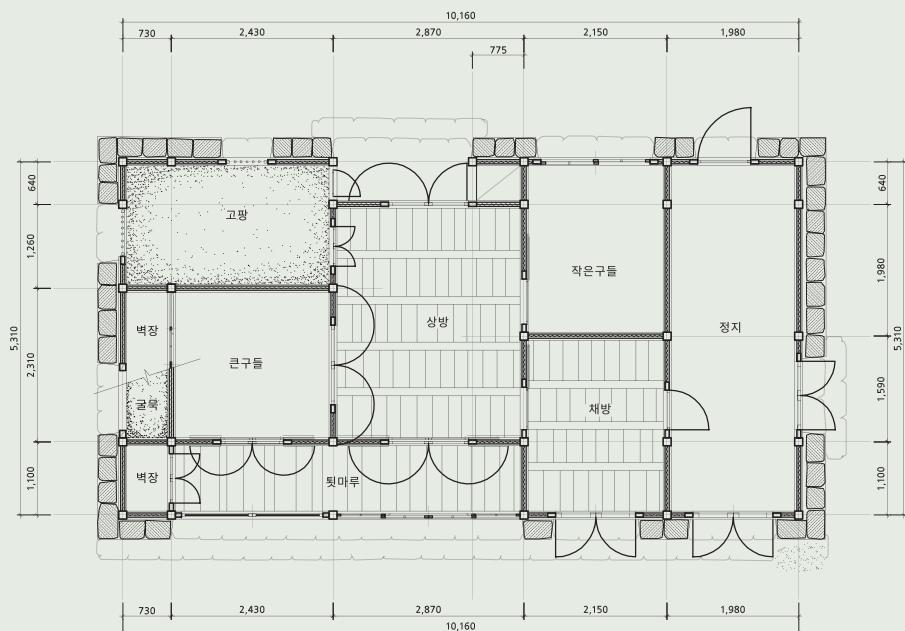


안거리 평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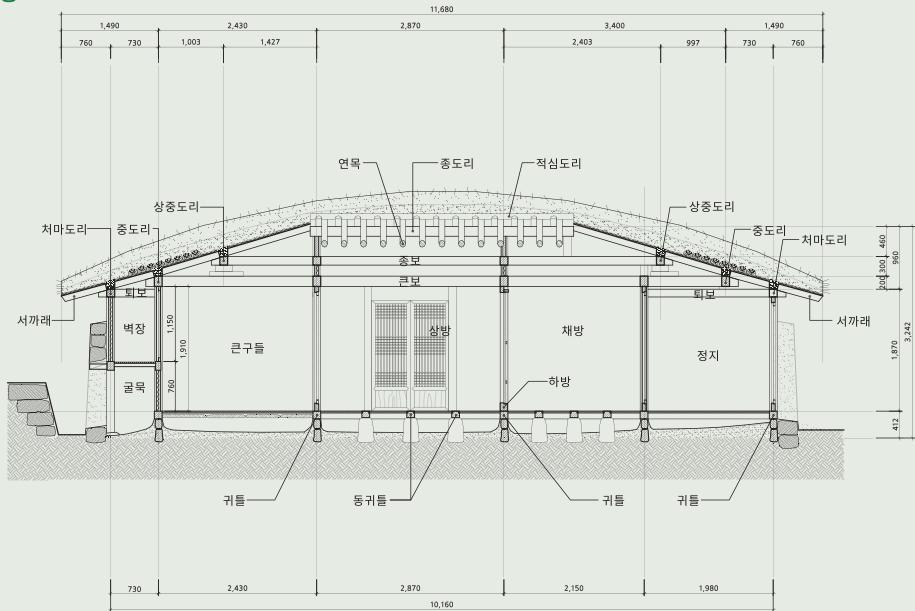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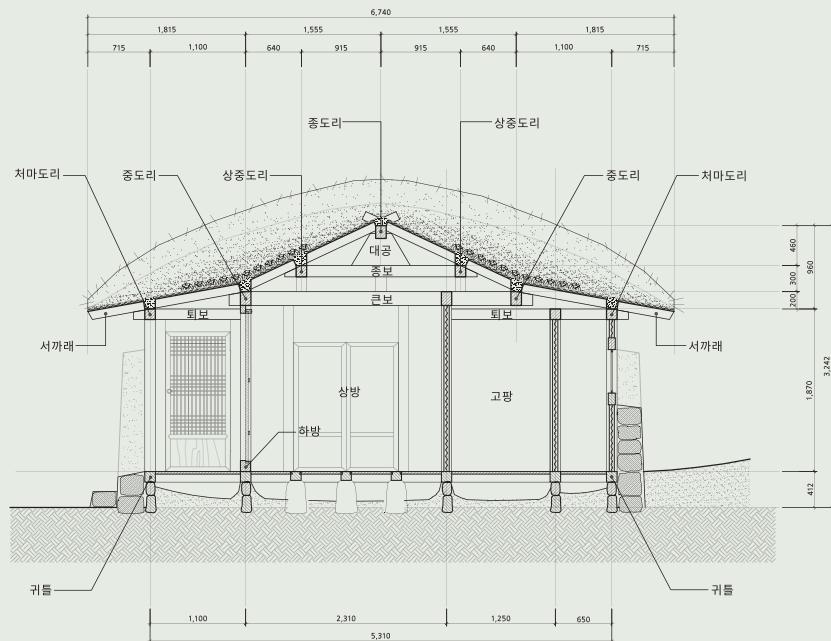
안거리 횡단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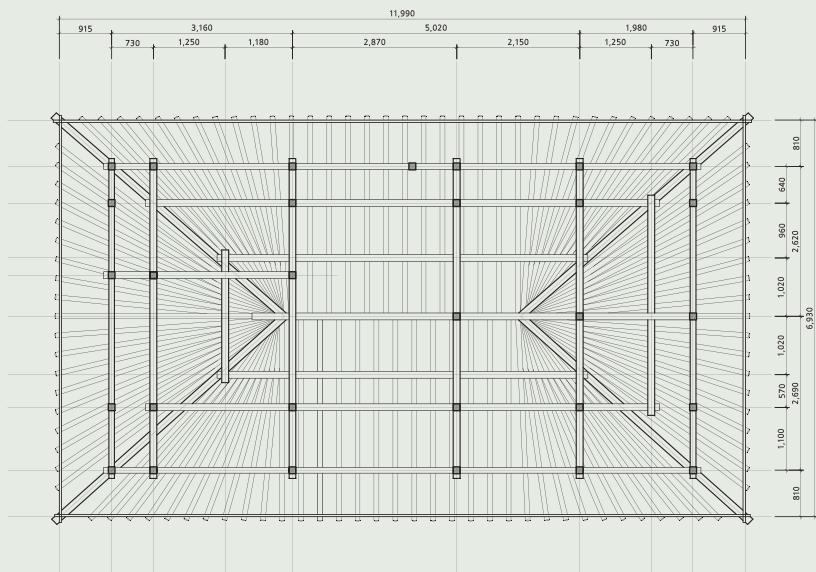
안거리 종단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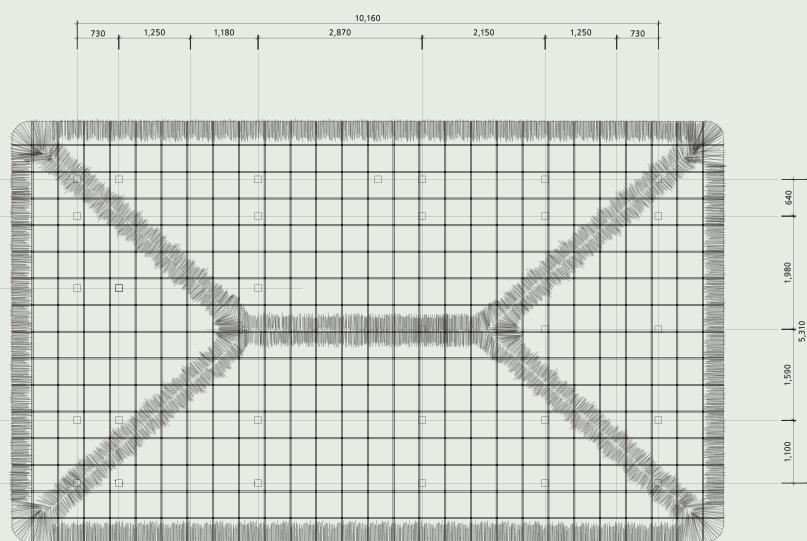
안거리 양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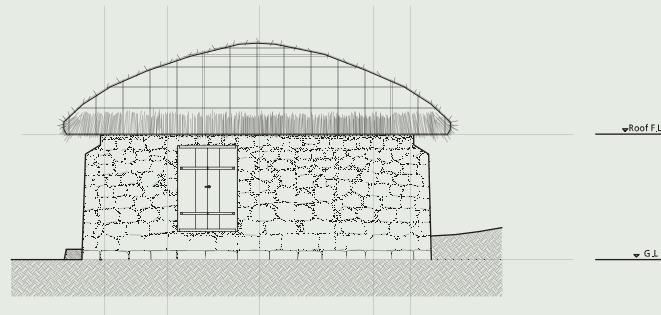
안거리 와복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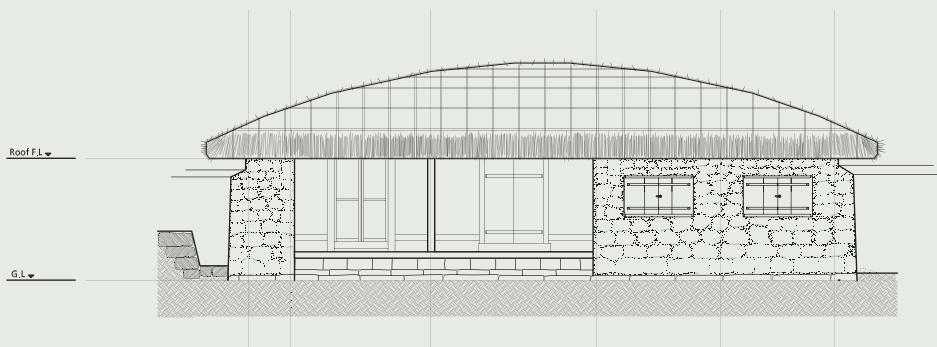


안거리 입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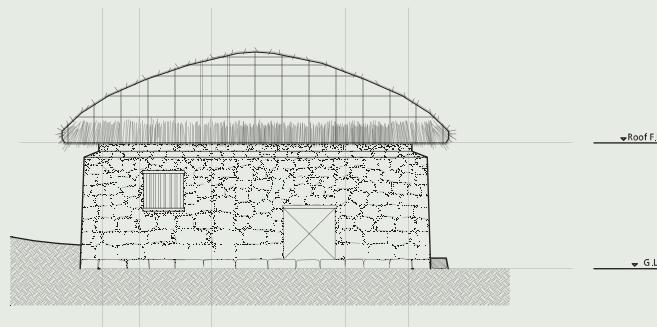
우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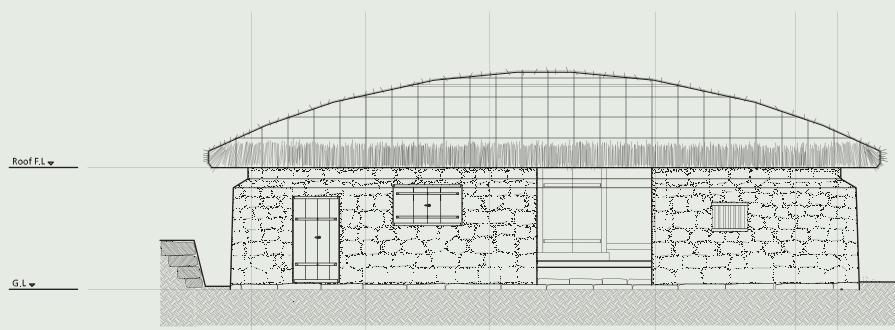
정 면 도

안거리 입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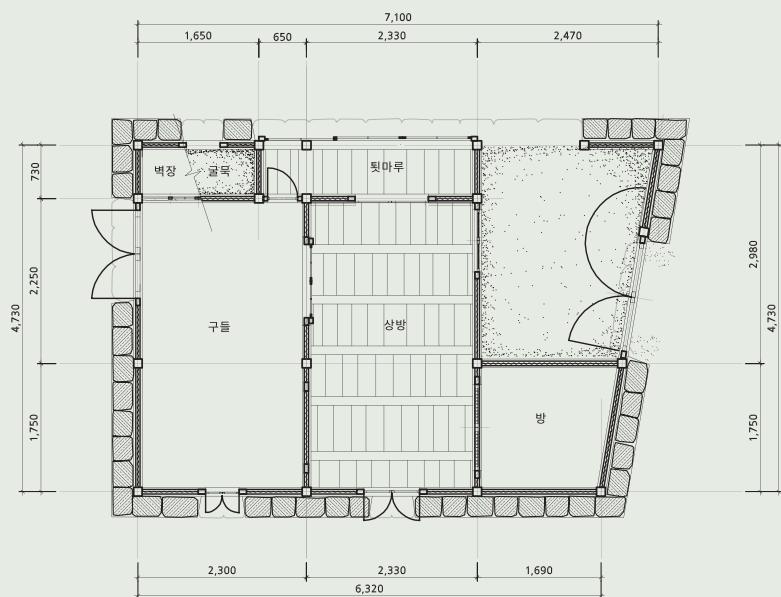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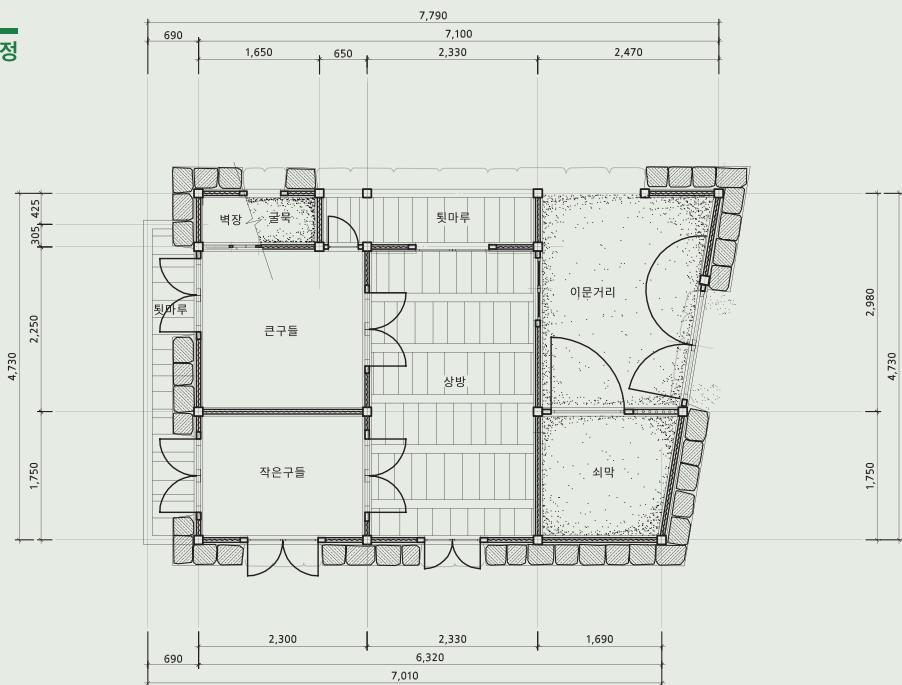
배면도

밖거리 평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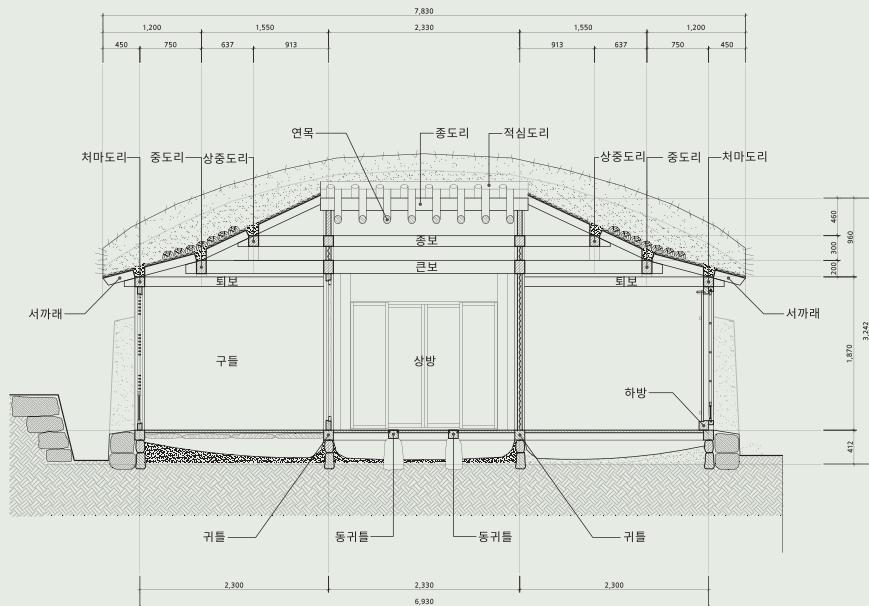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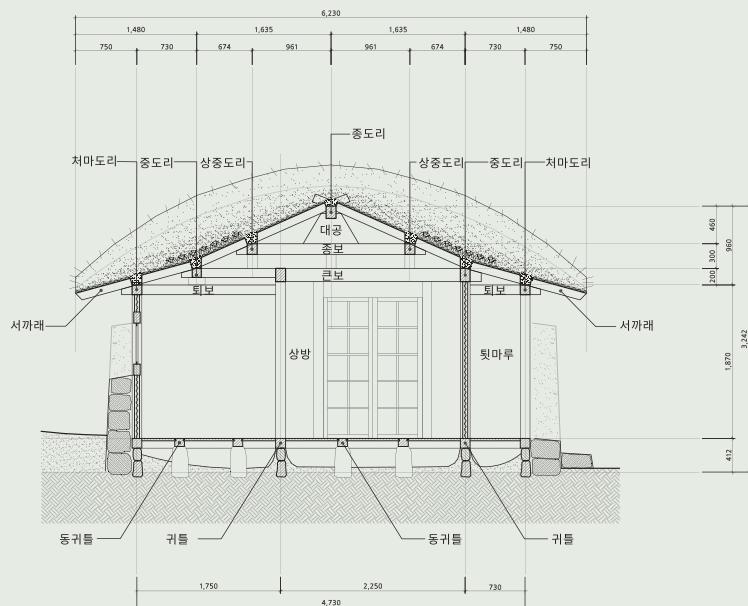
밖거리 횡단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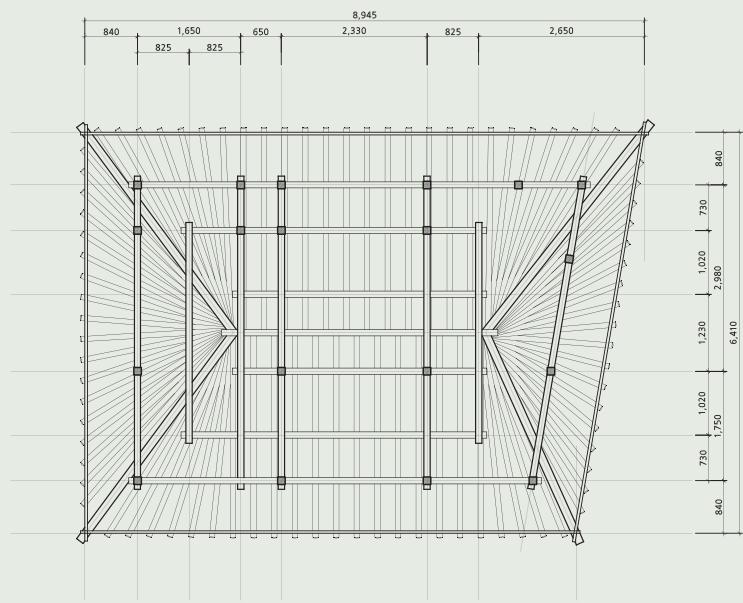
밖거리 종단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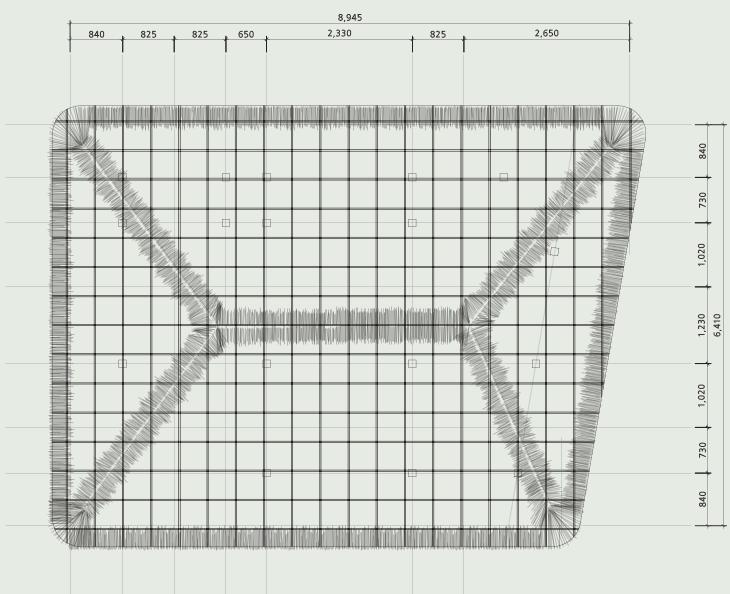
밖거리 양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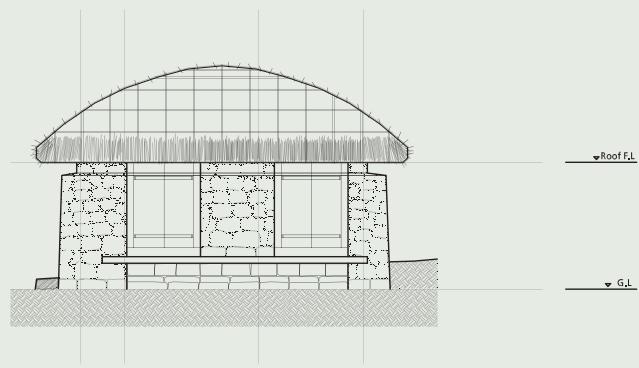
밖거리 와복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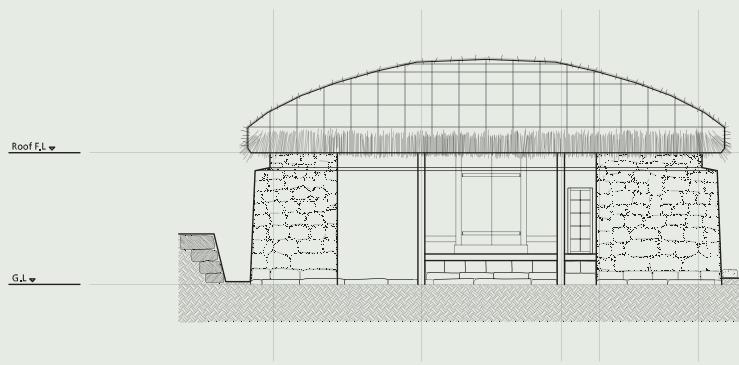


밖거리 입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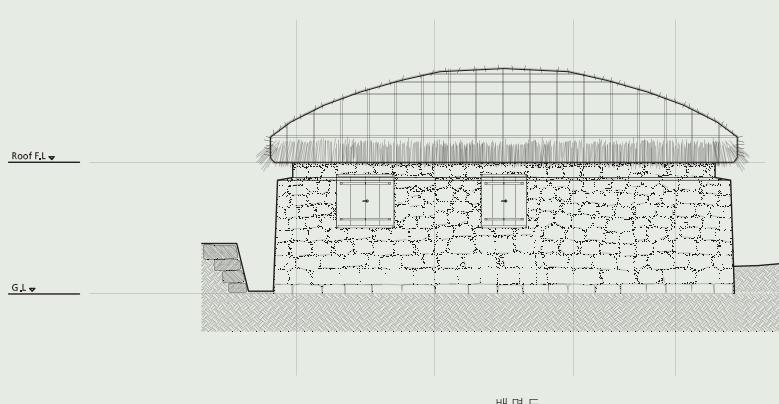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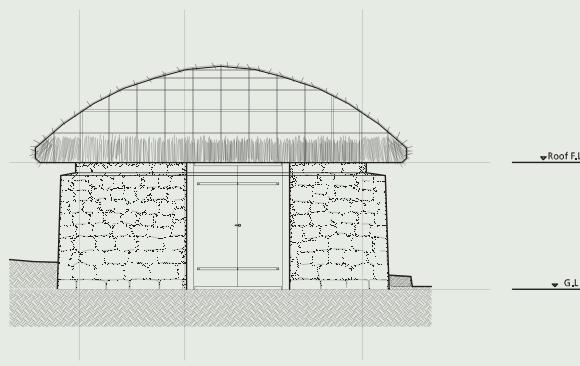
우측면도



정면도

밖거리 입면도

현황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2019).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주생활, 국립민속박물관.
- 김미령, 조성기. (1998). 제주도의 기후적 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1).
- 김찬흡. (2016). 제주인물대사전. 금성문화사.
- 김태일. (2021). 제주원도심으로 떠나는 건축기행. 각.
- 김홍식, 박태순, 임재해, 황현만. (1991). 초가(한국기총문화의 탐구 4). 열화당.
- 제주도. (1987).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기억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202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학술용역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IV

제주 한옥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언

1. 박씨초가의 활용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고기봉 건축디자인연구소 사유 대표

2. 원형과 변화의 조율

이창규 · 강정윤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대표

3. 한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활용

국가한옥센터

1. 박씨초가의 활용

1) 활용의 전제 및 접근

제주는 지역성이나 향토성과 같이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건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와 깊이 관련된 4·3사건,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정치·사회적 이슈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제 자유도시는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도시라는 개념으로서 제주가 활동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을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제주 고유의 모습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켜나가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제주 건축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시기이다. 이것은 이 땅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일의 뜻이기도 하다.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주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 활동의 축척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갖는 흔적, 즉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원도심에서 오랜 세월 옛 모습을 지켜온 박씨초가는 요즈음 보기 어려운 제주 초가라는 점뿐만 아니라, 초가를 끊임없이 지켜온 박씨 일가의 삶 자체가 제주역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건축자산이다.

현재는 외부공간을 비롯해 지붕 새의 교체 등 비교적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유주 변경 등으로 인해 박씨초가를 지금과 같이 보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이 박씨초가를 매입하고 공공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박씨초가 주변에는 예술공간 이야, 제주 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위치하고, 옛 도시재생센터로 활용되었던 곳을 한짓골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어 전시와 교육에 초점을 둔 활용, 그리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활용의 가능성이 높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박씨초가 주변의 인프라 현황



©김태일

따라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건축자산으로서 인식하고 보존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둘째,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 관련부서 등과의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과 연계성은 자산으로서 건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가치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오랜 세월 속에 생명력을 유지해온 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방향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적 향유를 공유할 때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며, 자산으로서의 건축적 가치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계성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구조물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박씨초가의 보전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초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의 활용이 중요하다.

2) 활용방안의 모색

우리는 이른바 문화유산을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 유형적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구축되어온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다. 특히 건축에 대한 인식에 있어, 문화유산이 존재할 수 있는 혹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구조체’라는 인식과, 구조체에 의해 구체화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형태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에서의 견해이다. 여기에서 ‘공간’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에 의해 구축물의 기능을 실현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와 사회적 요구가 변화해가면 공간 그 자체는 남게 되거나 새로운 의미와 요구에 따라 전화(轉化)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공간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간을 지상에 구체화해 정착하게 하는 물체로서 구조물이 존재한다. 건축물이 내구성을 상실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역사성과 기념비적인 성격이 강한 구축물일수록 구조체의 내구성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조체가 노후화하면 그 건축물은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속성도 있다. 모든 구축물에는 역사적으로 각 시대 사람들이 형성해온 양식, 형태와 기술, 사회적 요구에 의한 제작의 필연성이 스며들어 있다. 이쯤 되면 구축물을 만들어낸 사회적 존재의 필연성만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구조체는 소실되어 없어져도 건축은 생존하게 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박씨초가의 ‘구조체’와 ‘공간’적 가치를 높이고 그 오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구조체의 원형을 잘 보전하고 있는 박씨초가에 새로운 기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마을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박씨초가는 제주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석촌 박명효 집안이 4대에 걸쳐 거주했던 집이다. 나아가 180-2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제주 한옥이라는 측면에서, 원도심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에 남은 유일의 초가라는 희소성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또한 원도심을 무대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지역 사람들에게는, 박씨초가를 비롯한 주변 일대야말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의 공간, 추억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과 추억들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좋은 도시, 문화도시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억의 공간, 추억의 공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문화도시, 역사도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활용방안의 하나로 마을역사관 형식으로 건립을 추진

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을 변천사를 소개하는 기록관으로서 그리고 원도심의 변천도 담아내는 기록관으로서 박씨초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몰항골을 중심으로 소공원 +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박씨초가가 위치한 주변 일대는 과거 이아가 위치했던 곳이다. 옛길인 몰항골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박씨초가와 연결되어 주요 도로와 이어져 있다. 또한 주변에는 빈집을 철거해 조성한 소공원이 있고, 한짓골 생활협동조합이 과거 제주도 도시재생센터로 활용되었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기존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주변을 공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박씨초가를 레지던시 공방, 접방 등 공공적 성격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청년창업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박씨초가에 입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옛길의 빈 공간들을 확보해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녹색거리를 조성해 도시 어메니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도시적 관점에서 주맹이 공원(쌈지공원), 그늘자리(수목 식재), 벤치 조성 등을 통해 거리에 쉼터를 조성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여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된다.

제주 한옥 보존사업을 위한 전시·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주 한옥은 제주사람들이 생활해온 양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이다. 그리고 제주 한옥의 보전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원도심에 남아 있는 유일한 초가인 박씨초가를 원도심 내 주요 시설들과 연계해 일반인들에게 제주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용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되어 가는 장인들의 축조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 및 전시공간으로의 박씨초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박씨초가의 안거리와 밖거리뿐만 아니라, 인접한 한짓골 생활협동조합과 예술공간 이아, 창업보육센터 등의 기능과 공간을 활용해 제주 한옥 보존사업을 위한 교육과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주 한옥이 가지는 거주문화의 체험을 통해 정서적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전통건축에 현대

적 삶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시야를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지역소득 창출의 기대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제주건축자산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이제 건축이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문화적 척도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건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논의도 거론되고 있다. 박씨초가는 제주 한옥으로서의 역사성과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원도심의 건축자산이라는 상징성도 내포한다. 따라서 제주건축자산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건축자산을 조사·기록하고 등록·관리하는 기능, 제주다운 도시건축에 대해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음으로써, 건축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원형과 변화의 조율

1) 서서히 진화하는 제주의 집

제주의 서쪽 마을 온평리를 답사하는 중이었다. 지붕이 헐려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가옥을 실측조사 하다가 날이 저물어가기에, 며칠 후 재조사를 계획하고 돌아왔다. 나흘 후 다시 간 곳에서 깜짝 놀랄 광경을 마주했다. 오랫동안 그곳을 지키고 있었을 집이 헐리고 집터마저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실측조사 당시, 목구조 상태가 꽤 좋아서 대수선 중일 거라 생각했던 집은 사실 철거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다. 1년 후 다시 방문한 곳엔 아무 표정 없는 건물이 건조하게 들어서 있었다.



기존 집



사라진 집

개발이 우선시되고 있는 근래, 제주의 집은 이처럼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급속한 변화는 제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4.3 때도 겪었던 일이다. 중산간 마을 소개령이 내려져 중산간 집들의 약 95% 정도가 모두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중산간 아래 마을들에 남았던 집들만 겨우 남아 그 명맥을 가늘게 잇고 있다. 생활력이 강한 제주민들은 4.3사건 이후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주거의식을 발판으로 해 근대화, 산업화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 발전된 기술 등을 동원해 다시

금 시대에 어울리는 제주의 집을 지어 살아왔다. 원형의 초가집에서 단순하게 지붕을 ‘개량한 경사지붕집’, 낮은 천장고를 보완하기 위해 지붕과 벽을 높인 ‘높아진 경사지붕집’, 집이 높아져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지붕 주위로 파라펫을 두른 ‘경사지붕 파라펫집’, 보일러와 수도가 들어옴에 따라 부속실을 평슬라브로 증축해 외부 계단을 통해 상부는 장독대 등으로 사용한 ‘덧붙여진 평슬라브집’, 방수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과감하게 지붕을 벗기고 건축 계획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기존 집들의 형상을 슬며시 가미한 ‘평슬라브 눈썹지붕집’, 발달된 다양한 기술로 거친 풍토를 견딜 수 있게 만든 ‘평슬라브 2층집’ 등 집의 외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레 변화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



©에이루트

원형의 초가집



©에이루트

개량한 모임지붕 집



©에이루트

높아진 모임지붕 집



©에이루트

경사지붕 파라펫 집



덧붙여진 평슬라브집



평슬라브 눈썹지붕집



평슬라브 1층집



평슬라브 2층집

2) 제주집의 정체성

외형은 변화했어도 그동안 지어진 제주의 집들을 살펴보면 제주집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제주의 집은 모여진 풍경이 아름다운 집이다.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와 같이 여러 채의 집들이 올망졸망하게 모이고, 그 주변으로 우영밭, 안뒤 등 외부공간을 두어 하나의 집을 이루는 형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느슨하게 공유하는 공간이다. 제주의 올래는 함께 사용하는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적 영역을 내주어 드나듦을 여유롭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는 더욱 확대되어 이웃, 마을과 함께 사용함으로 풍요로운 마을을 만든다. 세 번째로 땅과 가까운 집이다. 제주의 집은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낮은 집을 짓고 빌레, 둔덕 등 기존 지형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 풍요롭게 배치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로 극한의 기후를 견디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 여러 채의 집과 수목, 돌담으로 바람을 막아 따뜻한 마당을 만드는 것, 목구조에 돌을 덧댄 형상, 외벽과 일체화

된 기단, 비바람을 막고 빛을 조절하는 풍채, 투박하고 묵직한 디테일 등은 비바람과 강한 햇빛, 태풍 등의 악천후를 견뎌온 제주인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들이다. 다섯 번째로 기분 좋은 어두움을 담고 있다. 제주는 한반도에서 위도가 가장 낮아 햇살이 강렬하다. 집 어디에서든 향에 상관없이 빛이 들어오기에 눈의 피로를 낮추고 아늑한 집을 만들기 위해 내부는 어스름하게 만들곤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집은 제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근검절약하는 정신인 조냥정신을 바탕으로 검박하게 지어진다. 뽐내거나 과도한 형상을 지양하고 자신의 삶의 수준에 맞추어 소박하게 지으며, 이는 무덤덤하고 투박한 그러나 풍토를 견뎌내는 디테일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의 집은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하고,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기도 하며 삶과 함께 조용히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어지는 사례들을 통해 제주 가옥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제주 가옥을 이루는 주거 의식과 그 형상이 어떻게 활용되고 변화되어 가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에이루트

모여 있는 풍경의 아름다움



©에이루트

느슨한 공유, 올래



©에이루트

땅과 가까운 낮은 집



©에이루트

따뜻한 마당



기분 좋은 어두움



묵직한 투박함

제주의 동쪽 마을, 온평리

온평리는 제주 동쪽바다 곁에 있는 해안마을로 부지가 낮고 평坦하며 일조량이 많은 양명한 마을이다. 이곳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동시에 밭을 일구고 과수원을 가꾸기도 한다. 개별 가옥들은 안거리, 밖거리, 창고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밖거리를 개조해 임대를 주거나, 창고를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온평리에서는 앞서 말한 제주의 다양한 집들을 볼 수 있다. 마을을 이루는 집들은 시대상, 사회상과 같은 보편성과 더불어 각 개인의 삶이 담겨 특별함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살아 있는 느낌이다.



다양한 집들이 모여 있는 온평리

• 온평리 서동 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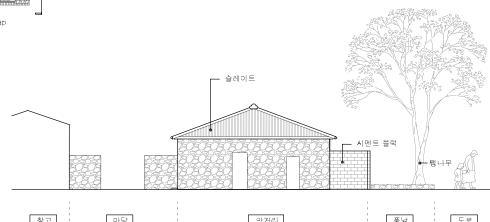
서동의 중심 길에 있는 가옥으로 골목에 면한 한 칸을 점방으로 쓰던 곳이다. 점방 앞 골목길에 폭낭이 있어, 이곳이 골목의 거점 공간으로 활발히 사용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안거리는 남향으로 제주의 전통적 형식을 따르며, 세 칸으로 된 집 양옆에 굴목이 덧붙여진 형태로 전통 목가구 방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구조와 더불어 마루판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일부 뜯겨진 부분에는 주춧돌이 드러나 있다. 집은 상방과 큰구들, 작은구들, 점방, 퇴, 굴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후 퇴칸에 미닫이문을 달아 현관과 실내 복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와서 많이 사라져, 보기 힘든 굴목과 살레, 장방 등 제주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잘 남아 있어 흥미롭다. 외관도 제주식으로 사면을 마감해 깊이감이 느껴지며, 점방 부분은 기능에 따라 바닥까지 내려오는 두 짹의 목재 미닫이문을 설치해 흔치 않은 입면을 하고 있다. 밖거리는 북향으로 시멘트블록을 쌓아 올려 목조 지붕을 얹힌 형태이다. 점방이 생기면서 부엌의 기능을 창고와 함께 밖거리에 조성하고, 훗날 욕실까지 실내화해 설치한 듯 보인다. 정지가 항상 안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이 집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옥은 집 앞의 폭낭과 더불어 제주식으로 축조된 점방의 특이한 입면이 어우러져 서동의 생활 문화 경관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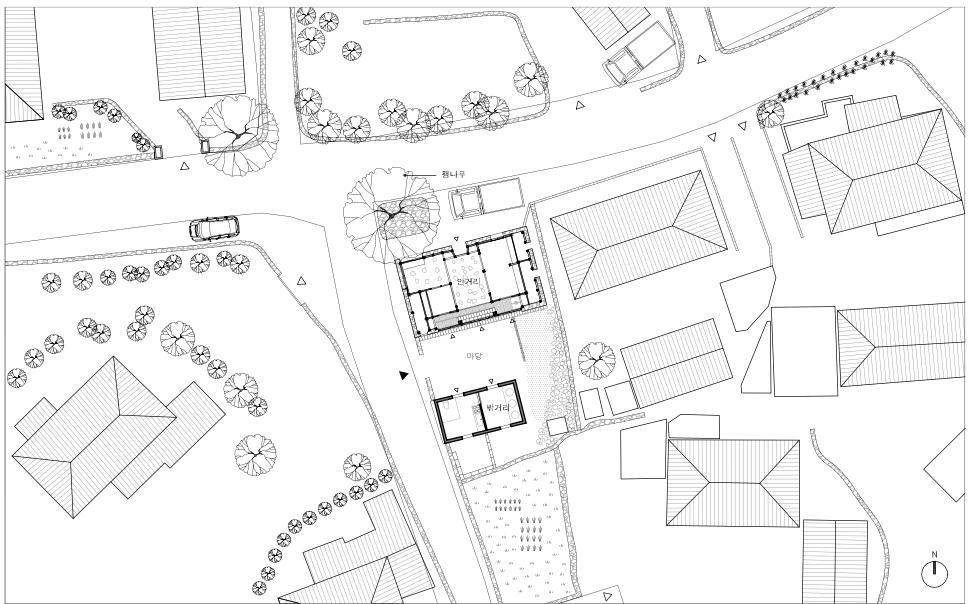
마을길에서 본 점방 모습
©에이루트



점방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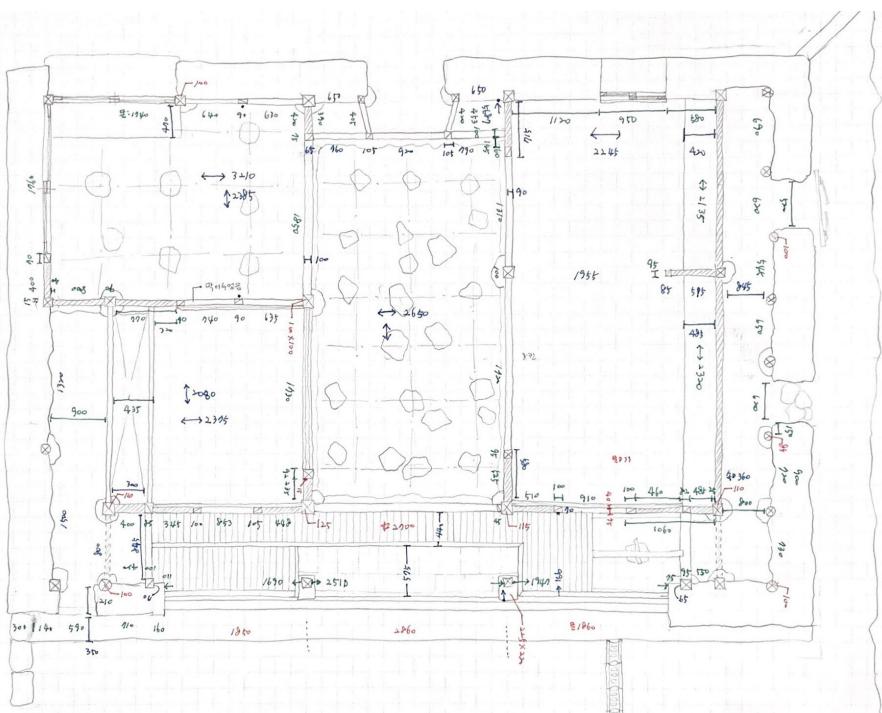


©에이루트



배치 평면도

©에이루트



실측도면

©에이루트



©에이루트

상방 마루를 받치는 돌들이 들어난 모습



©에이루트

마당에서 바라본 입면도

· 온평리 해녀 할머니집

서동의 중심길에 면한 집으로 안거리, 밖거리, 모커리 형식의 가옥이다. 밖거리와 모커리 사이에는 전통적인 통시도 남아 있다. 중심길에서 비교적 짧은 올래를 통해 집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며 대문 옆, 돌담 안쪽으로 오래된 나무가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고, 한켠에는 우영밭(텃밭)이 남아 있는 등 제주 한옥의 전형적인 배치를 따르고 있다. 안거리는 동향으로, 밖거리는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안거리는 네 칸으로 된 제주 한옥의 원형을 기반으로, 지어진 시대(1982)의 흐름과 기능에 따라 변화된 평면을 가지고 있다. 퇴칸에 네 짹의 미닫이문을 설치해 실내화된 현관을 두었고, 현관 뒤로 길쭉한 모양의 상방이 배치되어 있는 점, 상방의 한쪽 옆에 두 칸의 긴 방이 있고, 맞은편에는 안방과 부엌으로 통하는 간이 부엌이 놓여 있는 점 등이 그러하다. 첫 번째 대수선 때 벽체와 지붕을 들어 올려 높이를 확보했고, 두 번째 공사에서는 부엌에는 마당으로 드나들 수 있는 여닫이문을 설치해 사용의 편의를 높였고, 화장실은 연로한 건축주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세탁실과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쇠막과 창고로 쓰던 모커리에는 계단으로 오르는 장독대 모양의 물부엌이 덧달아져 있다. 밖거리는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또 하나의 살림채로 구성해 방과 정지, 창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거리보다 변형이 적어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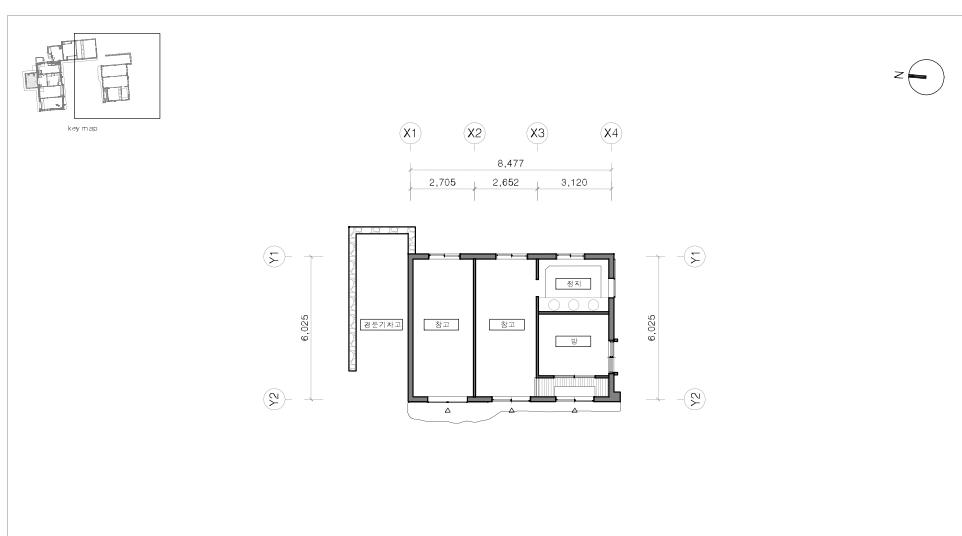
©에이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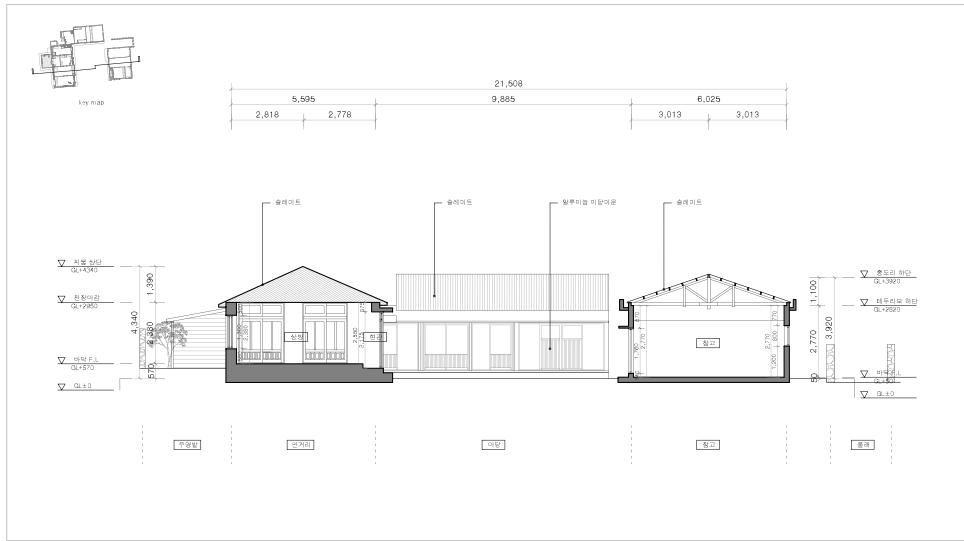
집의 전경



©에이루트

배치 평면도





입단면도

©에이루트



안거리의 내부



밖거리의 아궁이



밖거리의 창고

• 온평리 사라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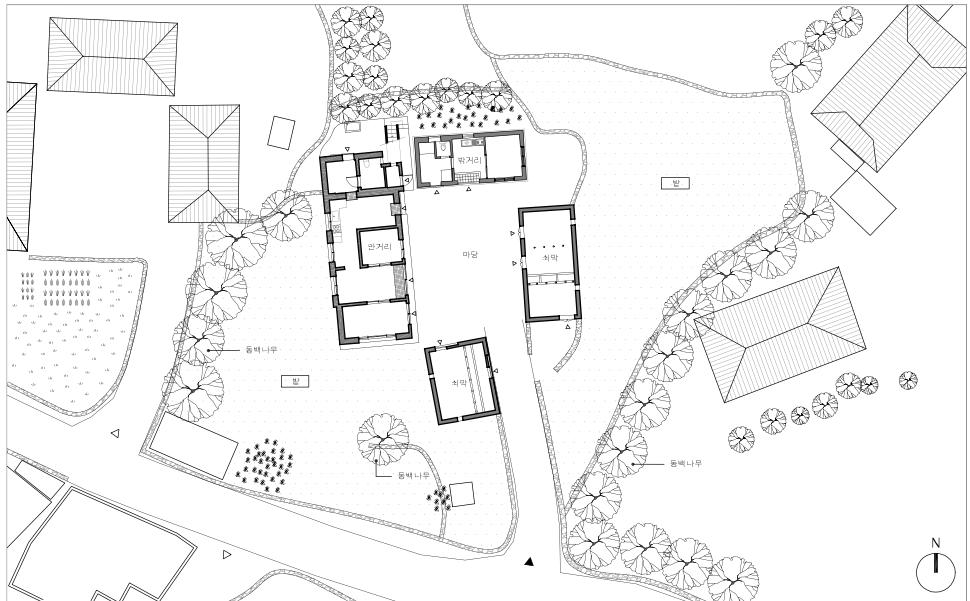
이 집은 중동에서 온평포구로 나가는 길에 위치한 가옥으로, 동백나무로 둘러싸인 깊은 올래를 가지고 있는 돌집이다. 안거리, 밖거리와 쇠막 두 채, 총 네 채로 구성된 집으로, 안거리는 동향, 밖거리는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첫 조사 때에는 동백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나 점차 수목이 베이고 철거가 진행되었다. 다행히 완전히 철거되기 전에 실측을 마무리할 수 있어 온평리에 있는 돌집의 구조를 조금이나마 기록할 수 있었다. 집은 네 칸의 제주 한옥의 구성을 따른다. 추후 필요에 따라 기능실을 덧붙인 안거리와, 방, 부엌, 욕실로 구성된 또 하나의 살림채인 밖거리, 그리고 두 채의 쇠막으로 구성된다. 안거리는 제주 전통 한옥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지어진 시대에 맞게 변화된 평면으로, 실내화된 현관과 상방, 두 칸의 긴 방과 한 칸의 방과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편한 실외 화장실을 대체하기 위해 추후에 화장실, 욕실과 창고를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밖거리 또한 세 칸의 전통 돌집을 화장실, 욕실과 부엌, 방으로 재구성해 또 다른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두 채의 쇠막에는, 소를 묶어두는 나무 기둥과 미장으로 만든 여물통을 두어 체계적으로 일정규모의 소를 키웠음을 알려준다.



마당 전경



진입 올래



배치 평면도

©에이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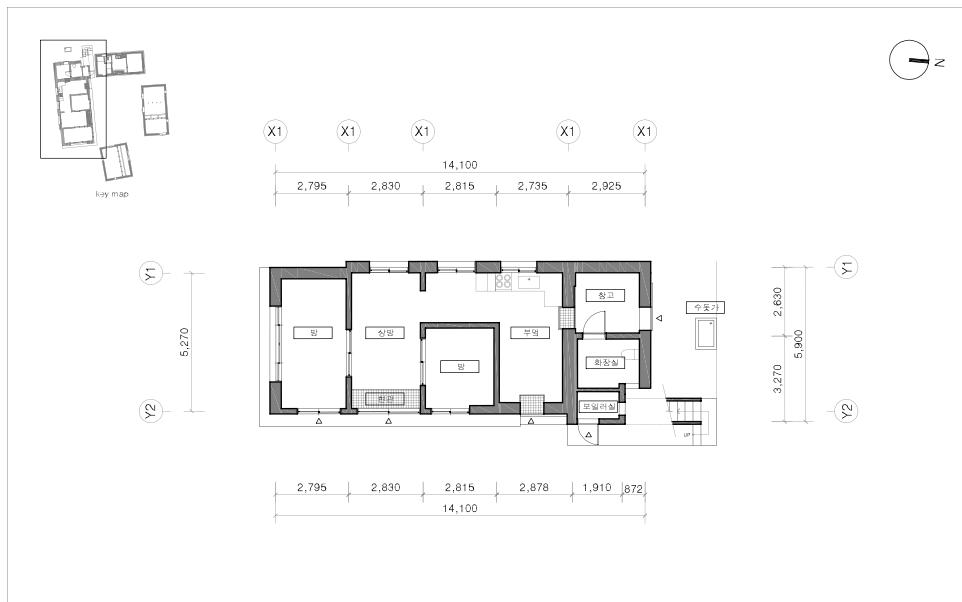


초가에서 지붕구조를 높인 쇠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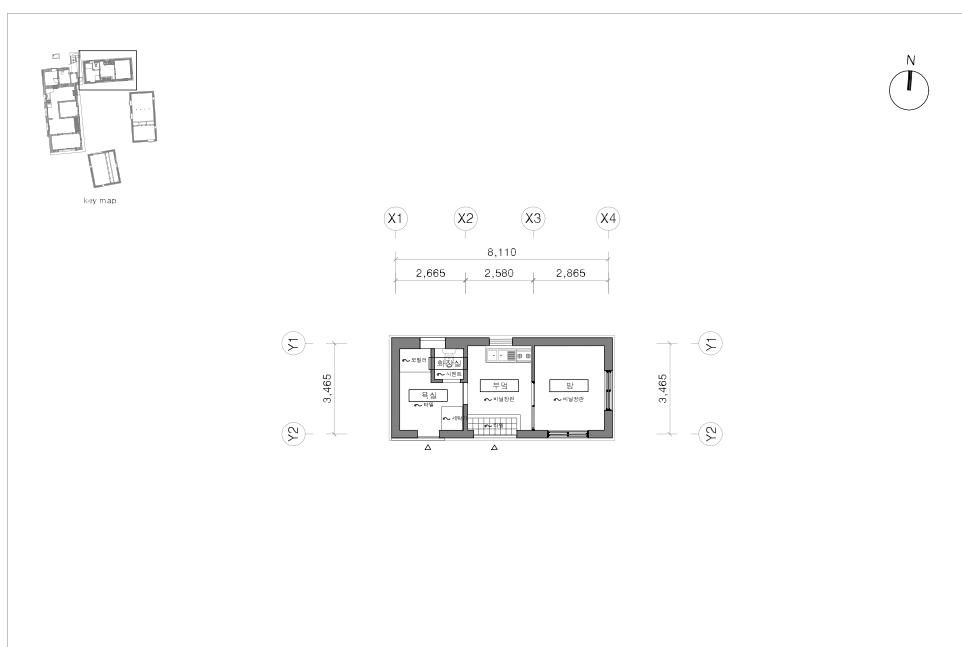
밖거리 전경

©에이루트



안거리 평면도

©에이루트



밖거리 평면도

©에이루트

두 개의 층을 가진 돌창고, 상명리 돌창고

제주 감귤 과수원은 저마다 하나씩 돌창고를 가지고 있다. 돌창고는 감귤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지어졌으며, 제주도민의 삶과 아주 가까운 건축이다. 또한 제주의 건축과 풍경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건축으로 근대 건축자산으로서도 매우 가치 있는 중요한 건물군이라 할 수 있겠다. 제주 돌창고의 벽은 제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화산석을 이용해 쌓는다. 그리고 그 위에 목구조 삼각 트러스를 얹어 슬레이트 지붕을 덮는 아주 간단한 구성이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주 전 지역에 급속도로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창고의 바닥은 감귤 상자를 운반하기 편하게 흙바닥 혹은 시멘트 바닥으로 마감되어 있다. 문은 거센 제주 바람에 쉽게 닫히지 않는 철제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며, 열고 닫기에 쉽고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전경



땅으로부터 시작된 외벽재료

제주 돌창고는 일반적으로 단층으로 지어지는데, 감귤을 저장하고 꺼내기 쉽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이런 기능적 이유로 2층의 돌창고는 흔히 지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간혹 길을 지나며 2층의 돌창고를 볼 수 있다.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두 개의 층을 가진 돌창고도 매우 특별한 사례다. 두 개의 층을 가진 돌창고가 생기게 된 이유는 건물이 위치한 땅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명리 돌창고는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돌창고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대략 2m정도 경사진 땅에 놓여 있다. 이 경사지를 활용해 돌창고는 자연스럽게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라는 두 개의 층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다. 이 돌창고를 가만히 보다보면 제주 사람들이 기존 땅과 지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을 지었는지, 삶에 필요한 기능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등 그 당시 제주도민의 건축에 대한 철학과 태도를 알 수 있게 된다.

• 구조

상명리 돌창고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제주돌을 두껍게 쌓고, 위로는 블록으로 수평을 잡아 지붕을 얹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1층 바닥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이 없는 출입구 쪽은 시멘트 바닥으로, 지하층이 있는 바닥은 나무 판재로 되어 있다. 나무판재 바닥 아래는 각재로 된 가로 장선이 돌벽에 박혀 있고, 그 밑으로 세로 장선 하나가 길게 가로지르고 있으며 그 세로 장선을 원형의 삼나무 기둥이 약 1m 간격으로 지지하는 형상이다. 거친 돌벽과 각재, 껍질도 벗겨내지 않은 거친 삼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진 지하 공간은 간결하고 투박한 제주 건축의 아름다운 미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에이루트

1층 바닥을 받치고 있는 지하 삼나무 기둥

• 환기와 채광, 배수로

제주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에 비해 매우 습하다. 감귤을 보관하기에 지하층은 서늘하지만, 습기가 많아 귤을 보관하는 장소로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습기가 많으면 귤이 쉽게 썩기 때문이다. 상명리 둘창고는 맞통풍이 되도록 남, 북으로 작은 창문과 원형 환기 구멍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지하층 바닥은 기존 흙바닥에 굽은 송이로 마감했으며 바닥에 여러 개의 배수로를 만들고 외벽에 동그란 배수 구멍을 만들어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측조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층에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맞통풍이 잘 되어 공기 순환이 원활했고 습기도 많지 않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습기 문제를 해결한 지하층은 지상층보다 서늘해 감귤을 오래 저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1층과 지하를 연결하는 계단



지하 환기창



지하 배수구

• 물탱크

귤 농사를 지을 때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농약을 치기 위해서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필요한데, 상명리 돌창고에는 돌창고 외벽과 일체화되어 지어진 물탱크가 있다. 그리고 물탱크 한쪽 벽면에는 뜬을 6cm 간격으로 고정시켜서 물탱크 용량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돌창고가 귤을 보관하는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었고, 물탱크 기능이 추가된 상명리 돌창고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 처마 - 물흘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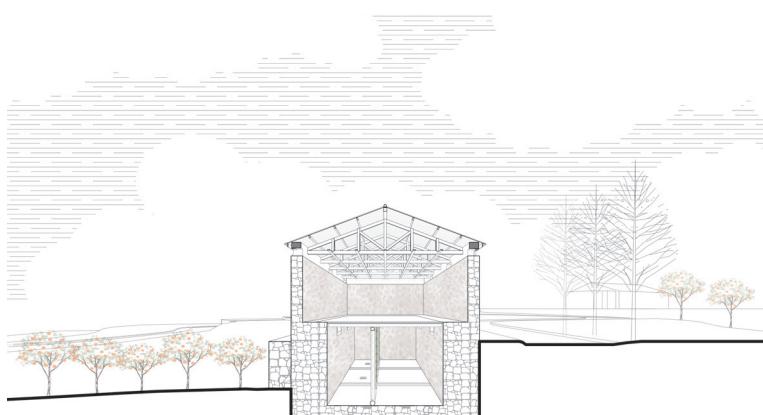
돌창고는 저장을 위한 단순한 구성이기 때문에 그 처마에는 일반적으로 물흘통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상명리 돌창고는 출입구가 있는 북쪽 처마에 흘통을 설치해 드나들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



외벽과 일체화된 물탱크



지붕 물흘통



상명리 돌창고 투시도

©에이루트

이렇게 두 개의 층을 가진 상명리 돌창고는 제주의 자연환경, 지형과 풍토를 고려하고 삶에 필요한 기능들을 간결하고도 알차게 담은, 제주 사람들의 지혜가 반영된 건축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겠다.

제주 돌집의 원형을 찾다, 고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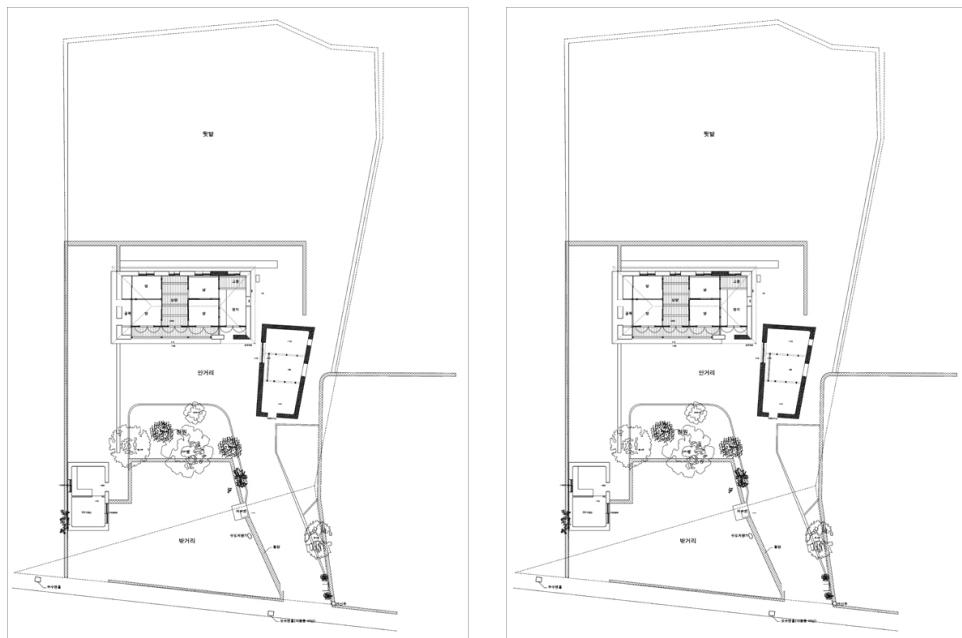
고산리는 제주에서도 가장 서쪽 끝에 있어 외지인의 손을 비교적 덜 탄 지역에 속하는데, 제주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평평하고 너른 밭이 많은 편이다. 이 집은 마을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 제주 전통 한옥의 구성을 하고 푸른 양배추밭 사이에 살포시 놓여 있었다. 몇 번의 수선을 거친 듯 보인 집은 비교적 단단하게 지어진 안거리와 엉성하게 지어진 밖거리, 쇠막의 구성을 취했고, 생활에 따른 증축과 변형이 심한 편이었다. 진입 부의 제법 고즈넉한 올래와 수목들과 슬며시 드러난 지붕과 벽의 구조를 보면, 이 집에 가장 필요한 수선은 집의 원래 모습을 찾아주면서도 현대의 삶이 정갈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전경



©김형석



배지도 (1965년 원형 집과 수선을 거듭한 후 집의 모습)

출처: 건축주 제공



변경 전

기존 집은 생활방식과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에 맞게 증축되고 변형되어 있었다. 안거리는 부엌과 화장실이 실내화되면서 구조가 답답해지고 어색해졌으나 기본적인 부재 상태가 생각보다 좋은 편이었고, 상방에서 바라보는 정원의 풍경이 꽤 고즈넉했다. 쇠막은 빈약한 목재와 황토벽을 드러내고 있었고, 두 칸의 작고 엉성한 밖거리는 독립적인 채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해 보였다. 보편적인 구성, 집의 기본에 충실한 설계, 제주의 시골 마을에 새침하게 들어서지 않을 것, 예산에 맞추어 조화를 이룰 것 등을 염두하며 작업에 임했다. 불필요하게 증축되어 있거나 생활에 대응해 급급하게 변경한 부분들을 털어내어 집이 가진 가능성을 원점에서 바라보고, 지금 현재 필요한 기능과 편의를 녹여내는 작업을 시작으로 집의 새로운 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깊은 올래, 오랫동안 집을 지키고 있던 수목들을 고려해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 되도록 구성했다. 보통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새로 손 본 집들은 연약해 보이기 마련이다. 고산집은 기존의 수목과 돌담, 시멘트 담 등을 세심히 매만지고 보수해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담으면서도 고즈넉한 집이 될 수 있었다.



수선 후 배치 평면도

©에이루트

안거리는 천장을 모두 뜯어내고, 황토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던 기존 목구조의 곁면을 모두 갈아내어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방, 마루 구성을 가진 커다란 안방과 현대적 쓰임에도 어색하지 않도록 조정해 배치한 제주식의 상방과 챗방은 익숙한 새로움을 주는 구성이다. 또한 거실에는 한옥과 같이 마당으로 열리는 커다란 네 짹 미닫이문을 두어 마당과 적극적으로 마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변화이다. 밖거리와 쇠막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가볍게 수선을 진행했다. 두 채 모두 지붕 구조가 안거리만큼 정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보강 후 경사를 살리고 내부에 다시 마감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밖거리는 방과 작은 거실, 화장실로 된 원룸으로, 쇠막은 부엌, 식당으로 재구성했다. 쇠막은 기존의 황토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분적으로만 보수해서 기존 집의 맛을 살리려 했다.



©김형석

상방과 챗방 (좌식과 입식))을 재해석한 거실



©김형석

방-마루 구성의 안방



©김형석

쇠막을 고쳐 사용한 주방과 식당



©김형석

낮은 천장고로 인해 구조를 드러낸 밖거리

수평으로 이어진 새로운 삶, 하천리 구옥

하천리 구옥은 하천리 마을 길 곁에 있는 집으로, 기존 세칸집의 고즈넉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녹여내기 위해 고심한 집이다. 도로변에서 내려가는 경사진 올래가 인상적인 집이다. 방-상방-정지의 세 칸 안거리와, 방과 창고로 이루어진 밖거리에 화장실 겸 장독대를 증축해 이은 형태였다. 건축주는 처음 마주한 집의 아득함이 좋아 기존 가옥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욕을 편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엉성하게 지어진 밖거리와 장독대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대지 경계선 문제와 구조적 불안정함으로 어려울 듯 보였다. 기존 가옥에 원하는 기능을 넣는다면 외피만 제주집인 의미 없는 집이 될 것 같았다. 고민하던 차에 떠오른 생각은 밖거리를 철거한 자리에 적당한 크기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 근사한 목욕탕을 만드는 것이었다. 새롭게 들어갈 목욕채에 기존 집에서 부족한 화장실을 함께 담는다면 원하는 새로운 삶을 담으면서도 기존 가옥을 고풍스럽게 매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해다.

수평으로 이어진 새로운 공간은 목욕탕이라는 기능을 넣어 넓고 시원하게 계획했고, 고즈넉한 기존 제주집과 어울리도록 깊은 처마와 돌담을 둘러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외형을 보완했다. 기존 집은 지붕을 보수하고 방문 이마를 내려 낮은 개구부를 만들었으며 기존 외벽재료를 정성스레 다듬어 그 운치를 잃지 않도록 계획했다. 또한 집 주변으로 제주에 어울리는 수종의 나무와 화초류를 심어, 원래부터 있었던 집처럼 자연스러운 새로운 집을 만들어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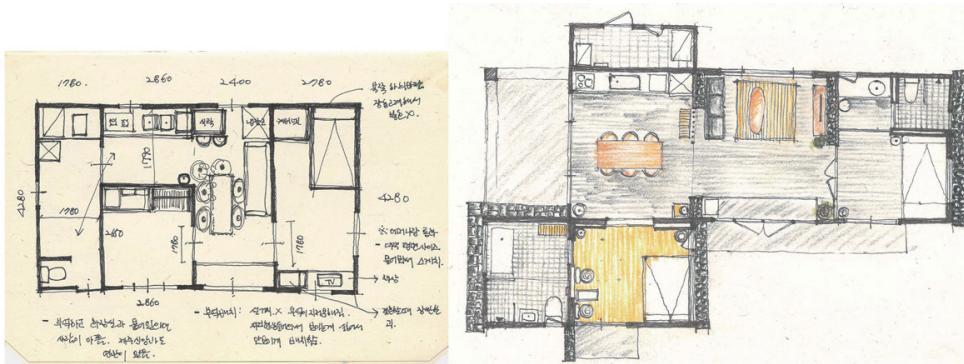
돌집을 수평 증축한 하천리 구옥



구옥에서 바라본 마을

보편적인 제주집, 제주 어머니집

제주 어머니집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한다. 청수리는 제주 중 산간 마을로,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집은 근처에 있는 소박한 민가의 형식을 기본으로 해 제주다운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제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유효한 공간과 구성은 어떤 것일지 깊이 고민했다. 제주인의 삶의 바탕이 되고 제주말로 절약과 절제를 의미하는 ‘조냥정신’은 이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대지 형상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배치와 낮은 진입, 주변에서 나온 돌들과 수목을 그대로 사용해 시간의 흔적이 드러나도록 한 점, 기본적이고 단순한 디테일을 통한 무던한 조형을 통해 그 의미를 건축에 담아 보려 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제주의 전통적인 한옥 형식을 지금 시대에 어울리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배치 평면도



할머니집과 어머니집의 평면도

©에이루트

제주 어머니집 근처에는 어머니가 할머니를 위해 지은 집이 있는데, 기존 초가집을 허물고 동네 목수와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었다고 한다. 제주 한옥을 생활 방식에 맞게 변형해 지은 집으로서 굴뚝이 사라지고 현관과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으며, 실내화된 화장실은 물부엌의 역할도 겸하면서 축소된 정지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지은 할머니집을 실측하고 문득 제주도민의 ‘주의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고, 마을을 답사하며 제주 건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깨닫게 되었다. 우선 비바람이 거센 풍토의 영향을 받아 제주 한옥은 낮은 집과 따뜻한 마당을 기본으로 하여 안거리(안채), 밖거리(사랑채), 모커리(문간채) 세 채의 집을 배치하고, 남은 땅에 다양하게 이름 지은 마당을 구성한다. 집이 낮다보니 햇살이 강한 외부와 대비되어 내부가 어스름한데,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가 근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분 좋은 어두움’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한 진입에 여유를 둘 올래와 문간을 구성하고, 각 채는 겹집의 구성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대청인 상방을 가운데 놓아 중심을 잡는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편히 부엌일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정지 옆으로 작은 방인 챙방을 두어 좌식과 입식을 혼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방



상방



작은 방

기분 좋은 어두움을 구현하고자 한 상방(거실)과 안방, 작은방



전경

©김형석

이런 제주 한옥의 구성도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 4.3사건과 산업화라는 큰 변곡점을 겪으며 기술의 발달,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머니가 새롭게 지은 할머니 집처럼 가옥의 구성도 달라진다. 우리도 이 부분에 주목해, 변함없는 가치는 무엇이고 현대적인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평면을 계획했다. 그리하여 네 칸의 제주 한옥에 화장실을 한 칸 덧붙이고, 거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방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으로는 작은방을, 서측으로는 큰방을 두었다. 그리고 개방성을 갖되 높이 차이로 영역을 구분 짓는 정지와 셋방 등이 현대의 삶에도 여전히 잘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방과 부엌의 관계로 치환해 유연한 계획이 되도록 했다.

사라져가는 올래에 대한 고민, 하천리 주택

하천리 프로젝트는 서귀포 표선의 중산간 마을에 주택과 사무실을 짓는 작업이었다. 건축주는 첫 미팅에서 새 건물과 마을이 이질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간 제주 마을과 구도심을 조사하며 올래가 망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던 터라, 이번 작업은 올래, 진입부 설계에 가장 공을 들였고, 건축주를 설득해 기존 대지의 높이차를 인정하고 구옥-사무실-주택의 순서로 낮고 깊어지게 배치를 했다. 사무실과 주택에 서 함께 쓰는 주차장을 도로에 면해서 만들고, 주택으로 들어가는 길은

민가에서 보듯 낮게 들어가는 고즈넉한 올래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은 건축적으로 새로이 ‘구축된 올래’로 계획했다. 이를 통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또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올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주 건축의 정서를 함축한 올래를 오늘날 우리가 구상하는 공간에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김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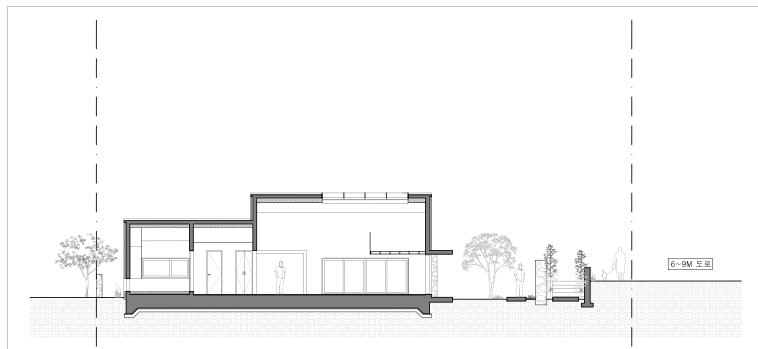
하천리 사무실 전경



©김형석

도로에서 사무실로 내려가는 ‘구축된 올래’

처음 배치를 잡을 때에는 택지분할하듯 반듯하게 땅을 나눌 것이 아니라, 제주의 밭처럼 지형에 맞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나눠 보고자 했다. 그리고 도로 쪽에는 주차장을 두고 건물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격해 빽빽한 이차선 도로에 여유를 줌으로써 주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결을 내주었다. 기존 대지는 바람을 피해 굴을 재배하느라 실제 도로보다 약 1m 정도 내려 앉아 있었는데, 이러한 땅의 형상을 살려 깊숙이 건물을 짓고 동네에 어울리는 스케일의 2층 건물이 되도록 계획했다.



기존 높이차를 이용한 사무실 계획

©에이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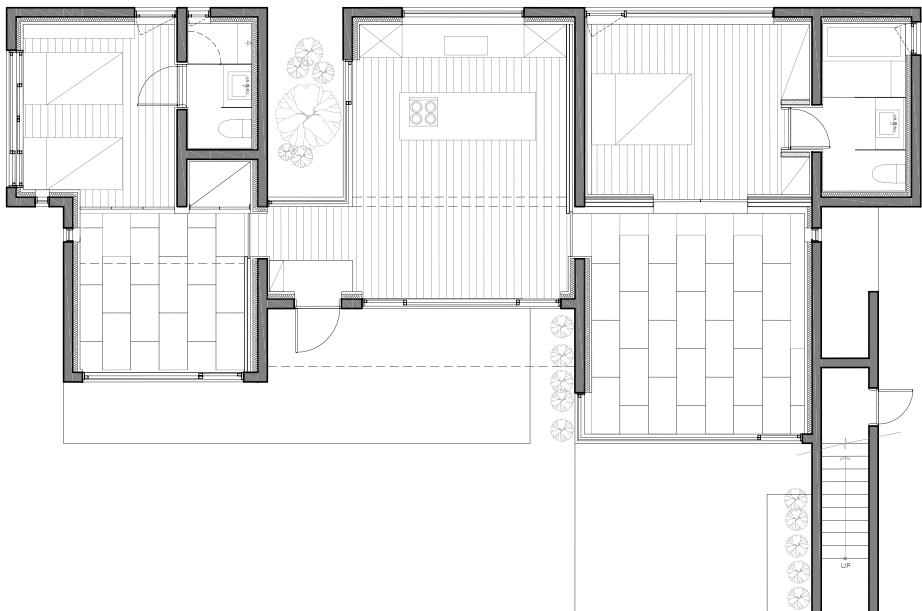


올래를 만들어 땅을 부정형으로 나눈 배치도

©에이루트

사무실 동은 오픈된 2층이 있는 큰 볼륨의 공간이다. 높이감을 살리기 위해 남측의 창문은 1,900mm의 높이로 계획하고 벽을 많이 뒀으며, 사무실과 게스트룸 사이에 작은 중정을 배치해 심적으로 분리가 되도록 했다. 뒷쪽에 자리한 방은 단정하고 포근하게 마감해 업무공간과 차별을 둘다.

건축주 부부는 서울에서의 업무 비중을 줄이고 제주에 더 오래 머물며, 땅과 가까운 삶을 살려 한다 이야기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제주로 자주 모시고 올 예정이라고도 했다. 건축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제주의 안거리, 밖거리를 지금의 쓰임에 맞게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은 큰 방-큰 거실-큰 화장실과 작은 방-작은 거실-작은 화장실을 양끝에 두고, 함께 사용하는 주방을 중간에 배치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게 설계 했다. 또한 사이에 들어온 주방에는 답답하지 않도록 옆에 작은 중정을 마련했다.



주택동 평면

©에이루트



©김형석

주택동 외관

제주 민가에 뿌리를 두고 시대를 받아들인 집, 고씨 주택

고씨 주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9년 당시 구도심의 생활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이한 당시에, 제주의 중심 이었던 구도심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를 받아들이고 해방 후에는 미국의 영향 또한 받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제주 구도심에서는 4.3사건으로 중산간 집들이 전소되며 재건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민의 생활 전반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 개별 주택에서 방 하나 세를 놓거나, 밖거리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도 많아졌다. 자연히 그 공간 구성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고 기술력이 좋아지며 기존 집에서 불편한 점들이 개선되고, 크기나 높이 등 전체적인 집의 외관도 점점 바뀌게 된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지어진 고씨 주택은 제주 한옥의 보편적 구성 방식에서 시작해 변화를 맞이한 주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전경



©이상훈



©김태일



©김태일



©김태일

기존 가옥

고씨 주택은 1949년에 지어진 건물로 안거리, 밖거리, 문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제주 한옥의 기본적인 배치 방식이다.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의 마당은 길이 5.5m의 규모로, 제주 한옥의 평균적인 마당 스케일을 지니고 있다. 건물로 바람을 막아주는 배치 방식을 통해 따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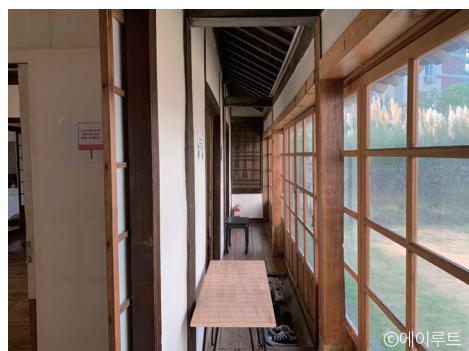
한 마당을 조성하게 된다. 안거리는 방, 상방, 방, 정지의 네 칸 겹집으로 되어 있다.



고씨 주택 모형



각서끼래를 사용한 상방의 지붕



뒤쪽의 긴 복도

우리는 제주의 전통적인 주택이 근대를 거치며 변화하는 양상을 고씨 주택을 통해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의 개수가 네 개로 늘어나고 상방 뒤쪽으로 긴 복도(툇마루)가 생긴 것이다. 이는 기존 제주 한옥에서 볼 수 없던 평면구성이다. 상방 뒤쪽 긴 복도(툇마루)는 복도가 많은 일본 주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존 제주 한옥보다 높아진 내부 층고다. 층고가 높아지면서 벽체와 기둥이 높아졌지만, 지붕을 구성하는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제주 한옥에서는 육지 한옥과는 달리 서까래를 장연과 단연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긴 서까래를 사용한다. 지붕 물매를 낮게 해서 거친 제주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층고가 높아졌지만 지붕은 기존 구조 그대로라는 점은,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도 제주의 거친 풍토를 견디기 위한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안거리 정면에 있는 장마루에 유리로 된 미닫이문을 설치한 것이다. 고씨 주택은 주택 내부에 현관이 온전히 설치되기 이전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한옥에는 가운데에 상방을 두고 양옆에 방을 두며 전면으로 퇴칸을 만든다. 퇴칸에는 기본적으로 외부문을 달지 않는 대신에, 처마 밑에 풍채라는 비와 햇빛을 조절해주는 장치를 설치한다. 이러한 퇴칸은 지금의 현관과 유사한 역할을 했는데, 근대로 넘어 오면서 비와 바람을 막기 위해 기능적인 유리 창문이 퇴칸에 설치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산업 발전기를 거치며 개량되거나 새로 지어지는 농가 주택에는 실내화된 장마루처럼 상방 길이와 같은 긴 현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근대에 지어진 고씨 주택은 제주 풍토에 적응한 기존의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당시 시대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집으로서, 제주 주택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고씨 주택 안거리 평면도와 입면도

©에이루트

천천히 변해가는 구도심 골목과 풍경, 순한곳 제주

구도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며 제주의 오래된 도시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던 중이었다. 도시는 켜켜이 쌓여 적층된 시간을 품어야 하고 도시에서 사람들은 편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곳곳에 자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무렵, 한 건축주 부부가 찾아왔다. 당시 제주 구도심은 잘 기획된 숙소와 상점, 카페가 결합된 복합건물이 성공적으로 들어온 후라 주변이 조금씩 들썩거리던 시기였다. 건축주는 타지역의 구도심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쇠락하는지 수없이 봐왔기에 실험적인 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건축주의 독특한 결심에 ‘제주 구도심의 고유함’을 담고 ‘천천히 변하는 골목’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그려면 이질적인 새 건물로 인해 주변이 오히려 허름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건물이 시간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운영의 자연스러움과 어우러지는 건물의 해법일 것 같았다. 큰 자본이 들어와 순식간에 주변을 물들이기보다 생명력 있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 서서히 골목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오래된 도심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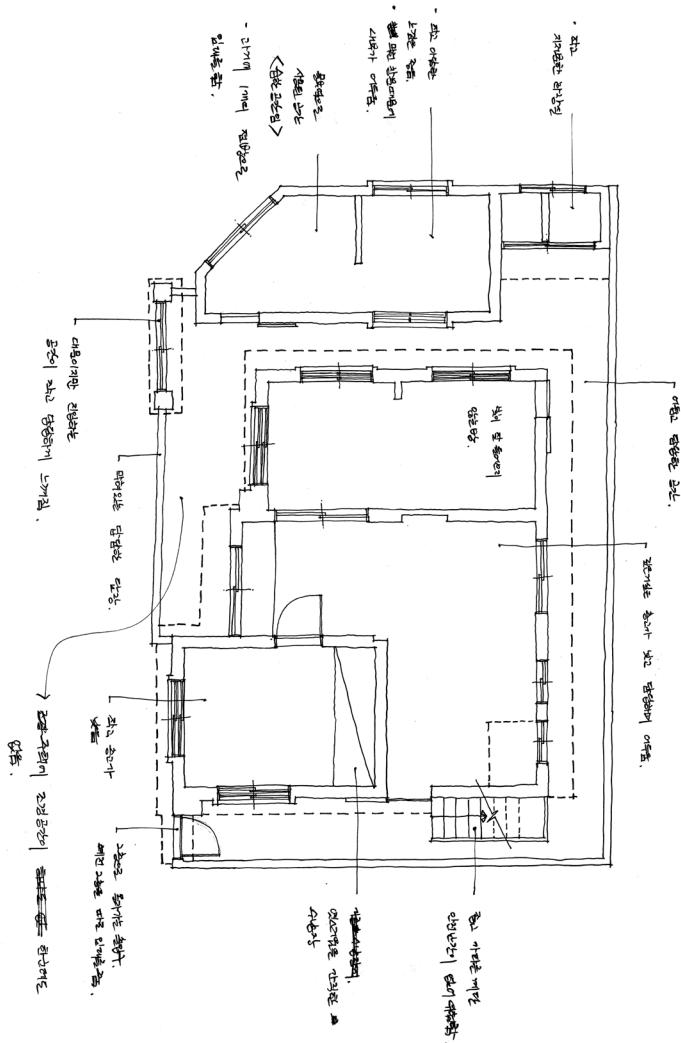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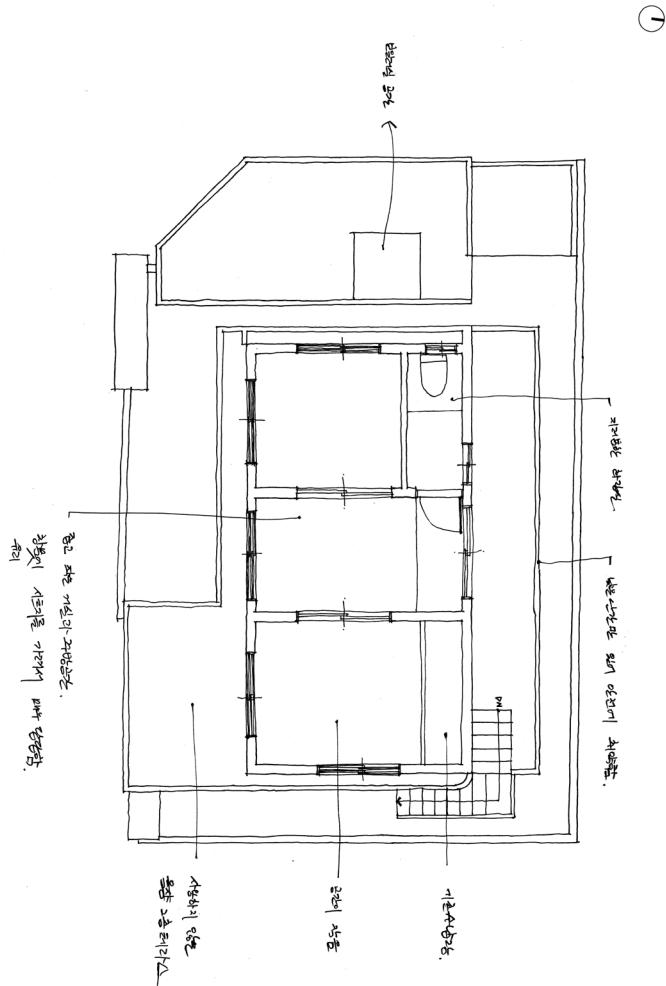
©이상훈

처음 사이트를 방문한 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970년대 하얀 주택을 마주했다. 1층은 주인이 살고, 바깥채 한켠은 임대를 주고, 외부 계단으로 이어진 2층 공간도 임대의 흔적이 남은 2층의 다가구 주택이었다. 건물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근히 실측을 하고 자세히 사진을 찍으며 조금씩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했다.



기존 가옥의 1층 평면도

©에이루트



기존 가옥의 2층 평면도

©에이루트



©에이루트



©에이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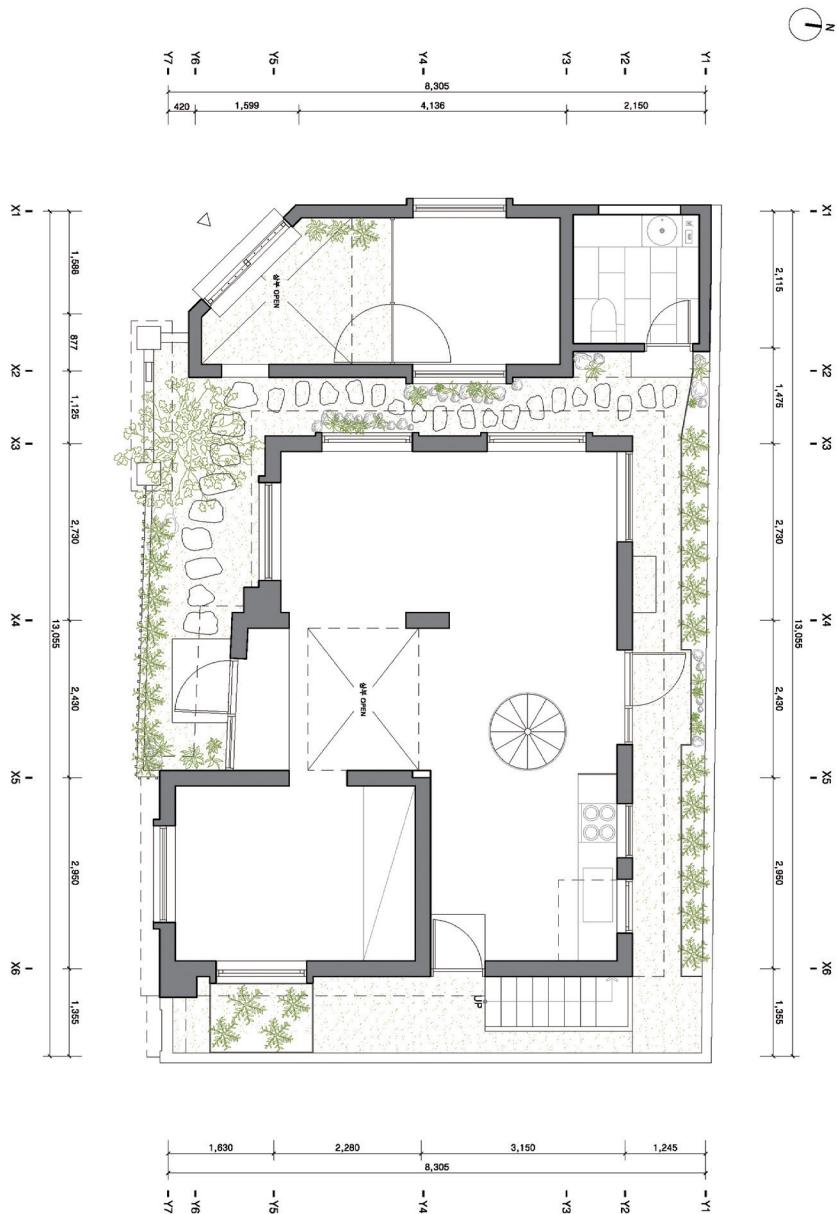
©에이루트



©에이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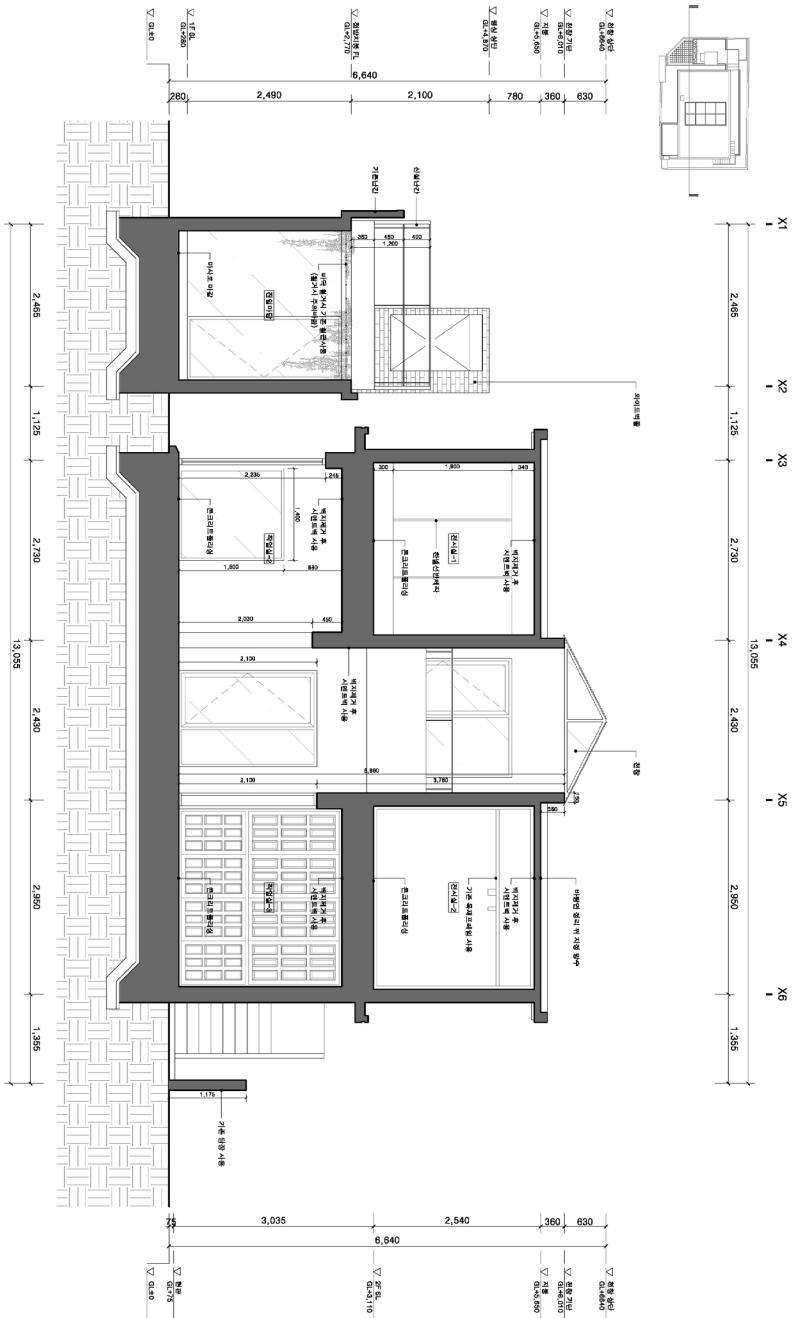
겹집 구성의 기준 가옥

제주 구도심을 조사하며 느낀 문제점 중 하나는 녹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골목이 ‘건물과 바로 면한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 부분 돌담길과 오래된 집들이 남아있지만 1960-19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고풍스러운 집과 올래를 포함한 옛것들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기능만 남은 삭막한 동네가 되어버렸다. 집은 새롭게 변화하더라도 올래가 남아 있었다면 제주 구도심은 지금 더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땅의 가치가 높아지고, 한 평이 아쉬운 지금 시대에 어떻게 올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심상적 올래’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자신의 땅을 이웃과 느슨하게 공유해 여유로운 동네를 만든다는 올래의 개념에 집중하면, 집과 도로로 가득 찬 구도심에도 올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1층 계획 평면도

©에이루트



계획 단면도

◎이이루드

처음 집을 들어섰을 때의 느낌은 어둡고 갑갑하다는 것이었다. 작은 땅에 건물로 가득찬 집은 제주의 겹집을 변형한 모습이었는데, 흙집과 달리 깊은 맛은 있었지만 빛이 고르게 닿지 않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집을 지을 당시의 스케일이 지금 우리의 삶과는 맞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졌다. 외부의 구성에 이어서 한 작업은 현대인의 신체조건이나 삶의 방식에 맞춰 평면과 단면을 새롭게 구성해 밝고 시원한 공간감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대문을 바꿔 점방으로 드나들게 했고, 점방의 슬라브 일부를 드러내 빛이 들어오는 작은 진입마당을 만들었다. 본 건물의 내부에 2층과 통하는 원형의 실내계단을 두고, 2층 바닥 일부를 철거해 시원한 볼륨을 계획했다. 비가 새던 평지붕 일부를 박공지붕으로 만들고 유리로 마감해 빛이 2층부터 1층까지 고르게 닿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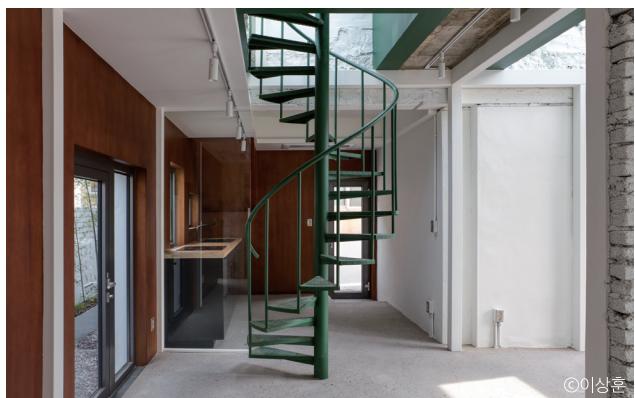
지붕을 일부 드러낸 점방



시간이 드러난 공간 (1층 갤러리)



1층부터 천장까지 열린 밝은 공간



2층으로 통하는 원형계단

집을 새로 고치며 신경 쓴 부분 중 하나는 1970년대라는 시대와 그간 담겨진 기억들을 현재와 함께 녹여내는 것이었다. 이번 작업에서는 과거의 흔적들과 새로운 솜씨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방법보다, 그때의 것은 그것대로, 바꾸는 것은 지금의 방식대로 대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택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꾸준하게 견지한 것은 오래된 것들도 날 것 그대로 거칠게 드러내기보다는 섬세하게 다듬어 마음 편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면의 굴뚝과 보일러실은 붉은 벽돌타일로 마감해 하얀 건물, 녹색의 정원과 함께 골목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전경

©에이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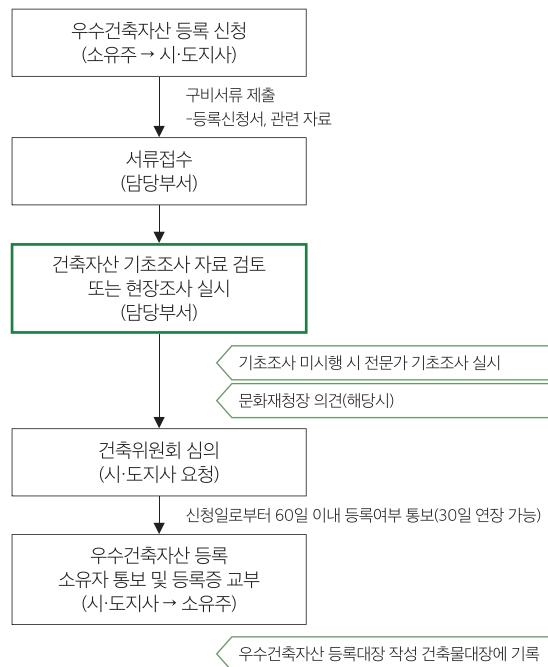
3) 다양한 제주집의 유연한 변화

제주의 집은 근대를 거치며 중산간 마을이 전소되는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정체성을 품고 기와집, 초가집, 돌집, 변화한 양옥집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이는 거센 바람과 지난한 장마, 강한 햇빛, 위협적인 태풍 등의 풍토, 그리고 육지와 떨어져 근대화, 산업화라는 급속하고 가열찬 변화에서 살짝 빗겨나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적응해 삶과 함께 변화했기에 제주의 집은 사라지지 않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았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 가옥은 개별 집과 더불어 올래, 수목, 다양한 외부공간, 마을 구성 등 대지와 동네 전체를 다루는 방식, 근현대를 지나오며 변화한 것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주거의식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례들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시대의 삶과 괴리되는 것은 아닌지, 박제된 전통가옥만 남지 않도록 신중히 지원방법을 고민해야 그 의미와 지속성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한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활용

1)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관리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신청하면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시행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건축자산의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건축자산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명칭, 소재지, 소유자, 용도, 구조, 규모 등과 관련된 내용이 등록대장에 기재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실과 해당 건축자산의 보전 필요사항과 증축·개축·철거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우수건축자산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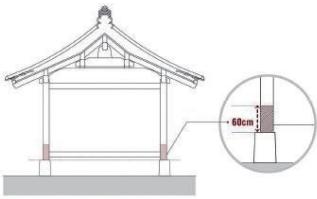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후 증축·개축·철거·리모델링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철거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30일 전 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조세를 감면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리고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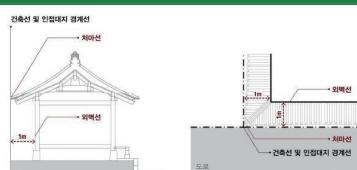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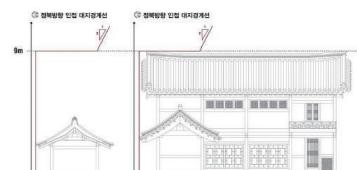
한편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와 우수건축자산이 등록 당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후에 취소가 가능하다. 조세 감면을 받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조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1년,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지원받은 보조금, 융자금을 전액 반환 또는 상환한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준공검사) 후 5년 이후에 취소가 가능하다.

2) 한옥 및 우수건축자산 관련 특례

한옥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마련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는 한옥에 대한 특례와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한옥과 관련된 특례(「한옥등건축자산법」 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는 주로 신축한옥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대수선의 범위,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법 등은 기존 한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별표2)

특례적용 관련 규정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적용 관련 규정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주심도리 윗면에서 종도리 아래면까지의 공간에 설치하는 다락으로서 그 실내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가.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나. 한옥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 건축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한옥 건축물의 경우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2호에 따른다.

한편 우수건축자산을 증축·개축·재축·대수선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특례(「한옥등건축자산법」 제14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단, 특례 적용을 받더라도 해당 우수건축자산의 주

요 가치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외에도 특례 적용으로 인해 주변의 대지,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발생시키면 안 되며,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해지지 않아야 한다. 관계 법령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구분		내용
법 제14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3조 지하층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제64조 승강기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2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
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 고층건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녹색건축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5조 녹색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
법 제14조 제3항	소방시설법	제9조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
		제11조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한옥 우수건축자산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증축·개축·재축·대수선하는 경우, 건물이 지어졌을 당시와는 제반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훼손해야 할 정도로 한옥에 조정을 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의 특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한옥이 지어진 이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해당 한옥이 건폐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건폐율의 완화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건축법」, 「주차장법」, 「녹색건축법」, 「소방시설법」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소방시설법」의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특례를 잘 활용한다면,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에는 도시권과 비도시권에 걸쳐 다양한 한옥이 남아 있다. 특히 도심지 안에 위치한 한옥은 건폐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부설 주차장, 병화지구 안의 건축물 등의 항목에서 건축 행위 시 관련 법령의 특례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남아 제주의 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박씨초가와 제주의 여러 한옥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제 주 한 옥, 박씨 초가 이야기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펴낸이	이영범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http://auri.re.kr www.hanokdb.kr
지은이	국가한옥센터, 양건, 김태일, 고기봉, 이창규, 강정윤
편집	신치후, 박일향
디자인·제작	세일포커스(주)
출판등록번호	제2015-41호(등록일 '08.2.18.)
ISBN	979-11-5659-416-1
비매품	



auri
NATIONAL
HANOK
CENTER

비교품

9 791156 524161
ISBN 979-11-5659-416-1

